기본연구 2001-41

Plan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2001-41

Plan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박태준
연 구 자 : 오은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현재와 같이 고도로 지식화된 산업사회에서는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지 않으면 직업세계에서 도태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문대학의 "전문직업인 양성" 이라는 본래의 교육목적을 살리고, 입학생 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속교육의 기능을 확대·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전문대학은 고도로 지식화 된 사회에서 "질적으로 검증된 전문직업인의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입학생의 감소와 이에 의한 재정위기의 타파라는 내적 요구의 해결책으로서 "계속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계속교육에 대한 일관된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사관련 법령의 제약, 전문대학 계속교육에 대한 산·관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재정의 취약, 질적 강화방안의 부제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을 방해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계속교육에 대한 공론적인 인식의 장을 마련한다면, 전문대학의 위기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현실적으로 개선가능하고, 향후 발전적으로 추진할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어려운 연구여건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수행해준 연구자와 수행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전문대학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처리를 도와준 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직원과 자료수집 및 정리를 도와준 연구조원 유경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1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 구 요 약】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달, 직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구조상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전문대학 졸업생의 계속교육의 발달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를 위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계속교육"을 평생교육이라는 교육체제 안에서 그 개념 정리를 새롭게 정립하여, 새로운 계속교육의 관점에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에서 정의한 계속교육은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출한 청소년 또는 성인을 위한 직업능력의 개발·적응·향상·전환교육훈련이다.

이러한 계속교육은 그 목적에 따라 수평적 계속교육과 수직적 계속교육 그리고 기타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계속교육은 전문대학의 졸업생과 이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이가 자신의 직무능력의 개발과 전직·이직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현재의 기술과 지식 이외의 것을 이수하기 위한 과정이다. 즉 자신의 전공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 대한 입직교육(initial education)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는 "정원 외 입학" 등으로 설정하였고, 수직적 계속교육은 승진이나 기타 직무능력과 관련된 이유로 자신의 전공영역 또는 기술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 교육에 포함되는 과정으로는 현재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직무중심교육과정", , "주문식교육", "산업체 위탁 과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타과정으로 "특별과정"과 "평생교육과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각 전문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속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각각의 계속교육의 형태에 대한 법령과 그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성인

들의 계속교육을 위해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이 실시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들이 성인들을 위한 계속교육을 보다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대학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와 문헌을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인 현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31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방향의 설정과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러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도 개최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을 통해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정책을 도출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은 최종 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2. 계속교육의 정의와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형태

가. 계속교육의 정의

계속교육은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출한 청소년 또는 성인에게 제공되는 직업과 관련이 있는 적응·향상·전환교육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을 정의하면,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사회생활을 영위한 청소년·성인·노인이나 취업을 하여 일정기간동안 직업경험을 보유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단기고등직업교육을 통한 자격취득자에게 제공되는 적응·향상·전환 교육훈련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해 이렇게 폭넓게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실제 강조되는 대상은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사회생활을 영위한 청소년, 성인, 노인보다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청소년 근로자 또는 성인 근로자이다.

나.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형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은 그 목적에 따라 수평적 계속교육과 수직적 계속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계속교육이라 함은 전문대학의 졸업생과 이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이가 자신의 직무능력의 개발과 전직·이직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현재의 기술과 지식 이외의 것을 이수하기 위한 과정이다. 즉 자신의 전공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 대한 입직교육(initial education)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는 "정원외 입학", " 시간제 학생 등록제", "특별과정", "평생교육과정" 등이 있다. 반면, 수직적 계속교육은 승진이나 기타 직무능력과 관련된 이유로 자신의 전공영역 또는 기술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 교육에 포함되는 과정으로는 현재 "전공심화과정", "직무중심교육과정", , "주문식교육", "산업체 위탁과정" 등이 있다.

3.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설문/ 면담 조사의 결과)

가.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운영 실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① 계속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②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 ③ 계속교육강화의 방향과 전략, ④ 계속교육강화 전략의 실현가능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한정된 계속교육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평생교육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계속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서는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대학은 직무분야의 계속교육과정보다는 직업평생교육에 더욱 치중하고 있었다. 계속교육 강화방향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공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시사점

①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
② 산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마련
③ 전공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연계
④ 시간제 등록생의 확대
⑤ 학점은행제 및 재교육의 활성화
⑥ 계속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참여 교수에게 인센티브 지급

4.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기능 강화 방안

가.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 방안

① 단기고등직업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②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엄격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
③ 우리나라 직업교육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대학 계속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④ 애매모호한 평생교육보다는 전문직업교육활동인 계속교육에 집중한다.
⑤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유인 체제 강화 및 교수관련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
⑥ 정원 외 등록의 경우 정규교육보다는 계속교육의 틀 안에서 교양과목과 기본공통과목을 면제하도록 한다.

나. 수평적 계속교육 기능 강화 방안

① 정원 외 등록의 경우 정규교육보다는 계속교육의 틀 안에서 교양과목과 기본공통과목을 면제하도록 한다.

다. 수직적 계속교육 기능 강화 방안

①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결과를 경험학습으로 인정하고 직업경험을 학습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② 우리나라 직업교육체제 내에서 전문대학의 본래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학위등록기관과 학습기관을 분리한다.
③ 기업의 학습조직과 연계한 계속교육과정을 구축한다.
④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을 활성화하는 전제조건으로 학습에 관한 노사합의체제 또는 사회동반자체제를 구축한다.

차 례

<표 차 례>

<그 림 차 례>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가 급속히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면서 우리의 산업구조가 지식·정보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전문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들은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기술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후한 교육과정, 고용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등 학교 밖의 학력인정기관 및 학력인정제도의 확대로 인해 이들 기관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전문대학의 위기는 전문대학의 기능과 존재의 당위성에 대해 상당부분 부정적인 시각과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전문대학의 원래의 교육목적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데 있지만, 현재의 전문대학 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 위기의 문제의 원인은 발전하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과정과, 현장실무 습득과 괴리된 프로그램의 운영, 졸업생과 기타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을 방해하는 폐쇄적이고 자율성이 미흡한 학사운영 등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학정원에 대한 자율화 정책의 시행으로 대학정원이 크게 증가되어 '98학년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문대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강성원, 1999). 그리고 이와 같은 정원부족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고등교육의 개방으로 외국계 대학의 진출이 허용되고, 통신 매체의 발달에 의한 국내외 대학의 사이버 강좌가 보편화되면 4년제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문대학들은 학생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확대되어 학사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문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종합해보면 첫째,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전문대학 진학자가 감소될 것이고, 둘째, 전문대학 지원자의 감소와 더불어 다중 복수지원이 가능한 입시전형으로 전문대학 학생자원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셋째, 전문대학 학생의 질이 떨어지는 반면, 기업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생이 향후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직업기초능력과 다양한 전문능력을 모두 갖추기를 원하고 있어, 교육자원의 질과 기대하는 교육 산출과의 간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유배, 199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은 교육 수요자를 다양화하여 전문대학의 지원자를 크게 늘리고, 전문대학 졸업생의 능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전문대학은 성인들을 위한 재교육과 계속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열린 학사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는 계속직업교육기관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최근에 전문대학은 계속직업교육기관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고,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교육의 대상을 일반 성인과 졸업생에게 확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와 졸업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미약하다. 즉 전문대학은 계속직업교육기관으로써의 자신의 특성과 장점을 개발하지 못하고, 우후 죽순처럼 다른 일반 평생교육원이나 4년제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의 운영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뚜렷한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전문대 교육의 질적인 저하의 초래" 라는 우려와 비난만 받고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대응과는 달리, 선진국인 영국

에서는 계속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대학(Community College), 호주에서는 훈련 및 계속교육 (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기관을 각 지역에 설치하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적령기의 청소년은 물론 지역사회의 성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문대학의 고유 기능인 전문산업인력양성에 대한 전문화·질 관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정부·산업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처럼 전문대학을 둘러싼 안팎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문대학은 "계속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계속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 그리고 전문대학 자체의 교육의 목적, 그리고 사회·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숙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무시와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유행의 추구는 가까운 미래에 또다시 "전문대학의 질적 위기"와 "학습자의 외면"이라는 문제에 봉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계속교육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전문대학에서의 계속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고, 선진외국의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사례와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설문·면접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전문대학이 졸업생과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둘째, 현재 진행중인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형태와 관련 법규를 파악하며, 셋째,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의 서구 선진국들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대학 수준의 계속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고, 넷째, 현재 우리 나라의 각 전문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속교육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들이 성인들을 위한 계속교육을 보다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다루었으며, 전반적인 연구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Ⅰ-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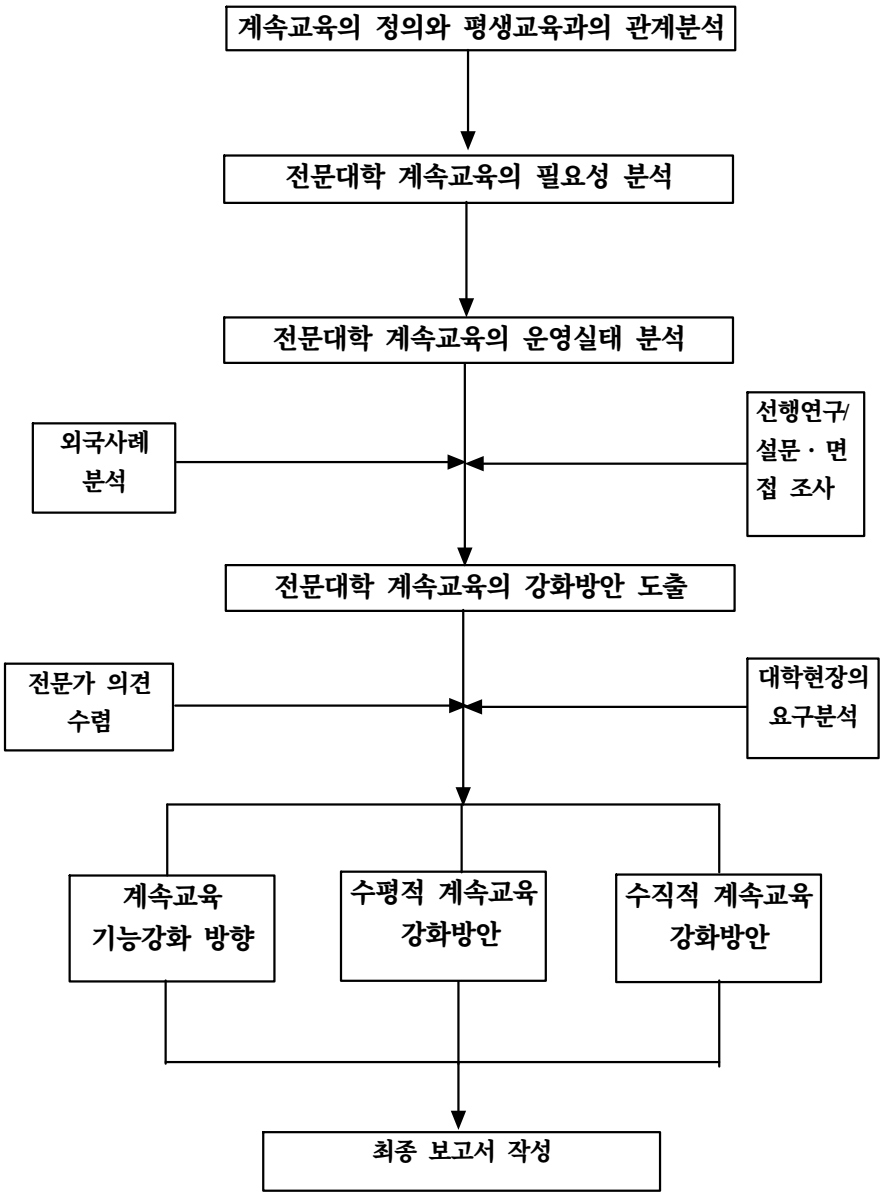
첫째, 계속교육의 정의와 계속교육과 평생교육의 관계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평생교육과 계속교육 그리고 이들과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성인교육, 사회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평생교육이라는 전체 구조 속에서의 계속교육의 영역에 대한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

둘째,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하여 위에서 규정한 틀에 맞추어 그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계속교육의 형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대학 계속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와 여러 학자들의 문헌을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면접조사 등을 통한 현장성 있는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기서 추출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범위와 항목과 관련된 주요 정부정책과 법령 및 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속교육의 형태와 그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다양화 실제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최근 계속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를 선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실제를 교육 대상, 교육과정, 학사 운영, 질 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국가 간의 비교·분석 결과가 우리 나라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기능 강화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이 계속교육 다양화를 통해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되는 계속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제언, 다양한 학습조직과 전문대학의 연계방안, 전문대학 자체의 추진 과제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그림 Ⅰ-1〕 연구 수행 절차

3.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관련 문헌 및 자료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간담회, 토론회 개최, 면담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문위원진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협력을 받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추진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행연구 및 국내·외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계속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각종 평생교육 및 계속교육에 관련된 단행본 및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문대학 관련 각종 법령 및 운영 규정, 주요 제도 및 정책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운영 실태 관련 자료와 각종 지표, 개별 전문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서, 브로셔, 전문대학 관련 선행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한편, 외국의 고등단계 직업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물을 분석하고, 특히 우리 나라 전문대학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 영국의 계속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 호주의 기술전문대학(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독일의 전문기술대학(Fachhochschule) 등의 직업교육 정책 및 전략과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 자료 수집 및 면담실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당해 대학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문식 교육

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전공심화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의 6개 전문대학을 방문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운영상의 애로점과 개선 방안, 지원책 등에 대해 관련 담당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 전문가 협의회

연구진과 연구 협력진은 연구 방향 설정 및 내용의 상세화와 그간 수행해 온 전문대학 계속교육 강화방안과 과제 발표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9월 17일과 10월 25일 두 번에 걸쳐 개최하였다. 9월 17일에 개최하였던 회의에서는 특히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다양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구체적 항목과 설문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전문대학이 계속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과, 전문대학이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관 모두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0월 25일에 개최한 협의회에서는 그간 수행해 왔던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강화 방안과 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이 세미나에서는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진이 제시한 강화 방안 및 과제의 적절성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라. 설문조사

연구진은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대학 관계자들의 인식 및 요구를 확인하고, 계속교육의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조사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과정에서 개별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사례 분석을 통해 조사 항목을 작성하였으며, 연구 협력진과 전문가 협의회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31개 전문대학의 기획실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등 전문대학의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관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1년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전체 배포된 310부 중 181부로, 58.3%의 회수율을 보였다.

주요 설문조사 내용은 첫째, 계속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둘째,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 셋째, 계속교육강화의 방향과 전략, 넷째, 계속교육강화 전략의 실현가능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주요 조사내용을 제시하면 <표Ⅰ-1>과 같다.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분석은, 먼저 평균치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자의 반응을 비교·분석하여 각 항목별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우선 순위와 이들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분석 기법을 추가적으로 적용·분석하였다.

<표 1> 설문지 영역별 내용

영역	문항	조사내용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에 대한 인식	1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
	2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교육 기능
	3	취약 계층 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기능
	4	4년제 대학 편입학 지원 기능
	5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능
	6	민간자격증 취득기능
	7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직업교육
	8	입직 청소년의 산업체 적응 훈련기능
	9	학점은행제 관련기능
	10	전공심화과정기능
	11	산업체와 연계한 실업자 재취업훈련기능
	12	실업계 고교와 연계한 전문직업교육기능
현재 진행중인 정규 외 교육 및 중요도	1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생활교육, 소양교육 기능
	2	외국의 선진기술, 직업교육, 해외유학을 위한 기초기술 및 어학교육
	3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교육 기능
	4	취약 계층 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기능
	5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기능
	6	4년제 대학과의 연계를 위한 기술교육기능
	7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취득기능
	8	실업계 고교와 연계한 전문 직업교육기능
	9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직업교육
	10	입직 청소년의 산업체 적응 훈련기능
	11	학점은행제 관련기능
	12	전공심화과정기능
전문대학 계속교육 강화 전략과 이의 실현가능성	1	전문대학의 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운영
	2	산업기사 이상의 직무중심 교육과정 개발
	3	자격 갱신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개발
	4	전공심화과정 운영 활성화
	5	원격교육과정 운영
	6	기사 자격취득과정의 운영
	7	주문식 교육과정 확대
	8	시간제 등록생의 확대
	9	학점은행제 운영
	10	독학사 제도 운영
	11	시간별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
기타	1	계속교육을 위한 별도의 기구나 부서의 운영 여부?
	2	전문대학 졸업자의 재교육 또는 계속교육의 필요성
	3	계속교육의 운영이 전문대학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4	계속교육의 운영상의 문제
	5	계속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6	계속교육의 추진과정에서의 산업체의 참여 여부?
	7	계속교육의 추진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참여 여부?
	8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요소인가?
	9	누가 계속교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10	계속교육과정 운영 시에 가장 우선적인 필요요소는?

Ⅱ.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이론적 배경

1. 계속교육의 개념

고대 동·서양 학자들의 글 속에서 이미 교육은 평생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대산업사회와 더불어 공교육의 경직성, 사회에서의 부적응성, 비인간화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평생교육은 그 개념과 용어 그리고 방향에서 각 학자들마다 다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흔히 "성인교육", "사회교육", "계속교육" 등의 다른 용어와 혼합되어 쓰이고 있어, 각 용어의 고유의 의미와 그 지향점마저 혼용되어 이제는 이 4가지의 용어가 같은 의미인 양 쓰이고 있다. "계속교육"은 이 중에서도 그 의미가 거의 사장되어 지금은 의미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이 여기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평생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에 대한 개념을 통해 이와는 구분되는 계속교육의 개념을 밝히고자 한다.

가.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이라는 용어의 구상은 196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의 국제회의에서 렝그랑(Lengrand)에 의해 정식으로 소개되고 그 후 전 세계에 혁신적인 교육이념으로 전파되었다. 그는 "평생교육은 개인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애의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개인 및 사회 전체의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이라고 말함으로써 교육의 통합성과 종합적 교육체계를 강조하고 있다(김신일 외, 2000). 한편, 다베(Dave)는 "평생교육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평생을 통한 개인적·사회

적·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면서, 평생교육을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발전과 관련시키고 있다(Dave, 1976). 이 두 사람이 정의하는 평생교육은 인간존재를 위한 교육으로서, 인간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이 자기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을 평생교육의 기본철학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의 개념들은 주로 변화하는 사회에의 적응, 순리적인 사회문제 해결, 개인의 자아실현, 전인적인 발달만을 중시하여 교육에 대한 순기능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이에 프레이리(Freire), 일리치(Illich), 라이머(Reimer), 듀바(Dubar) 등은 렝그랑과 다베의 평생교육 개념이 기존 제도의 혁명적 개혁,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기존 교육제도의 보완 내지는 보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였다(권대봉, 2000).

또 다른 입장은 쟈비스(Jarvis)와 겔피(Gelpi)의 입장이다. 겔피의 경우, 평생교육의 올바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등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평생교육이 이념으로만 남아서는 안되며,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평생교육의 실천성을 강조한다.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념은 인간의 자유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특히 피지배층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과 노동의 생산체제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권대봉, 2000).

놀즈(Knowles, 1980)는 평생교육을 성인의 자율적인 학습행위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고 있는데, "개개인이 타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며, 또한 인적·물적인 자료를 발견하여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행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해석과 더불어 안드라고지(andragogy)라는 새로운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정우현, 1993). 안드라고지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주요 개념이다. 아동교육을 "아동을 이끄는 일"이라는 뜻으로 "페다고지"(pedagogy: 희랍어 paid(아동)+agogos(이끌다)=아동을 이끄는 일=아동교육)라고 칭하고, 성인교육을 "성인을 이끄는 일"이라고 하여

"안드라고지"(andragogy: 희랍어 aner(성인)+agogos(이끌다)=성인을 이끄는 일=성인교육)라고 칭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는 페다고지라고 한다(김신일, 2000).

우리 나라에서는 실정법상 평생교육의 개념을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광의의 법적 개념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의 개념으로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한다.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정규학교에서 행하는 정규교과학습을 제외한 학교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정규교과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의도적·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진호는 평생교육은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적 학습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인간성의 조화적 발달을 꾀하며, 변화하는 현대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 교육을 의미한다(장진호, 1985: 권대봉, 2000에서 재인용)라고 정의함으로써 렝그랑과 다베와 같은 형식적 면에 치우친 정의에 비해 평생교육의 내용 및 실질적인 면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피교육자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의 궁극적인 이념을 "인간교육"에 두고 있는 점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평생교육을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다 같이 개편·강화하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정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다 같이 개편·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것은 평생교육의 개념에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의 전면적 개편을 통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자는 교육개혁의 의지가

충분히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여러 정의 및 평생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종합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전기교육, 성인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정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며 그것은 개인의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회교육(Social Education)

이 용어는 앞에서 본 평생교육과 가장 혼동되기 쉬운 개념이나, 양자의 개념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사회교육도 광의와 협의로 볼 수 있는데 광의에서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유아교육도 사회교육에 포함된다. 협의에서는 유아교육을 제외한 학교 외 교육을 말한다. 즉,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에 의한 교육활동을 제외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권대봉, 2000).

다. 성인교육(Adult Education)

성인교육의 개념은 1700년대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성인문맹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인교육을 여가를 이용한 비직업적 교육, 즉 인문성인교육으로 인식해 왔다. 월러(Waller)는 영국에서 오랫동안 성인교육을 직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인문교육, 즉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각자의 마음을 개발하고 자신의 생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설명하면서, 종합적인 의

미에서의 모든 성인들의 학습활동을 "education of adult'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성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교육과정을 말하므로 자유교양교육, 직업교육, 제도적 틀 밖의 추가 혹은 고등교육을 총칭한다(Jarvis, 1983).

현대적인 의미의 성인교육 개념은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정의된 바 있는데, 1976년 유네스코 총회가 정식으로 채택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성인교육은 그 내용, 수준과 방법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성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교육의 과정이고, 또한 성인들이 그들의 소질과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넓히고 기술이나 직업적 자질을 향상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인교육은 개인의 보다 충실한 계속적 발달과 조화롭고 영속적인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의 참여에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 주는 모든 교육활동이다(황종건, 1994).

라.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계속교육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성인교육(adult education)과 함께 혼용되는 용어이며, 영국에서는 추가교육(further education)이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대학에서는 성인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이상에 부합하는 개념으로 계속교육을 부각시키고 있다. 종래에는 계속교육이 의무교육의 보완을 위한 보충교육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교육을 통하여 인간 유기체의 학습활동을 도와 준다는 이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장진호, 1985: 권대봉, 2000에서 재인용). 전통적으로 계속교육은 "자유교양" 전통을 말하며 취미, 재능, 여가활동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화된 특수한 훈련도 포함한다.

호울(Houle)이 정의한 계속교육은 직업 향상을 위한 교육, 유용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진보성, 창조성, 역동성, 자발성, 다원성을 대표하는 미국 진보주의에 이념적 배경을 둔다(권대봉, 2000).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계속교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

가면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연령층에만 가능했던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후, 사회적 요청에 의해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한 자신의 능력 고양이나 자아 성취의 만족을 위하여 교육적 욕구가 생성됨을 고려할 때 성인들에게 계속해서 배움의 기회와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교육적 대안으로서 그리고 평생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마. 전체 구조 속에서의 계속교육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평생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 계속교육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한 개인이 출생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수직적 차원의 교육과 수평적 차원의 교육이 포함된다. 수직적 차원의 교육이란 인간의 성장단계에 따른 교육의 구분이므로 여기에는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소년교육, 성인교육 등이 포함된다. 수평적 차원의 교육이란 각각의 성장단계마다 한 사회 속에서 동시에 제공되는 교육으로, 여기에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교육은 한 사회의 세 가지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평생교육은 일반적으로 형식, 비형식, 무형식으로 기술되는 교육의 부문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융통성으로 인해 성취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한 유형과 형태가 가능하다. 이것은 교육은 "학교"라는 공식적인 기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적 요소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평생교육"과 "교육"의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보면, 이것 자체가 교육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이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마치 평생교육이라 함은 교육 외의 교육 즉,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비형식적 교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의 의미를 왜곡되고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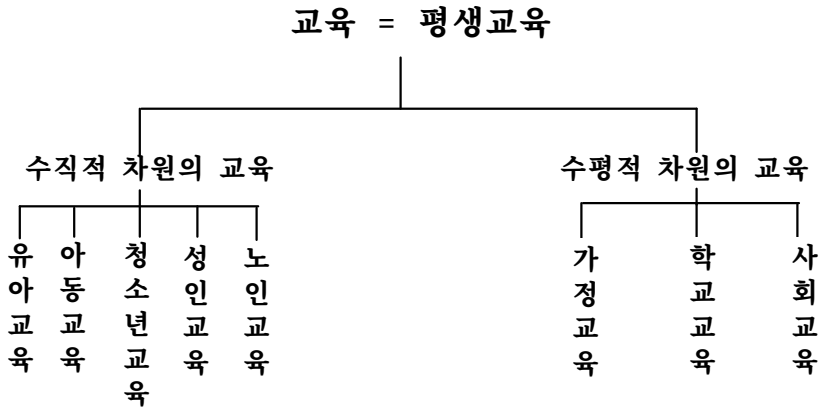
소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교육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자 다양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교육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본다면, 성인기라는 한정된 영역만을 지칭하는 "성인교육"과 "학교 외의 교육"을 의미하는 "사회교육"은 영역별, 대상별 구분에 따른 평생교육의 하위 단위들이다.

최근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평생교육의 또 다른 한 형태는 학교를 떠나 일정기간동안 사회생활을 했던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제공되는 계속교육이다. 계속교육의 대상이 학교를 떠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성인 또는 노인이기 때문에 중등교육 후 즉각적으로 고등교육을 받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속교육은 학교의 입직교육(initial education)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흔히 입직교육(initial education)을 통하여 입직을 하게 되므로 이 교육은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의 형태를 띤다. 반면, 계속교육은 일찍 입직을 하게 된 청소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성인 근로자의 향상교육이나 전환교육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따라서, 계속교육은 성인근로자의 계속직업훈련(continuing training)을 포함하기도 한다.

계속교육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의 구분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대학 계속교육은 전문대학에서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계속교육일 수는 있지만 입직교육(initial education)일 수는 없다. 또한, 평생교육이 교육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인 반면, 계속교육은 평생교육의 하위 단위인 성인교육 내에 주로 위치한다.

이상의 구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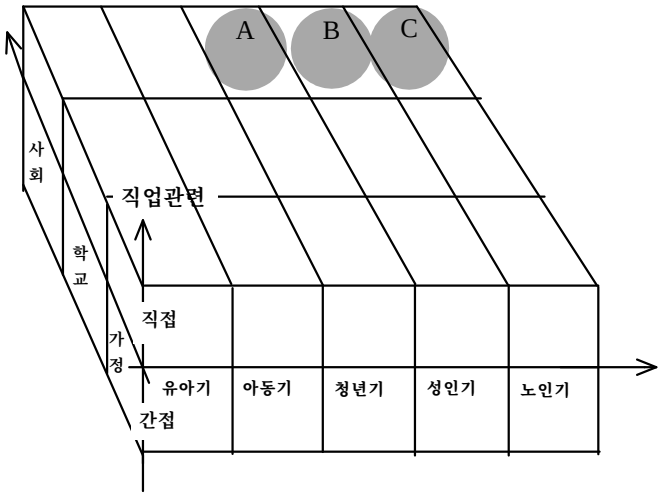
〔그림 Ⅱ-1〕 평생교육의 구분

〔그림 Ⅱ-2〕 평생교육의 2차원적 구분

〔그림 Ⅱ-1〕은 일차원적 구분을 그리고, 〔그림 Ⅱ-2〕는 2차원적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2차원적 모형에서는 각 구성요소의 상호관계가 좀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y축의 사회라는 용어는 학교와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이외의 영역을 나타내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통상적인 용어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2차원의 그림의 x축은 인간 발달단계에서 바라보면 y축의 영역들이 직·간접적으로 함께 인간발달에 관여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y축에서 보면 한 영역의 교육에 다양한 발달단계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갖고 동시에 참여함을 파악할 수 있다. 직·간접적 또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는 경우에 따라서 지배적인 역할과 미약한 역할의 결합으로 파악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2차원적 구분으로는 우리가 파악하려는 직업과의 관련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3차원의 축에 직업관련 유무를 투입하면 다음과 같은 매우 유용한 3차원 그림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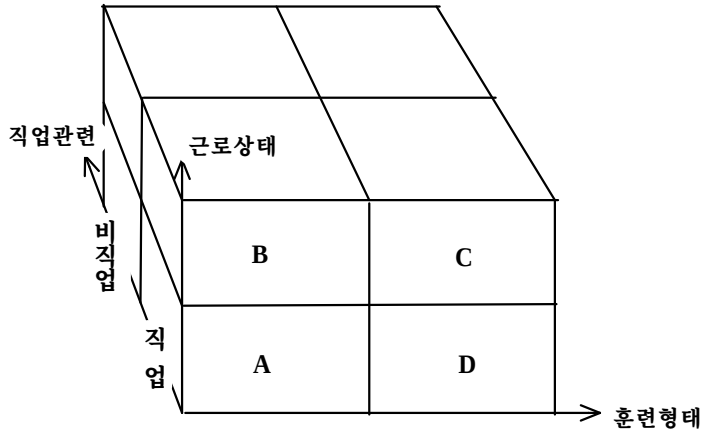
〔그림 Ⅱ-3〕 평생교육의 3차원적 구분

그림에서 '직업관련 간접'이라는 것은 직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양교육이나 학문을 위한 교육은 언어구사능력, 수리력,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공동작업능력 등의 기초직업능력의 배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계속교육은 위의 그림에서 A, B, C로 나타난 부분으로서,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출한 청소년 또는 성인에게 제공되는 직업과 관련이 있는 적응·향상·전환교육훈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을 정의하면,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사회생활을 영위한 청소년·성인·노인이나 취업을 하여 일정기간동안 직업경험을 보유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단기고등직업교육을 통한 자격취득자에게 제공되는 적응·향상·전환 교육훈련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해 이렇게 폭넓게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실제 강조되는 대상은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사회생활을 영위한 청소년, 성인, 노인보다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청소년 근로자 또는 성인 근로자일 수밖에 없다. 즉, 3차원의 그림에서 A, B, C를 제외한 부분은 위와 같은 정의에서는 계속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논의를 해 가는 동안 〔그림 Ⅱ-3〕 의 3차원 그림, 특히 A, B, C부분은 복잡한 현상을 구현하는데 매우 유용한 원칙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계속교육의 정의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의 방식이 다양한 평생교육의 형태 속에서 평생교육, 성인교육, 사회교육과 차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다른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훈련과의 관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방식은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직업관련, 근로상태, 교육훈련의 형태 등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1)]



〔그림 Ⅱ-4〕 계속교육의 영역

그림의 A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 연구에서 정의한 계속교육은 A, B, C, D 에 해당한다. 한편 비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시키느냐에 따라 C 의 일부가 계속교육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방식이 완벽하게 계속교육을 정의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1) 이 방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정택수의 제안을 참고하여 고안되었다.

단위 교육훈련과정의 속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필요성

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

과학기술은 현대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다른 분야의 연쇄적인 변화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학적 정보와 산업기술의 눈부신 발전 및 지식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내재한 현대산업사회는 직업세계를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들은 새로운 영역 변화에 적응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직업세계만 해도 수많은 직종들이 새로이 생겨나 이 직종들에 대한 적응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한 직종 내에 그대로 소속해 있다 하더라도 직업세계의 발전은 평생교육 차원의 계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전자·정보통신·신소재·생명과학 등 첨단 분야에서 진행중인 대규모의 기술혁신은 21세기의 사회·경제·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소재로부터 시스템에 이르는 연쇄적인 기술혁신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이로 인해 "신산업"(new industry)의 형성과 재래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기술발전의 흐름은 점점 고도화·지능화·복합화 되는 특징을 지니게 되고, 과학과 기술의 융합화로 기술의 발전속도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기술의 생명주기가 단축되며, 이로 인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의 R&D 능력의 확보가 미래사회에서 핵심과제로 부각되리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윤석천·신광호, 1996). 이러한 기술혁신 추세의 특징은 직업의 세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기술발전 그 자체는 신기술관련 인력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기술의 융합화와 복합화는 단순한 기능을 소유한 인력보다는 복합기술의 능력을 소유한 다기능기술자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기술의 생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능력의 소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고숙련 인력의 공급 필요분이 계속 상승하는데 비해 단순노동력의 수요는 계속 감소하는 양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경쟁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사회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고 다양한 요구가 증가되는 속에서 현행의 경직된 전문대학 교육체제로써는 대응능력이 매우 낮아서 향후 교육시장의 개방에 따른 직업교육의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은 21세기 평생학습사회가 요구하는 열린 학사운영체제와 계속교육으로의 개편이 요청되고 있다.

나. 평생학습사회의 요구

오늘날의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고 그 발전 방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분야에 있어서 지식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공학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 변화는 과학과 공학에 제한되지 않으며, 정치 · 문화 · 사회 · 경제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전반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권 중심의 교육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적절성"(relevance)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1995; 文部省, 1996; OECD, 1996; UNESCO, 1997). 따라서, "이미 주어진 교육의 틀 내에서 한 개인이 생애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전제는 이제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Lengrand, 1970: 44).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속화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노후화 현상은 모든 계층의 국민에게 이미 알려진 것은 물론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성인들 특히 산업체의 근로자들은 전 생애에 걸쳐 지식과 기술은 물론 사고까지도 계속 갱신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과정이 바로 계속교육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태화, 2000).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대학은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을 이

수한 근로자와 졸업생들에게 날로 변모하는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은 물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르침으로써 근로자와 졸업생들의 평생직업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OECD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 한 예로 OECD(1996) 회원 국가의 교육부 장관들은 평생학습사회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의 과제에 대해 합의하였다.[2] 이들 과제는 첫째, 평생학습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 둘째, 형식적·비형식적 교육과 직업생활 간의 상호 연계된 이동 경로 체제 확대, 셋째,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과정에 있어서 정부, 사회기관, 교육기관, 가족, 그리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의 재규정, 넷째, 정책 결정과 실행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식기반"(knowledge-base)과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다섯째,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제공 등이다. 전문대학의 관점에서 보면 둘째 번 과제와 다섯 째번의 과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평생학습사회에서는 형식적·비형식적인 교육제도와 직업생활간의 연계 강화는 물론 학습자들이 일과 학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대학이 근로자와 졸업자의 교육과 직업생활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은 평생학습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OECD가 제안한 바대로 정부 차원에서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대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주는 일은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촉진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정태화, 2000).

평생학습사회에서 청·장년의 직업교육은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실행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채프먼과 애스핀(Chapman & Aspin, 1997)

---

2) 이들은 1996년 1월에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현실화 대책"(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for All)을 협의하기 위한 회합을 가진 후에 21세기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국민, 산업현장,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경제 발전,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결집력을 확보해 주는 핵심적인 수단은 유아교육에서부터 퇴직 후의 적극적인 학습에 이르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라는 합의 문에 서명하였다.

은 평생학습사회에서는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은 고등학교 이후의 단계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와 달리 평생학습사회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구체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공간도 반드시 제도권 내의 학교로 한정시킬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졸업생과 산업체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제도와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대학은 "학습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에 거쳐 진행된다"는 기존의 학습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재직근로자가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작업장이나 가정에서도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사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학기 제보다는 단위 제를 도입하는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졸업생과 산업체 근로자들이 원하는 공간과 시기에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김호동, 2000).

다. 전문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

전문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 둘째, 고학력사회, 셋째, 이 두가지 요인으로 인한 입학생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제기된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성장률은 1960년대 2% 3%의 높은 수준에서 2001년 현재 0.85%를 기록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6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2000년대에 30대와 40대로 진입하게 되어 노동력의 중심축이 중·장년층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55세 이상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노동력의 중·장년화와 함께 인구의 노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는 연소 및 청소년 연령 인구, 즉 학령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2000년대 초반에 현저

히 이러한 감소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도에 10 19세의 학령기 인구가 8,936,991명이던 것이 2001년 현재에는 6,949,538명으로 학령인구의 뚜렷한 감소를 볼 수 있다.

<표 Ⅱ-1> 학령인구의 변화

연도	총인구	학령인구 (6세 21세)	초등학교 (6세 11세)	중학교 (12세 14세)	고등학교 (15세 17세)	대학교 (18세 21세)
1980	38,124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42,869	13,361	4,786	2,317	2,595	3,663
1995	45,093	11,918	3,901	2,443	2,349	3,225
2000	47,275	11,339	4,081	1,877	2,150	3,231
2005	49,123	10,837	4,265	2,082	1,880	2,610

출처: 통계청(2001).

두 번째 변화는 고학력의 가속화 현상으로, <표 Ⅱ-2>에서 알 수 있듯이, 고졸자의 진학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진학률보다 진학희망율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고학력화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 나라 18세 21세와 22 25세 인구가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30.8%와 16.3%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에는 취학 대상인구(6세 21세)의 절대 수는 감소될 것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국민들의 고학력에 대한 선호가 줄지 않고, 사회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전문기술 습득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교육투자에 대한 여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표 Ⅱ-2> 고등교육기관 진학희망자와 입학정원 (단위: %)

대학 입학 연도	진학희망자				고등교육 기관입학 정원(C)	비율 (%)	
	재학생 (A)	재수생	검정기타	합계 (B)		C/A	C/B
1990	594,673	281,763	12,711	889,147	339,510	57.1	38.2
1991	610,586	331,212	9,250	951,048	358,520	28.7	37.7
1992	594,500	326,861	10,240	931,601	387,810	65.2	41.6
1993	602,144	322,208	9,909	934,261	415,300 (490,175)	69.0	44.5 (52.4)
1994	520,796	213,093	7,649	741,538	451,595 (527,710)	86.7	60.8 (71.2)
1995	520,124	160,420	7,000	687,544	490,096 (566,210)	94.2	71.3 (82.4)
1996	522,307	109,190	6,500	637,997	528,595 (604,710)	101.2	82.8 (94.8)
1997	564,172	63,054	6,000	633,226	567,095 (643,210)	100.5	89.6 (101.6)
1998	598,896	41,963	5,500	647,359	597,015 (673,130)	99.7	92.4 (104.1)
1999	611,181	31,780	5,000	637,961	597,015	97.7	92.1 (103.9)
2000	599776	32,561	5,000	637,357	597,015	99.5	93.7
2001	557,544	27,279	5,000	589,823	597,015	107.1	101.2
2002	555,271	3,512	5,000	563,783	597,015	107.5	105.9

출처: 강성원(1999).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18.

이러한 고학력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의 양성기관"으로서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두어왔다.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구성원의 노력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간기술인력의 수요증대, 그리고 대학의 입학정원 자율화 등으로 양적인 면에서 크게 증가하여 왔다. 1988년 전문대학 학생정원이 210,500명에서 1998년에는 542,610명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였으며, 학과수도 1994년 1,843개에서 1997년 2,329개로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

생의 취업률이 1985년 4년제 대학을 앞서게 되었고, 1997년에는 취업률이 84.5%에 이르고 있다(강성원, 1999). 또한, 1997년 12월 13일 제정·공포된 고등교육법에서는 전문대학 교육의 목적이 중견직업인 양성에서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변화되어, 보다 전문화된 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은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전문대학 교육, 전문대학 학사운영의 경직성, 전문대학 교육목표의 모호성 등의 전문대학 내부적인 문제와 더불어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개방, IMF 금융구제 등 국내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준칙주의의 도입에 따른 대학의 신설 급증, 4년제 대학 입학정원 위주의 증원과 이에 따른 전문대학 위상의 상대적 위축, 학생자원의 수도권 대학 집중현상의 심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몰락 위험, 기초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증원에 따라 교육원가가 싼 비공업계열 위주의 증원 확대, 신대학·기능대학 등 유사 고등교육기관의 급증 등으로 인한 전문대학의 학생자원 감소 및 공급과잉 구조는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구자균 외, 1998; 성하원,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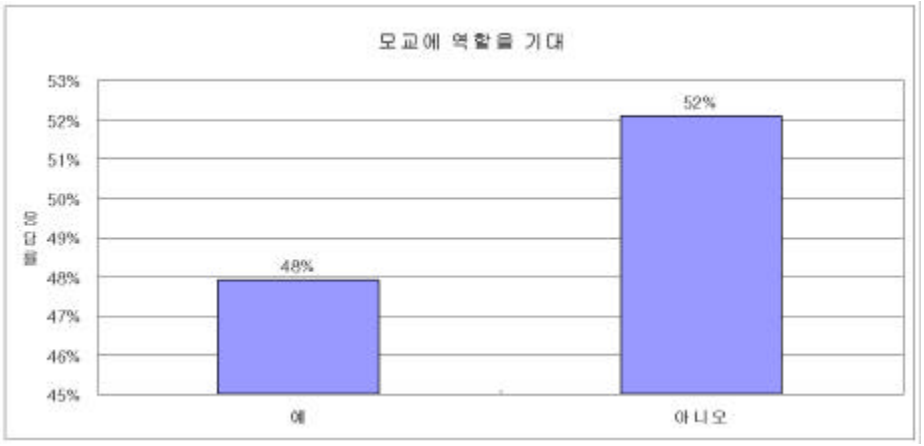
이와 같은 학생자원의 감소는 재정의 많은 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전문대학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전문대학의 경우, 재학생의 73.0%가 시간제 학생이고, 전문대학생의 평균 연령이 28.9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생자원이 점차 감소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 중심의 교육에서 성인중심의 계속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습 기회의 다양화를 위하여 유연한 교육운영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라.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에의 요구

지금까지 전문대학 자체적으로나, 사회 공론적으로 교육정책과 관심의 핵은 항상 "입학생 및 재학생" 이었다. 다시 말하면, 일단 학교를 떠나면, 어떠한 교육적 기대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계속해서 언

급되었듯이, 이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직업생활이 힘들 정도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졸업생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계속교육의 장치나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소홀히 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메카", "계속적인 전문 직업인의 양성" 등 계속교육을 대학마다 자신들의 광고에 등장시키고 심지어 학교의 목표로까지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는 드물다.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자신의 직업발달을 위한 교육을 전적으로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신의 모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전문대학에 대한 신뢰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김호동의 『고등교육의 전망과 전문대학의 대응』에서는 이러한 전문대학 졸업생의 학교에 대한 기대, 계속교육의 기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14명의 설문응답자중 48%인 116명이 모교의 역할에 기대를 표시했다. 또한, 116명의 응답자 중 구체적인 항목에 응답한 105명의 졸업생들이 바라는 모교의 역할로는 취업정보 알선이 52명(49.52%), 계속교육기회 38(36.19%), 전직을 위한 전공교육이 15명(14.29%)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그림 Ⅱ-5〕 모교에 대한 역할 기대

출처 : 김호동(2000), "고등교육의 전망과 전문대학의 대응", 전문대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 39.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문대학 졸업생의 과반수 이상이 모교에서 제

공하는 계속교육과 졸업생에 대한 관심, 또한 그들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전문대학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여 졸업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입시생들이 전문대학을 선택할 때 주저 없이 추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주: 대부분의 전문대학 신입생들은 신문이나 광고 등에 의한 선택보다는 친구나 선배 등의 추천에 좌우된다는 사실은 많은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임)은 전문대학의 재정의 내실을 기하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된다(김호동, 2000).

따라서, 전문대학들은 입시생 발굴에만 많은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졸업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표 Ⅱ-3>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구 분	응답자수	매우 크게 느낌	어느 정도 느낌	별로 느끼지 않음	전혀 느끼지 않음
전문대졸	130	15.4	44.6	38.5	1.5
대졸	354	26.3	38.1	33.1	2.5
대학원졸	16	43.8	18.8	37.5	0
전체	500	24.0	39.2	34.6	2.2

출처 : 장창원(1998),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192.

우리 나라 기업체에서 전문대학 졸업자를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무적응 능력이 좋다는 점과 사무직과 현장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채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의성이 낮다는 점과 리더십(leadership)과 조직에의 적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온조사연구소(1999)).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생의 재교육 및 직업능력에 대한 향상교육 그리고 전직교육의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산업체에서 전문대학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지나친 이론 중심의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과정, 인재육성을 위한 철학의 부재, 특성화 부족 등이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취업관련 활동은 학생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학 당국에서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온조사연구소(1999)). <표 Ⅱ-4> 는 2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중에서 주요 국가의 직업관련 계속교육의 참여비율을 나타낸다.

<표 Ⅱ-4> 25세 64세 인구 중 직업관련 계속교육 참여비율 (단위:%)

국가	한국('96년)	캐나다('93년)	미국('95년)	프랑스('94년)	독일('94년)
참여율	5.4	28.0	34.0	40.0	33.3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7)"

<표 Ⅱ-4> 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 성인(25세 이상 64세 이하)의 직업관련 계속교육 참여비율은 1996년 현재 5.4%로 미국의 34%, 독일의 33.3%, 프랑스의 40%, 캐나다의 28%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프랑스의 약 1/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하여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자기 발전에 대한 의지는 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적인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재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표 Ⅱ-5> 과 같이 자기발전 의지가 4.004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Ⅱ-5> 졸업생들의 자기 발전의지

변수	평균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p-value
자기발전의지	4.0041	남	3.9740	.9731	.549	.583
		여	4.0240	.9859		

출처 : 김호동(2000), "고등교육의 전망과 전문대학의 대응", 전문대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 39.

그러나 이러한 졸업생들의 계속교육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전문대학의 현실이다. 김호동(2000)의 연구에서는 개인주도로 계속교육을 받고 있는 졸업생들을 상대로 주로 이용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표 Ⅱ

-4>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문대학 졸업생은 자신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인근 전문대학이나 모교보다는 전문학원이나 정부 또는 기업지원 훈련에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에 직접 연결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정규교육기관인 전문대학보다는 학원 등 비정규 교육기관에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전문대학이나 모교에서 졸업생들의 전문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졸업생 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Ⅱ-6> 개인주도로 교육받을 때 이용한 교육기관 (단위: 명)

구 분	남자		여자		계	
어학학원	15	28.30%	13	43.33%	28	33.73%
기술계학원	7	13.21%	8	26.67%	15	18.07%
사회교육원	5	9.43%	3	10.00%	8	9.64%
정부지원훈련	13	24.53%	1	3.33%	14	16.87%
기업지원훈련	11	20.75%	2	6.67%	13	15.66%
인근대학 및 모교	1	1.89%	1	3.33%	2	2.41%
기타	1	1.89%	2	6.67%	3	3.61%
계	53	100.00%	30	100.00%	83	100.00%

출처 : 김호동(2000), "고등교육의 전망과 전문대학의 대응", 전문대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 39.

직장의 이동이 낯설었던 문화(전직, 이직, 겸직 등)가 IMF 이후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 산업사회에서는 직장이동을 준비하려는 졸업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재교육 및 향상교육 그리고 전직교육은 이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관리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대학에서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의견과 졸업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양적 팽창에 따른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익힌 고도의 산업인력을 배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형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은 그 목적에 따라 수평적 계속교육과 수직적 계속교육 그리고 기타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계속교육이라 함은 전문대학의 졸업생과 이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이가 자신의 직무능력의 개발과 전직·이직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현재의 기술과 지식 이외의 것을 이수하기 위한 과정이다. 즉, 자신의 전공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 대한 입직교육(initial education)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는 "정원 외 입학" 등이 있다. 반면, 수직적 계속교육은 승진이나 기타 직무능력과 관련된 이유로 자신의 전공영역 또는 기술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 교육에 포함되는 과정으로는 현재 "전공심화과정", "직무중심교육과정", , "주문식교육", "산업체 위탁 과정", "시간제 학생 등록제" 등이 있다.

기타과정이란 과정의 목적이나 방법상 수직적·수평적 의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 그 정의나 목적이 바뀔 수 있는 과정들을 포함한다. 기타과정에 포함되는 과정으로는 "특별과정", "평생교육과정"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각 과정에 대한 개념과 현황, 이에 관련된 법규 그리고 각 과정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가. 수평적 계속교육

1) 정원 외 입학

정원 외 입학이란 대학의 입학 정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특정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원 외로 고등직업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제도로서, 예를 들면 대졸자 전형, 농어촌 출신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

인, 산업체 위탁학생(입학승인 학생수 내로 제한) 등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교육여건이 좋은 대학은 총 정원의 100% 이상까지도 추가로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다. 정원 외 입학에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29조 (입학, 편입학 등): 정원 외 규정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 학년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제8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 학생 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 단위별 총 학생 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전문대학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 5.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 6. 북한 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수직적 계속교육

1)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은 고도산업사회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화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에 전문대학 졸업생 등에게 전공분야의 재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개혁방안(Ⅱ)에서 "산업체 취업자의 계속교육 및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전공학과 중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에 1년 과정 이내의 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전공심화과정의 도입이 거론되었으며, 그 후 1997년 11월 제정된 고등교육법 제49조[3]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동시 행령 제58조[4]에 의하여 그 설치근

3) 고등교육법

거가 마련되었다.(이창구, 1998)

1998년 1월 19일 교육부 지침(전행 81710-17)으로 다음과 같은 상세한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시달하였다. 설치기준을 보면, 전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비 교원확보율(겸임교원 포함)이 관련학과를 기준으로 50% 이상이고 전학년도 9월 30일(2000학년도는 3월 1일) 기준의 교사확보율 50% 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 설치과정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가급적 산업현장의 기술향상 요구가 큰 공업계열 학과 중심으로 편성하고, 교원, 강의실 및 실험·실습 시설설비 등 교육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 완비되고, 산업체 교육수요가 있는 과정을 설치하되 수업연한이 2년제 인 학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3년 과정인 간호·보건계열 등은 제외됨). 정원에 대한 규정은 관련학과별 정원 이내, 총 정원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시책 또는 지역사회 교육 수요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학과편성은 40명 이하의 단위로 편성하고 야간과정 위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수기간과 수업시수는 1년 과정은 30주 이상의 수업을 기준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기간 및 주당 수업시수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수강생이 부담하는 학습에 필요한 경비는 계열별로 차등 징수하되 이수시간 및 실교육비를 감안하여 책정한다. 다만, 교육수요자인 산업체 근무자의 편의와 비학위과정인 점을 고려하여 이수시간당 등록제를 권장한다. 운영시기는 3월 1일 이후로 하고, 전공심화과정의 회계는 별도회계로 하고『전공심화과정 회계』라 칭하며, 회계의 지출은 전공심화과정 운영과 관련된 경비에 한한다.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①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에 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은 학위과정으로 할 수 없다.

②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③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과정·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Ⅱ-7> 와 같이 전공심화과정은 운영 첫 해인 1998학년도에 32개 학교, 328개 과정, 13,959명을 승인 받아 4개 학교의 10개 과정 64명이 입학하였고, 1999학년도에는 20개 학교에서 114개 과정에 4,830명의 입학 정원을 승인 받았으나 1개 학교의 1개 과정에 2명만이 입학하여 그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는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과정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평생학습사회의 조기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으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한 전문대학이 포함되었고, 그에 따라 이수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2000학년도부터는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를 기대하여 본다(정태화, 2000).

<표 Ⅱ-7>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현황

학년도	승인			운영실적		
	대학수	과정수	입학정원	대학수	과정수	입학생수
1998	32	328	13,959	4	10	64
1999	20	114	4,830	1	2	2
2000	27	140	5,580			

출처: 교육부(2000). 평생교육백서. p. 252.

2000학년도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모집 상황(2000년 3월 23일 현재)은 27개 대학 중 2학기 개설예정인 대학 1개와 모집예정인 대학 4개를 제외하고 22개 대학에서 130명 정도의 학생이 지원을 한 생태로 파악되고 있다.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대학과 앞으로 모집할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으리라 보면, 1998 99년 2개년 동안의 운영실적을 상회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및 동시 행령과 교육부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상 제한을 가하고 있다. 1년 이내의 수업연한과 1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졸업생의 계속교육 욕구를 제한하고 있다.

수업연한 문제는 학사과정 수업연한인 4년에 이르지 못하게 하여 2년 내지 3년인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학력인정이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재교육 차원의 학습이라면 1년짜리 전공심화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한요소를 극복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한편, 1년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입학조건으로 하는 것은 산업체 특별전형이나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미 산업체 경력을 1년 6개월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제한이라 보여지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없어도 짧은 재학기간 중 전공학습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원한다면 전공심화과정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신설대학 및 신설학과와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간호·보건계열)는 전공심화과정 개설이 불가하고, 관련 학과별 정원 이내와 총 정원의 50% 이내의 인원을 야간과정 위주로 모집·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전공심화과정의 회계는 별도 회계로 하고, 지출은 전공심화과정 운영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전공심화과정이 비학위과정으로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으로 간주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대학과 신설학과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경험이 심화과정 설치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이 논리대로라면 저학년(1 2학년) 과정 운영경험이 없는 대학이나 학과는 고학년(3 4학년) 과정을 개설할 수 없거나 대학원 설립·운영도 모순이 된다. 어찌 학부과정도 운영해 보지 않았으면서 대학원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는 전공심화과정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총수업 연한이 4년에 이르지 못하도록 장벽을 쳐 놓은 것인데, 비학위과정이지만 재교육을 원하는 3년제 학과 졸업자에게 1년 미만(수개월 정도)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2) 시간제 학생 등록제

시간제 등록은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없는 고졸 학력의 직장인이나 주부 등의 사회인을 위하여 정식으로 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고등교육기관에서 학

점을 이수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졸업 학력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확대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 령 제53조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하는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당해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 하는 대학이 선발하는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한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99. 3. 26>
> ④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간제 등록은 1997년에 전남대학교와 창원전문대학 등 3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된 데 이어 1998년에는 전국의 195개 대학(국립대가 26개, 사립대가 76개, 산업체가 19개, 전문대가 74개)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도록 문호가 확대되었다. 1998년 2학기에 대학에 재학한 시간제 등록생은 63개 대학(전문대 포함)의 1,665명인데, 시간제 등록 학생은 취업자가 35.7%로 가장 많으며, 주부도 1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이 된 학생의 비율이 66.7%로 매우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등록생 수가 미미하나 시간제 등록이 성인의 재교육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준상, 1999). 1999년의 시간제 등록 학생의 선발 인원을 보면 1학기에는 1,513명이고, 2학기에는 2,247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산업대학보다 전문대학에 지원한 학생이 더 많다(<표 Ⅱ-8> 참조).

전문대학에서는 199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하여 학점을 이수하게 하거나, 사회교육원에 학점인정과목을 개설하여 인정을 받게 하고 있으며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을 설치하여 이수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시간제 등록에 대한 연구(안규철 · 신재철, 1999: 201-4)에 따르면 시간제 등록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나 실제 지원자는 모집 인원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시간제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정원을 규제하지 않고

대학이 학생 수용의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여 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성인교육 수요가 더 크므로 시간제 등록생의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은 물론 다른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Ⅱ-8> 대학 및 전문대학의 시간제 등록 지원 및 선발 현황(1999)

대학별	학기별	학교수	모집인원(A)	지원자(B)	선발인원	경쟁률 (B/A)
4년제 대학	1999. 1학기	47	8,389	991	697	0.11
	1999. 2학기	45	29,365	1,007	861	0.03
산업대	1999. 1학기	1	135	124	122	0.92
	1999. 2학기	1	1,350	80	80	0.06
전문대	1999. 1학기	10	1,856	777	694	0.42
	1999. 2학기	17	4,165	1,331	1,306	0.32
계	1999. 1학기	58	10,380	1,812	1,513	0.17
	1999. 2학기	63	34,880	2,418	2,247	0.07

출처: 교육부(1999). 평생교육백서. p. 558.

또한, 직업인, 주부 등 성인의 교양교육, 계속교육, 취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대학을 성인중심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게 하려면 시간제 등록에 관한 제한을 완전히 풀어 학교를 개방하고 타 직업교육기관과의 교육내용, 학점 등 학사 운영의 공통적인 요소를 규정하여 평가하며, 학점인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호환성 있게 해 줌으로써 과목 및 과정의 선택과 학생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점 누적에 따른 관리체제의 구축과 학력에 가름하는 성인의 직업 또는 교육경험을 인정해 주고, 자격 취득자의 선행 이수과목을 인정해 주며, 전공 분야별로는 최소 취득 학점의 범위를 규정하여 소정의 학점 취득에 따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자격을 수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직무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최근 수년 동안 입학자원의 감소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대학에서 이에 대한 장·단기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공급자 위주의 포괄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다양화, 세분화, 고도화, 전문화된 방향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발에는 산업 현장의 실무에 대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산업체의 완벽한 직무분석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 자료의 공급체계조차 원활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모든 직무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완벽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서는 그 동안 산업체의 인사를 통한 의견 수렴, 국내·외 대학의 경향 분석 등 다양한 노력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현장 실무에 맞게 보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역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때마다 직무분석 결과를 시기 적절하게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정태화, 2000).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현재 산·학이 연계한 실용성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연간 교육계획서와 실험실습 지침서에 의한 효율적인 실험, 실습 및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과 연계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고도의 산업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실무영어, 직업윤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절차, 방법이 명확하지 못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도 교육과정이 4년제 대학과 동일하거나 유사 학과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육과정의 개발, 편성, 운영 등이 교수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수들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 자의적인 편성 가능성이 크다. 넷째, 대다수의 교수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 다섯째,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의 연계성, 독자성의 결여로 실업계 고교 교

육과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연계, 전문대학과 산업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계속교육체제가 미비한 상태이다. 여섯째, 전공관련 산업체나 졸업생 대표 등과 같은 수요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전공교과의 교재 개발과 교수·학습 체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정태화, 2000).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절차, 방법의 모형화가 필요하고,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교육의 질적하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수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산업사회의 변화와 산업체 및 학생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강성원, 1999).

4) 주문식 교육

주문식 교육이란, 학교가 교육 수요자인 산업체 및 사회로부터 교육내용, 소요 인력 등을 미리 주문 받고, 산업체의 주문이나 요구에 맞추어 정규 교육 및 특별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즉, 주문식 교육은 교육 수요자 및 산업체를 중심에 두고 교육 계획 및 실시 과정에서 산업체의 주문이나 요구를 적극 수용·반영함으로써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직무 영역에 대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문식 교육은 교육 내용 및 대상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양성교육), 특별과정(향상교육), 정규교육과정과 특별과정의 혼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규교육은 산업체의 주문 및 요구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특별과정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정규교육 및 특별과정의 혼합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정규교육의 형태를 가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문식 교육은 활동 영역 및 활동 주체에 따라서 계약 프로그램, 산학협동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의 형태로, 주문 주체 및 재정 지원의 대상 등 활동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계약 프로그램은 교육

수요자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고, 산학협동 프로그램은 산업체와 대학 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특화 프로그램은 특정한 영역에 대해 대학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유형으로는 주문 설계형 교육훈련과정, 특정 고객을 위한 수정형 교육훈련과정, 대안형 교육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주문 설계형 교육훈련과정은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객의 요구 및 주문에 따라 새롭게 개발하는 형태이고, 수정형 교육훈련과정은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특정 고객의 요구 및 주문에 따라 수정하는 형태이다. 대안형 교육훈련과정은 주문 설계형 및 수정형일지라도 교육 방법 및 교육 장소를 차별화 하여 접근하는 유형이다.

주문식 교육의 운영 체제는 주문식 교육의 유형에 따라 운영 체제가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 체제를 구성할 때 유형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운영 체제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문식 교육 운영 체제는 주문식 교육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전반적인 진행 과정 및 행·재정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문식 교육의 운영체계는 주문식 교육에 대한 계획,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행·재정적인 지원 체제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당 대학 및 산업체, 그리고 관련 기관간의 공동 협의체로 조직되어야 하고, 구성 조직별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성·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공동 협의체는 하위 조직으로서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실무 조직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산업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기까지 인적·물적·정보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전문대학의 주문식 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운영 방안을 토대로 주문식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문식 교육이어야 한다. 입학생 감소로 인한 전문대학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문식 교육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이나 전문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

며,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adult education)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교육대상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둘째, 성인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 형태를 2년 정규교육과정보다는 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문식 교육은 2년 정규교육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전문대학 졸업자의 주요 취업처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채용 구조와는 동떨어진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은 생산라인에 결손 인원이 발생하면, 곧바로 필요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의 채용구조인데 비해, 정형화된 2년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주문식 교육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도 수시 채용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과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 장소가 산업체 현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문식 교육은 대부분이 단기 프로그램이지만, 교육 운영의 형태가 근로자 파견에 의한 학교 내 집합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체의 영세성 때문에 자사의 사원을 파견하여 교육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문식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체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하므로 근무 시간에 교육하는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근무 시간 이외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잔업 때문에 근무 시간이 지나서 교육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말을 이용한 교육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주문식 교육 협약 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문식 교육은 산업체에 한정되어 있는데, 주문식 협약 대상을 산업체 외에도 학교의 주문식 교육 대상 학과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각종 협회 및 서비스 기관 등도 협약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대학의 교육 대상 및 기

능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주문식 교육 재정 확보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의 요구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주문식 교육 협약업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주문식 교육과 관련을 가지기보다는 산학협동 차원에서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협찬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대학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비를 제공받으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형태의 주문식 교육은 산학협동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전문대학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대학 재정 확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면 전문대학으로서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5) 산업체 위탁 과정

산업체 위탁 과정은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전문대학이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교육제도이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소지자로서 산업체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들 중 해당 산업체 장의 추천을 통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학이 정원 외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입학시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99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점차 활성화되었으나 일부에서는 교육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체 위탁과정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산업체 근로자들에게는 계속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소지한 근로자에게는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 주고,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에 따른 학력 상승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특별한 성인집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 인력에게 직무능력의 향상과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협동교육의 지원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에 발맞추어 현재 많은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산학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의 <표 Ⅱ-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의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 수는 4만 5천 명 정도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Ⅱ-9>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승인 현황

연도	참여대학	위탁 교육 내역		
		정규과정편성인원	별도학급편성인원	계
1994	42	719	4,515	5,234
1995	58	1,286	10,211	11,497
1996	74	2,028	16,682	18,710
1997	89	1,966	26,864	28,830
1998	101	33,975	4,704	38,679
1999	105	1,564	33,494	35,058
2000	116	1,551	44,303	45,854

출처: 김호동(2000), 고등교육의 전망과 전문대학의 대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 6.

산업체 위탁교육의 운영 시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수강인원의 확보, 학생들의 학습시간 부족, 산업체의 학생에 대한 비협조, 현장 직무와 교과과정간 의 괴리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길자 외, 2000).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강인원 확보의 어려움인데, 그 원인은 본래의 취지처럼 산업체에서 인력개발과 사원복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 근로자가 개인 차원에서 입학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장직무와 교과과정간의 괴리로 인해 학생과 산업체에서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효성이 불분명해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데 있다. 이것은 대학에서 산업체 위탁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보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산업체 위탁교육의 교과과정은 산업체와의 협력과 협의 하에 직무분석을 기초로 한 현장 직무와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 기타과정

1) 특별과정

특별과정은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고 산업사회와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된 교육기간 1년 이내의 다양한 성인교육과정을 전문대학에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주민과 대학 비진학자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수요 충족과 아울러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과정은 「산업교육진흥법」, 「고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특별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별과정의 설치기준을 보면, 특별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기준대비 전임교원(겸임교원 포함)이 관련학과를 기준으로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실험·실습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사 확보율이 50% 이상인 학교인 경우에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입학자격은 성별, 연령 및 학력에 제한이 없으며, 수업기간은 1년 이하, 설치 과정은 정규학과와 연계되는 과정이면 제한이 없으며, 과정의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 설치학과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특성에 맞는 분야의 과정을 설치
- 산업현장 기술분야 관련 과정
-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과정
- 지역적인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관련되는 과정
- 유관기관 또는 산업체의 위탁 과정
- 기타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교육과정
- 교원, 강의실 및 실험·실습 시설의 설비 등 교육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 완비되고, 지역사회의 교육수요가 있는 과정을 설치

학점은행제가 실시되면서 특별과정의 경우도 적법한 학점인정 절차를 거치면 학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과정을 이원화하여 현행의 학위 과정

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이수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중심의 학점과정으로 운영하면서 학위 과정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한편, 학위와 상관없이 대학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성인, 특히 직업교육을 원하는 성인을 위해 자격 제한이 없는 특별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2) 평생교육과정

전문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대개 수개월 내지 1년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도 학점인정의 절차를 거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원은 모두 279개교에 부설되어 있고 5,956개 과정에 291,835명이 등록하고 있으며,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은 과정수나 정원이 상당히 적은 실정이다(<표 Ⅱ-10> 참조). 이는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원의 부설을 늦게 시작하였으며, 대학과 차별화 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데다 일반대학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10>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현황(2000년 6월말 기준)

구분	대상 학교수 (A)	설치 학교수(B) (B/A)	평생교육원수(A) (C/A)	설치과정수	정원
4년제대학	210	160(76.2%)	168(80.8%)	4,345	231,525
전문대학	181	109(60.2%)	111(61.3%)	1,611	60,310
합계	391	269(68.8%)	279(71.4%)	5,956	291,835

출처: 교육부(2000). 평생교육백서. p. 242.

현행의 법체계에서 성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지침을 종합해 보면 <표 Ⅱ-11>와 같다. 여기에는 시간제 등록까지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표Ⅱ-11> 대학 및 전문대학의 성인대상 교육의 운영 지침

구분	시간제 등록	전공심화과정	특별과정	평생교육과정
근거법	고등교육법 제36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제49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법 제25조
수업연한 (학습기간)	제한 없음(학점은행제)	1년 이하 과정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함)	1년 이하 과정	
지원자격 (학습대상)	고졸 학력 (다른 대학 재적 학생 제외)	전문대 졸업 1년의 산업체 근무경력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성인대상(초·중·고 대상 과정 불허) 자격제한 없음. 단, 특별과정에 따라 학력, 연령 등 제한 가능
설치과정	전문인을 양성하는 의학, 약학계열 및 사범계열 제외	수업 연한이 2년제인 학과 설치학과와 연계되는 과정	설치학과와 연계되는 과정	교양, 직업교육
설치기준		관련학과 전임 보유율 50% 이상	관련학과 전임 확보율 50% 이상	
시설설치 기준		교사 확보율 50% 이상	교사 확보율 50% 이상	학교시설 사용원칙 (장거리 타지역 설치 불허)
정원	수도권대학은 입학정원의 10/100(학과 또는 학부입학 정원의 30% 초과 제한)	관련학과별 정원이내, 총 정원의 50%	관련학과별 정원이내, 총 정원의 50%	
학급편성		40명 이하 단위로 편성 야간 과정 위주		
학점인정	학점인정(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의 1/2수강 가능, 여러 대학 등록시 연간 20학점 초과 못함.)	평가인정절차 후 학점인정(15단위를 1학점으로 인정하되 강의는 50분, 실습은 100분을 1단위로 인정)	평가인정절차 후 학점인정 (고졸 이상 학력 및 전문대 수준 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정절차 후 학점인정
자격증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2급 필기 시험 면제 대항 "예정"	훈련시간이 1600시간이상인 경우 기능사 2급 필기 시험 면제	
학습비	학점당 등록금 책정은 전일제 학생의 학기 총 등록금/취득 기준학점에 준함.	계열별 차등 징수 학점당 등록제 권장	계열별 차등징수 이수시간과 실교육비 감안 책정	월별, 학기별 징수, 학점 단위 징수, 실소요경비를 반영하는 최소비용징수, 학점당 금액
회계		별도회계 "전공심화과정회계"	별도회계 "특별과정회계"	별도회계
전문요원				평생교육사(동시에 50인 이상 교육하거나 연간교육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운영	학칙에 정하여 시행	학칙상 근거 및 운영규정	학칙 상 근거 및 운영규정	
비고	전일제 학생과 통합 운영원칙			○ 강사: 소속대학 교수를 가급적 활용하되 교육원 강의시수를 책임 시수에 산입 권장 ○ 2000년 3월부터 보고제

4. 선행 연구 분석

지금까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전문대학으로의 발전 방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폭넓게 수행되어 왔다. 여기서는 그 동안 전문대학과 관련하여 폭 넓게 수행된 선행 연구를 전문대학의 목표와 기능, 교육체제,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동, 교수관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전문대학 직업교육 다양화를 위한 본 연구의 근거와 방향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가. 전문대학 기능 강화

전문대학의 기능에 관해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전문대학이 성인을 중심으로 한 평생 직업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연구(김영환, 1995: 26-31; 이무근, 1995; 정지선, 2000: 7-10)는 전문대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면서 전문대학의 교육은 종국교육이 아닌 계속교육의 성격을 지니면서 평생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대학이 주로 고등학교 졸업생을 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수행하던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한 연구(이종서, 1996; 이무근, 1998; 조용기 외 1998)도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성인들을 위한 중추적 교육기관으로서 직장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생애 개발을 위해 성인 계속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용기 외(1998)는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대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문대학의 학생자원을 고교 졸업생 중심에서 사회교육을 원하는 성인중심으로 확대·전환하고 이들을 위한 계속교육체제를 운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러 연구(장석민, 1995; 이종서, 1996; 박영수, 1997; 이무근, 1998; 강성원 외, 1999)는 전문대학에서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시간제 등록생제를 확대 실시하여 전문대

학이 취약계층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인 대상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성인 입학생에 대한 선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 강성원 외(1999)는 전문대학의 입학생 선발과 관련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전문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성인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사회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경험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입학사정 시 우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종성(1999)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전문대학의 교육 목적을 전문직업인의 양성에만 국한하지 말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수준 높은 교양인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평생교육 이념 아래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좀더 포괄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견 직업인은 장·단기로 전망해 볼 때, 우리 나라 산업인력 구조의 핵심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양과 질이 고려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개발과 내실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전문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전문대학 수준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간과정 못지 않게 야간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학사운영에 정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직장인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략) 전문대학을 5년제, 3년제, 2년제 등의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야간제만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설립도 고려하는 등 전문대학 체제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연구된 ▪전문대학 평생교육 체제화 연구▪(김길자 외, 2000)는 오늘날 전문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 전략으로서 평생직업교육 체제화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서비스 대상을 현재의 적령기

학생에서 성인까지 확대하여 직업 계속교육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유연한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competency) 중심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적 복지 이념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에 전문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문대학의 공적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정립하여야 한다. 넷째, 전문대학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크네퍼 & 크로플리(Knappers & Cropley,1985)는 평생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고등교육 체제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교육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화된 학습과 비제도화된 학습의 차이를 열거하고, 평생학습자의 특징과 그것이 고등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탐색하였다. 아울러,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전통적 고등교육관의 변화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입학정책 및 절차, 교수-학습방법, 교수의 역할, 평가 및 자격증 등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수방법으로서, 원격학습, 학외학위제, 개방학습 체제, 교육과 노동의 연계를 위한 경험학습, 샌드위치 코스 및 협동교육, 산학협동, 자원봉사 활용, 개별화 학습, 독학, 동료에 의한 학습 등을 제시한다. 이 문헌은 오늘날 대학의 계속교육 방법을 고찰한 것으로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향후 교육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는 기존의 전문대학의 목표와 기능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나. 전문대학 계속교육 운영 형태

1) 시간제 등록제

그간에 전문대학에서는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한 연구가 있다. 박영수(1997)는 시간제 학생 등록의 문제점으로, ① 학기당 8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② 매학기 입학 전형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 ③ 2학년 편입학 외의 특전이 별로 없는 점, ④ 고액의 수업료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는 1학기에 12학점까지 신청하게 해 주어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주는 방안과 자격증 취득 과정과 연계시켜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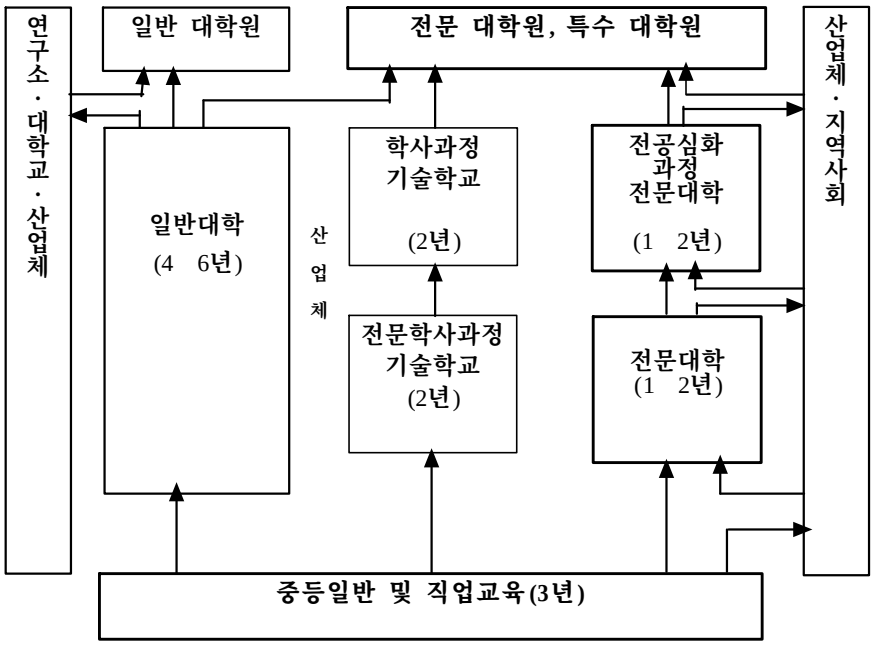
2) 전공심화과정

전공심화과정 운영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노승혁, 1995; 홍기훈, 1995; 김양혁, 1996; 강성원 외, 1999; 권두승, 2000)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수강생에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을 운영 목적으로 하되, 전문학사학위 및 4년제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청호(1995)는 이 과정을 독학학위 제도와 연계시켜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을 졸업생의 추수지도를 위한 제도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 연구(김양혁, 1996)와 함께 전공심화과정의 바람직한 수업방식에 관해 탐색한 연구도 있다. 김호동(1997)은 전공심화과정에서는 과제중심교육의 "프로젝트 ' (project)식 교육과 도제제도의 개념을 도입한 ' 스터디 그룹 ' (study group)의 운영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김상호(1998)도 도제제도의 수업 방식을 강조하면서 도제식 수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지닌 교수를 도제지도교수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군자(2001)는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강화방안으로서 "전공심화과정을

기본학제로 도입하여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군자가 제시한 전공심화과정의 기본 학제화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기본적인 운영 모형은 그림과 같다.

- 전공심화과정을 전문학사의 상위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전공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현재의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여 운영한다.
- 복수의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공심화과정 이수 후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자에 대해서 신기술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전공심화과정 교육 이수 후 효율적인 근무수행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Ⅱ-6〕 전공심화과정의 기본 학제화에 따른 직업교육체제 모형

출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고등직업교육체제 개혁, p.48.

전공심화과정 기본 학제화 방안의 운영모형으로 전공분야에 따라 2+α+1+1 학제, 2+α+2학제, 3+α+1학제의 3가지 모형을 설치·운영기준 및 졸업자격 인정방안 등과 함께 제안하고 있다.

3) 주문식 교육과정

그간의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개선 대책으로 주문식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다. 이 주문식 교육과정은 급속히 변화·발전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문대학에서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주문식 교육은 관계자의 주문식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 내 운영체제의 미비,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 수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 확보, 교육과정 개발, 우수 교사(수) 확보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정태화, 2000)되고 있다. 이 제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정태화(1998)는 향후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직업교육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노동시장의 변화 수용 미흡, 산업계의 요구 반영 미흡,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 등)을 개선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현장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고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산업체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신의 장비와 기자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이 현장의 기술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의 현장 적응력과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켜 주도록 한다. 셋째, 참여자들에게 이론과 실무가 통합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에 취업을 보장받고, 현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위 상승과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과정은 교육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중소기업체가 비용이 저렴하고 내용이 우수한 교육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4) 산학협동교육

산학협동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위탁교육에 관한 연구와 산업체 현장실습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재직근로자의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대로 생산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교 입장에서는 산업체와 학교의 상호 유대 관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서는 전문대학의 위탁교육 담당교수의 업무 과다로 산업체가 기대하는 만큼의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기업 관계자의 협조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고, 강의 수당이 낮아 강사의 적극성이 부족한 점,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형식적 운영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기영화, 1998; 정지선, 1998)되었다.

한편, 여러 연구(어수해, 1993; 한국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1993; 김경식, 1996)에서는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주요 문제는 주로 현장실습업체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로, 기업의 현장실습 기피 현상,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학습에 대한 재정지원 전무, 산업체의 현장실습생 전담 인력과 조직 부재, 현장실습생의 보수(훈련수당) 미흡, 학생 신분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의 부여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이탈, 현장실습 중 발생 가능한 인명 사고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소재 불분명, 해당 업체 선정의 어려움, 산업체의 현장실습 담당인력의 학교 교육과정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객관적인 평가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한국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1993)도 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장실습 참여율을 높여 대학 평가를 우수하게 받기 위해 현장실습의 질보다 양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의 배치, 재정 지원, 현장실습생 순회지도 등에서 적극 노력하지 않는 점과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교수의 산업체 연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어수해, 1993; 한국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1993)도 있다. 이들은 주요 문제점으로 산업체에 교

수 연수를 담당할 인력이 없고, 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과 교수의 안전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 때문에 산업체가 교수의 현장 연수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교수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전공에 적합한 산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학교 내 행정 차원에서 연수 시기 및 연수 조건에 융통성이 없어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Ⅲ. 주요 국가의 전문대학 계속교육 실제와 시사점

1. 미국의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

가. 지역사회대학의 운영 개요

미국에서 직업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2 3년의 준 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지역사회대학이다. 미국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기고등교육기관으로는 주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 과정에 해당하는 1, 2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준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단기교육기관인 초급대학(Junior College)이 있고, 공립교육기관으로는 준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4년 미만의 지역사회대학과 기술교육을 위주로 하는 기술대학(Technical College)이 있다.

지역사회대학은 설립 초기에는 대학의 편입학 기능과 취업을 위한 종국 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각종 성인교육 관련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성인계속교육 및 지역사회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대학이 제공하는 성인교육은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성인교육과 차별화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대학은 1998년 현재 공립이 968개교(85.5%)이고, 사립이 137개교(12.1%)이며, 소수민족대학(tribal college)의 유형이 27개교(2.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Ⅲ-1> 참조). 한편 1965년부터 1996년까지 고등교육기관 등록 인구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대학의 등록생은 368.7%가 증가한 데 비해, 4년제 대학은 85.4%만이 증가하여 지역사회대학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 미국 지역사회대학의 현황

연도	대학 수				학생 수		
	전체	공립	사립	소수 민족대학	전체	공립	사립
1975	1230	1014	216	-	3,970,119	3,836,366	133,753
1980	-	-	-	-	4,526,287	4,328,782	197,505
1985	1222	1068	154	-	4,531,077	4,269,733	261,344
1990	-	-	-	-	5,240,083	4,996,475	243,608
1995	1112	948	147	21	5,492,529	5,277,829	214,700
1996	1113	949	141	23	5,806,904	5,283,267	214,153
1998	1132	968	137	27	-	-	-

출처: AACC(2000). *National Prdfile of Community College,* 3rd(ed).

나. 교육 대상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의 지역사회대학은 전반적으로 성인 계속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발전해 왔다. 1990년대의 지역사회대학 학생의 연령을 살펴보면 25 40세가 56.2%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특히 40세 이상이 15.5%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에는 지역사회대학 학습자의 평균 연령이 39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생 선발에 대한 권한은 대학 당국이 갖고 있다. 대학 입학 전형 방법은 지역과 대학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학업 성적, 과목 이수 현황, 표준화 검사 성적, 면접 점수, 추천서, 소논문, 특별활동 및 학생의 특기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전형 자료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사회대학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경쟁력이 있는 전문대학의 입학 선발 방법은 지원자의 고교 성적(GPA), 교사 추천서, 면접 결과, 대학수능시험 점수(SAT/ ACT)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16세 이상의 고졸자면 입학이 가능하고,

개설된 과정에 따라서는 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회대학에서는 학기마다 수강개설과목이 실린 수강편람을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돌려서 정보를 제공하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렴한 수강료를 내거나 또는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준학사 학위 과정의 입학을 희망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얻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첫 학기를 등록하기 전에 배치검사 프로그램(placement testing program)을 먼저 이수해야 하며, 배치검사에서 최소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영어, 인문학, 수학 등의 학점과정에 등록할 수 없다.

<표 Ⅲ-2> 미국 지역사회대학의 등록생 현황

구분	1991	1995	1996	1997
전 일 제	1,995,706(35.9%)	1,957,855(36.0%)	1,983,339(36.2%)	1,990,407(36.7%)
시 간 제	3,562,399(64.1%)	3,483,105(64.0%)	3,491,103(63.8%)	3,429,857(63.3%)
전 체	5,558,105(100%)	5,440,960(100%)	5,474, 441(100%)	5,420,263(100%)

출처: AACC(2000). *National Profile of Community College*, 3rd(ed). p. 28-9.

미국의 지역사회대학은 전일제에 바탕을 두고 운영이 되지만 학생 수로 보면 시간제 학생 수가 더 많다. <표 Ⅲ-2>의 지역사회대학의 등록생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에는 시간제 학생이 3분의 2 정도(63.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8 19세의 학령기 학생들은 70%가 전일제로 등록하지만, 22세 이상의 성인들은 시간제 등록생이 많으며 40세 이상의 학생들은 14.3%만이 전일제로 등록하고 있다. 한편, 4년제 대학은 전일제 학생이 약 70%이고, 시간제 학생은 24% 정도여서 지역사회대학과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제 과정은 주간은 물론, 야간, 주말, 하계 학기에도 개설된다.

1998년의 자료에 의하면, 등록한 학생 중 12학점 이상을 신청한 학생은 24.7%이며[5] 6단위 이하로 등록한 학생은 전체의 35.4%를 차지하고 있고 비

5) 가을 또는 봄학기에 12학점 이상 등록하여 이수하는 학생을 전일제(Full

학위 과정에 등록한 학생의 비율은 13.8%에 달하고 있다(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all about community college, 1998).

다. 교육과정

지역사회대학의 교육과정은 크게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취업 준비나 직무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직업 교육과정(vocational courses), 4년제 대학의 편입학을 목적으로 한 편입학 교육과정(transfer course), 시민교육, 건강안전 및 일반교양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비학점 과정인 일반교양 교육과정,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교육과정(community education or services) 등이 있다.

1) 준학사 학위 과정

2년제 전문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 과목에 따라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를 받게 된다. 준학사에는 주로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을 준비하거나 일반 기업체, 관공서, 회사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Associate Degree와 곧바로 산업체에 취업할 학생들을 위해 직업위주의 교과내용으로 편성되는 Associate Applied Degree가 있다. Associate Degree는 다시 준문학사(Associate in Arts; A.A.)와 준이학사(Associate in Science; A.S.)로 분류되며, Associate Applied Degree는 A.A.S.라고 불린다. 이 세 학위 과정의 이수학점 내용은 교양, 전공, 선택, 그리고 기본기술 과목으로 구성되며, A.A.S. Degree 과정의 평균 이수학점 수는 61 70학점이고, A.S. Degree 과정은 60 61학점이며, A.A. Degree 과정은 41 50학점으로서, 우리 나라의 전문학사 이수학점인 80학점보다 10 20학점 낮다. 2년제 대학에는 520여 개의 준학사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4년제 대학에도 395개의 준학사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전공 과정에는 자기설계전공

Time) 학생으로 간주한다(Pierce, 1998: 148).

(self-designed major)도 있는데 이것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흥미 있는 분야를 스스로 설계해서 이수하는 과정이다.

2) 자격증 과정

자격증 과정은 전공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학점수가 다르지만, 대개 준학사 과정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자격증 과정은 전공에 따라 이수학점에 차이가 있으나 대개 16 45학점을 요구하며 1년 내지 1년 반 과정으로 되어 있다.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준학사 과정과 자격증 과정을 처음부터 별도로 분리 개설하는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1년 간은 동일과정을 함께 이수하도록 하고 학생의 능력이나 형편에 따라 여름학기에 준학사 과정과 자격증 과정으로 분리·이수하게 하는 형태이다.

대학학점 자격증(College Credit Certificate) 과정은 대부분 30학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략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증 과정은 실무적용 능력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인턴십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직업학점 자격증(Vocational Credit Certificates) 과정은 1년 미만으로 이루어지며, 선택한 직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과정들은 학교교육과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제도로 운영되고, 교육과정은 문제해결 능력 및 응용 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자격증 과정은 유사한 분야의 대학학점으로 통합되거나 대학학점 자격증 또는 ASD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다.

1996 1997년에 지역사회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혹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수를 살펴보면 연간 학위 취득자(associate of arts degrees)는 517,692명이고, 1년 미만의 자격증 취득자는 85,745명이며, 1 2년 과정의 자격증 취득자는 11,631명으로, 대략 166,776명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학생들이 단기적인 전문성 함양과 평생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준학사 학위 과정 및 자격증 과정은 건강관련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편입학 과정

편입학 과정은 4년제 대학의 1, 2학년 교육과정과 유사하며, 이수 시간의 수도 별로 차이가 없다. 지역사회대학은 학생들의 편입학이 용이하도록 인근의 4년제 대학과 편입학 관련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협정을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은 지역사회대학으로부터 편입학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상당수는 지역사회대학을 마치고 편입학한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4) 비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에는 기초교양 과정과 직업 과정, 그리고 성인교육 과정이 있으며 입학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교양 과정은 2년제 대학에서는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과정으로서 4년제 대학에서의 교양필수과목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필수과목의 내용은 학교에 따라 다르며 부과되는 교양과목 역시 학교나 학위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성인 교양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수학 등의 초·중등 과정을 마친 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능력을 보다 더 배양할 필요가 있는 성인들을 위한 것이다.

비학위 과정 중 직업 과정도 지역사회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직업교육은 보다 나은 기술 습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인을 위한 기술증진 과정과 지역사회대학을 졸업하고 중간 계층의 직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지역사회대학은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정규교육을 제공하는 것 외에 지역사회의 모든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비학위 과정으로 성인교육과 지역봉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성인교육 중에는 과정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학사 학위 과정은 여러 분야에 걸쳐 개설되어 있고 주로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된다. 야간과 주말 이외에도 단기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개최되며 이러한 과목들은 대개 산학협동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와 제안에 의해 개설되고 있다. 그리고 학점이수와 관련하여서는 학점과 비학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요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다.

라. 학사 운영

지역사회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대부분의 준학사 학위 과정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학점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지만 전일제로 등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2년이 소요된다. 지역사회대학을 통칭하는 "2년제 대학"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준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칭하는 것으로, "2년"이란 준학사 학위 과정을 수료하는 데 소요되는 표준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에는 1년 또는 3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시간제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학사 학위와 마찬가지로 준학사 학위도 수학기간을 단축하여 2년 미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졸업(Accelerated degree program)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학연한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가능한 한 첫 등록 후 5년 이내에 졸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사회대학은 동일한 기간의 2학기와 겨울이나 봄에 짧은 단축학기를 운영하는 형태, 그리고 매학기가 동일한 기간 동안 운영되는 2학기제(15 16주), 3학기제(10주), 4학기제(8주)가 운영된다. 학기를 더 짧은 단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모듈학기(modular)형태도 있는데, 이 경우 개개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기간의 학기를 조립하는 것이다.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경우 학기가 다르면 주단위로 학점을 환산하여 인정한다.

한편, 전문대학 등록생의 50%는 상시 고용직에 있으나 전체 등록생의 80%가 시간제 또는 상시 고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야간과 주말에도 강좌를 개설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면 수시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비율은 주간이 45%이고, 야간이 55%를 차지하여 직업을 가지면서 등록하는 보수교육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대학에 따라, 그리고 준학사 학위의 종류에 따라 총 이수학점과 최소전공 인정학점이 상이하다.

<표 Ⅲ-3>은 노먼데일 지역사회대학(Normandale Community College)의 교육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학의 경우, 준학사 학위 과정의 졸업학점은 64학점이지만 학위의 종류에 따라 최소전공 인정학점이 다르며, 동일 학위 내에서도 전공에 따라 다르다.

또한, 지역사회대학에서는 학위 과정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특정 시험이나 검사 또는 경력인정을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군복무나 CLEP, PEP 또는 특별진급과정(Accelerated program)의 이수는 최대로 30학점까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점은 입학한 대학에서 12학점을 이수한 후에 인정된다.

입학 후의 전과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만 새로운 전공에서 요구하는 선수과목이나 최소전공 인정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또, 대학 간의 협정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추가 부담 없이 협정을 맺은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점(Transfer Credit)으로 인정된다.

<표 Ⅲ-3> 미국 노먼데일 지역사회대학(Normandale Community College)의 교육과정

학과명	이수학점	최소 학점	학위
Business :marketing and management	62 63학점/ 3 4년 과정	30학점	Associate of Science Degree
Criminal justice	64학점	24 25학점	Associate of Science Degree
Dental hygiene	90학점/ 2년 과정	54학점	Associate of Science Degree
Law enforcement	64학점	21학점	Associate of Science Degree
Nursing	64학점/ 2년 과정 (학사학위과정과 연계)	32학점	Associate of Science Degree
Accounting technology	최소 60학점	30학점	Associate in Applied Science Degree
Business: marketing and management	최소 60학점	35학점	Associate in Applied Science Degree
Computers / information management	최소 60학점	12 15학점	Associate in Applied Science Degree
Computer technology	최소 60학점	32학점	Associate in Applied Science Degree
Law enforcement certificate	최소 29학점 (관련 학사학위자에 한함)		학위 과정 편입 (Degree program)
Communication	최소 64학점		Associate in Arts Degree
Natural sciences	최소 64학점		Associate in Arts Degree

출처: http:/ / www.nr.cc.mn.us. 정태화, 2000, p. 190.

마. 질 관리 체제

지역사회대학 교육의 질 관리는 재정 지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지역사회대학의 재정 수입은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 1998년의 경우, 주정부의 지원금이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수업료는 22.8%를, 그리고 지역지원금은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5.3%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4년제 대학은 주정부의 지원금 비율은 낮으나 연방정부의 지원금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사적 기부금과 기타 수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 미국 대학의 재정 수입 내용 분포 (단위 : 비율(%))

구분		연방정부 지원	주정부 지원	지역지원	사적 기부금	수업료	기업 보조금	기타 수입
1991-92	지역사회대학	4.7	45.1	17.6	1.1	21.1	6.8	3.6
	4년제 대학	10.8	23.0	0.6	6.1	26.0	10.2	23.3
1993-94	지역사회대학	5.2	41.2	19.1	1.2	22.9	6.5	3.8
	4년제 대학	11.3	21.3	0.6	6.2	27.4	10.3	22.8
1995-96	지역사회대학	5.4	41.8	18.7	1.3	22.6	6.1	4.1
	4년제 대학	11.0	21.2	0.6	6.6	28.1	10.1	22.4
1997-98	지역사회대학	5.3	42.0	18.4	1.4	22.8	6.0	4.0
	4년제 대학	10.5	21.2	0.6	6.8	28.3	10.2	22.4
1991-92	지역사회대학	13.4	-6.9	4.5	24.4	8.4	-12.0	12.9
1996-97 변화율	4년제 대학	-2.4	-7.8	-8.9	11.6	8.9	-0.2	-3.8

출처: AACC(2000). *National Profile of Community College: Trends & Statistics*, 3rd(ed). p. 108-109.

지역사회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공립과 사립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공립 지역사회대학은 재정 수입원의 39.8%를 주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학생 수업료로는 20.5%, 지역의 지원금으로는 17.3%, 그리고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는 12.3%를 충당하고 있고, 이 밖에 10.1%의 기타 수입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립 지역사회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은 61.7%나 되어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사립 지역사회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대학은 직업교육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질적 수준이 대학마다 매우 다르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정부의 자의적인 자금 배분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직업교육의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책임을 주정부가 지도록 하고 있다(정지선 · 박동열, 2000). 각 주는 연방 교육부에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성과 목표치를 주 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과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주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의 인센티브 교부금(Incentive Grants)을 주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개선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자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지역사회대학 재정 수입원의 40%를 지원하는 주정부의 공적지원금은 주정부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 지역사회대학이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의 성취 여부 따라 부여되는 재정지원(Performance Based Funding)이다. 즉 재정지원이 지역사회대학 교육이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평가 및 제3자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74년에는 비정부기관인 후기중등교육인정위원회(COPA: Council on Post-secondary Accreditation)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미국 고등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3년에 COPA를 해체시킨 후, 1994년 1월에 후기중등교육인증인정위원회(CORPA: Commission on Recognition of Postsecondary Accreditation)를 세움으로써 COPA가 수행했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CORPA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성취 기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해 주는 기능

을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의 인증 결과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지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 영국의 계속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

가. 계속교육대학의 운영 개요

영국의 직업교육은 중등교육과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6세 이후의 직업교육은 계속교육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최근에 대학(University)으로 개편된 폴리테크닉(Polytechnic)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교육기관의 경우, 오랫동안 성인기초 직업교육 기능을 담당해 왔고, 최근에는 평생학습을 실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영국에서 전문대학 수준의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로는 계속교육대학(colleges of further education), 기술대학(colleges of technology), 공업대학(technical colleges), 상업대학(colleges of commerce), 예술대학(colleges of art)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계속교육대학"(College of Further Education)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제6형식 학교"(Sixth Form College), '제3단계 학교"(Tertiary College)와 함께 후기 중등교육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초기에는 성인기초교육이나 교양교육 등 학교나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따. 그러나 계속교육대학은 지속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해 왔으며 1970년 이후부터는 인적자원위원회(Manpower Service Commision)가 설립으로 평생학습을 실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99년 당시, 계속교육대학의 학생 가운데 정시제 학생은 약 330만명으로서 50만명 정도의 전일제 학생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5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비율은 50%를 넘어서고 잇다.

계속교육대학은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실무중심의 직업과정 뿐만 아니라 학문 지향적인 고등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전일제

와 정시제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등 다양한 전달체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계속교육대학은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초 직업교육 및 입직을 위한 직업과정, 고등교육 진학과정, 경영자, 기술자 및 기능인을 위한 전공과정, 전문직 과정, 대학원 수준의 과정 및 인문교육과정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에서는 국가자격인 NVQs와 GNVQs는 물론, 인문자격과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대학 중심으로 디플로마를 발급하기도 하며, 학위 취득을 위한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계속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은 전일제, 정시제, 원격학습 등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정시제의 경우에는 야간 과정, 주 1회의 수업 참여, 혹은 10주마다 2주씩의 집중 수업과 같은 단기간의 출석 수업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학습이 가능한 것은 직장인을 위한 "연수휴가제"(day release)와 고도의 직무를 직원에게 맡기기 위하여 "직무의 일부분을 면제해 주는 제도"(block release)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계속교육대학에서는 원격학습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어디에서나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격학습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강사와 일대일로 이루어지며 워크숍은 토요일에 이루어진다(정태화 외, 2000). 계속교육대학은 일반 성인들이 학위 이외에 자격 취득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적극 제공해 줌으로써 평생 직업교육훈련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나. 교육 대상

계속교육대학의 NVQ와 GNVQ 과정은 특별한 입학자격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등학교 재학생에게는 과정에 따라서 중등학력 자격인 1 4개의 표준 등급(standard grade)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는 공식적인 입학자격을 요구하지 않지만 충분한 현장 경험과 능력을 입증해 보이면 일

부 내용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현재, 계속교육대학의 학생 가운데 정시제 학생은 약 330만 명으로서 50만 명 정도의 전일제 학생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5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비율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다. 교육과정

계속교육대학은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실무중심의 직업과정뿐만 아니라 학문 지향적인 고등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전일제와 정시제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등 다양한 전달체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대학에서 운영되는 샌드위치 과정은 실제적인 현장 경험과 전일제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

또한, 계속교육대학은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직업 교육 및 입직을 위한 직업 과정, 고등교육 진학 과정, 경영자, 기술자 및 기능인을 위한 전공 과정(전문 과정), 전문직 과정, 대학원 수준의 과정 및 인문교육과정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도 있다.

대학에서는 국가자격인 NVQs와 GNVQs는 물론, 인문자격과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대학 중심으로 디플로마를 발급하기도 하며, 학위 취득을 위한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뉴햄 대학(Newham College)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일부를 예로 들면 <표 Ⅲ-5>와 같으며, 교육과정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상오, 2000).

1) 고등교육 입문기초 과정

고등교육 입문기초 과정은 공식적인 학문자격은 없으나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들을 위한 과정으로 고등교육기관에의 입학자격을 부여하기 위

한 것이다. 이 과정은 1년 과정의 전일제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과정이 고등교육에 필요한 입학 자격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정은 고등국가자격(HNC)이나 고등국가졸업장(HND) 또는 학위 취득을 보장하기도 한다. 과정의 성격에 따라 입학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어린 연령의 지원자도 입학할 수 있다. 기말 시험은 없으며 대부분의 과정에는 전문 과목과는 별도로 의사소통, 수리능력, 정보기술 등의 핵심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국가자격 과정

국가자격 과정은 고등국가자격과 고등국가졸업장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고등교육으로 분류되며, 일부 대학과 훈련기관에 개설되어 있으나 주로 계속교육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들 자격은 기술전문가나 중간관리자를 찾는 고용주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며 대부분의 전문가 단체에서도 이 자격을 학위 과정의 1년 혹은 2년 과정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고등국가자격과 고등국가졸업장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문적 자격 혹은 직업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식적인 자격이 없어도 적합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과정 이수가 가능하다. 고등국가자격은 1년 과정이고 고등국가졸업장은 2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과목의 고등국가자격을 이수한 사람은 바로 고등국가졸업장의 2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고등국가자격과 고등국가졸업장 과정은 필수단위와 선택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시간제나 전일제 이수가 가능하다. 고등국가자격의 이수학점은 12학점이고 고등국가졸업장의 이수학점은 30학점이며, 이들 학점을 취득하면 고등국가자격의 경우는 대학교의 2학년 과정으로, 그리고 고등국가졸업장의 경우는 대학교의 3학년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다. 2001년부터는 고등국가자격의 이수학점을 15학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평가학점으로는 고등국가자격에 2학점을, 그리고 고등국가졸업장에 4학점을 부여하고, 모든 고등국가자격과 고등국가졸업장 과정에 핵심능력을 도입할 예정이다.

3) 국가직업자격(NVQ) 과정

국가직업자격(NVQ) 과정은 특정직무의 수행 기준에 기초한 것으로 거의 모든 직업분야에 개설되어 있으며 직무의 범위 및 수준에 따라 수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1년제 전일제 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정시제로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주로 서면화 된 시험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능력의 증명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역시 실제 작업환경에서 수행된 업무의 결과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국가직업자격의 평가는 주로 작업현장에서 평가자 자격을 취득한 동료나 상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평가는 직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평가신청자가 평가척도에 맞게 작성한 포트폴리오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4) 일반국가직업자격(GNVQ)

일반국가직업자격(GNVQ)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된 국가직업자격과는 달리 보다 광범위한 직업자격으로 계속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실기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99년 3월에 16세 이후에서 19세까지 취득하는 자격 개혁을 공포한 바 있으며, 후속적으로 2000년 9월부터는 새롭게 설계된 자격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 개혁의 목적은 첫째, 학습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폭넓게 제공한다. 둘째, 제공된 자격이 신뢰 있고 가치 있으며 학습자들이 학문 교과와 직업교과를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혼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더 많은 학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화의 범위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식, 이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모든 학습자들이 높은 수준의 핵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고등교육, 고용, 계속훈련으로 진출 통로를 명확하게 제공한다.

이와 같은 자격제도의 개혁은 계속교육대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16 19세에 취득하는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전문자격 과정

전문자격 과정은 전문자격과 관련하여 전문가 협회가 계속교육대학을 통하여 제공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계속교육대학에서는 회계분야, 은행업, 보험, 측량, 방직 기술과 관련된 전문자격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전문자격은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 협회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의 질적 수준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계속교육기회 제공

계속교육대학은 대학(university)과의 연계를 시도해 왔으며, 학생들은 계속교육대학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대학의 학위나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다. 계속교육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에서 2년 동안의 학위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4년 만에 대학 학위를 마칠 수 있는 2+2제도 운영되고 있다.

계속교육대학은 학습자들을 위하여 특정 직업분야의 능력개발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으로부터 다양한 고등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등국가자격과 고등국가졸업장을 취득하게 되면 대학의 2학년과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최근에는 16 19세 자격제도의 개혁을 통해 유럽식 바칼로레아형 고급단계 자격을 개발함으로써(Phoenix, 1999), 학생들이 1학년에서는 인문학이나 과학 등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2학년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학문자격은 물론 직업자격을 혼합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현재 2개의 A수준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고급 수준의 일반국가직업자격을 6개 단위의 고급 일반국가직업자격(Advanced GNVQ)이 하나의 A수준과 동등하도록 개혁함으로써 직업과정에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직업자격과 학문자격의 통합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계속교육대학은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통해 취업이나 계속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7) 산학협력

계속교육대학과 산업계의 협력은 공식적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훈련기업위원회(TECs: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와 지역기업조합(LECs: Local Enterprise Companies)에는 고용주와 학교, 그리고 교육전략을 수반하는 관련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자율적인 기관으로서 정부의 관여하에 지역사회를 위한 훈련 전략을 개발하고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1999년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82개의 훈련기업위원회가,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22개의 지역기업조합이 있다. 국가훈련조직(NTOs: 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s)은 정부가 승인한 조직으로서 근로자들의 지식과 기술 개발을 통하여 직무수행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특정 직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이 고용과 연계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계속교육대학의 교육과 산업체 간의 협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현장과 연계성을 갖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과정의 운영과 연계한 산학협력 방식을 살펴보면, 취업 전의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직업을 가진 학습자들은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의 경험을 자격취득과 연결시키고 있다. 실제 계속교육대학의 교수진 구성을 보면 교수(teaching)활동을 하는 교수와 자격인정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수로 구분되어 있다. 물론, 대학마다 그 비율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자격인정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수는 산업체 내에 평가자 자격을 갖춘 동료나 상사가 없을 때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습자의 평가와 진로지도를 전담하고 있다. 주로 학습자의 학습장에서 학습자와 평가자(교수)가 만나며, 이 때 고용주도 참여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한다. 평가자(교수)는 정기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진전 정도를 검토·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이상오, 2000).

<표 Ⅲ-5> 영국 뉴햄 대학(Newham College)의 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등록 형태	학습 기간	자격
Art, Design & Fashion	Art & Design	전일제/ 시간제	1년	GNVQ(중급)
	General Art & Design	전일제/ 시간제	2년	National Diploma
	Photography & Video	전일제/ 시간제	1-2년	National Diploma
	Illustration	전일제	2년	BTEC HND
	Computers in Art & Design	시간제	10주	-
Business, Management & Secretarial	A Level Accounting	전일제/ 시간제	2년	-
	A Level Intensive Accounting	시간제	1년	-
	Business	전일제/ 시간제	1년	GNVQ(중급)
	Administration	전일제/ 시간제	1년	NVQ Level 3
	Public Administration	시간제	2년	BTEC HNC
	Computerized Accounts	시간제	12주	-
	Computer Literacy & IT	시간제	1년	RSA Level 2

출처: http:/ / www.newhamcfe.ac.uk/ 정태화, 2000, p. 196.

라. 학사 운영

계속교육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각기 다양하다. 계속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은 전일제, 정시제, 원격학습 등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정시제의 경우에는 야간 과정, 주 1회의 수업 참여, 혹은 10주마다 2주씩의 집중 수업과 같은 단기간의 출석 수업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학습이 가능한 것은 직장인을 위한 "연수휴가제"(day release)와 고도의 직무를 직원에게 맡기기 위하여 "직무의 일부분을 면제해 주는 제도"(block release)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계속교육대학에서는 원격학습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어디에서나 학

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격학습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강사와 일 대 일로 이루어지며 워크숍은 토요일에 이루어진다. 일례로 로그비 대학의 경우에는 원격학습과 자율학습(flexistudy)을 대안학습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원격학습의 경우에는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능력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학습인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속도에 따라 학습하도록 시간이 있을 때마다 대학에 오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호작용 활동에 근거한 컴퓨터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을 마친 후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소집단별로 대학에 와서 참여하는 심화과정을 개설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대안학습 학생은 개인의 학업 성취, 개인적 지원 및 지도를 책임 지도하는 개별 강사가 배당되며 학습자는 매달 개인별 과정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강사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게 된다.

마. 질 관리 체제

정부는 계속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고등교육에 재정을 지원하고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영국 및 웨일즈의 계속교육재정위원회(FEFC: 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는 계속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자체 감독관을 고용하여 4년마다 각 대학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한다. FEFC는 16 18세 청소년의 전일제 교육과 16세 이상의 정시제 교육 및 18세 이상 청소년의 전일제 교육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계속교육대학은 대부분 공립으로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19세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성인 학습자와 유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기업체나 기관들에게 훈련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

1998년에 교육고용부는 계속교육대학 학생의 참여 비율을 유지시키고, 학

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속교육표준기금을 도입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을 설정하였다.

- 우수 모범학교의 사례 확산
- 문제를 안고 있는 전문대학의 집중 지원
- 적절한 사후감사제도의 도입
- 현직 혹은 계속교육대 학장을 위한 훈련과 전문강좌 개발

각 대학들은 매년 검토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특정 교육과정과 자격증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계속교육재정협의회의 사업 평가 지침은 다음과 같다(DFEE, 1999).

- 효율성의 지표로서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여부
- 교육반응의 지표로서 학생등록 추세
- 효율성의 지표로서 참가 학생 수
- 학습목표의 달성과 자격획득 정도
- 국가목표에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국가직업자격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 획득 정도
- 재정 효율성의 지표로서 평균 재정 수준

3. 호주 기술전문대학(TAFE)

가. 기술전문대학의 운영 개요

호주에서 TAFE은 주 정부의 자체 예산과 연방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하는 강력한 공공훈련기관으로서 직업교육훈련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AFE은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과 유사한 교육기관이지만 교육과정은 전문대학 수준으로서 몇 주의 단기 과정에서부터 3년까지 다양하며, 입학을 위한 자격조건이나 학생 구성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다르다. TAFE은 등록 학생의

연령 분포가 매우 다양하고 교육과정별 학생 분포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사실상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TAFE의 교육과정은 일반교육 혹은 직업교육훈련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과정에는 최소한의 자격, 지식, 기술, 경험 및 성품 등에 관련된 입학 자격조건이 제시된다. 직업교육과정에 따라 10학년이나 11학년, 혹은 12학년의 학력을 요구하며, 해당 분야의 경력이나 TAFE의 다른 과정 이수를 요구하기도 한다. 12학년의 학력이 필요한 과정에서는 상급 중등학교 수료증에 명시된 특정 과목의 점수를 요구하게 된다(이관춘, 1998). TAFE교육은 전일제 혹은 정시제 출석 수업과 함께 원격학습을 통한 개방교육훈련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이정표, 2001).

TAFE는 대학입학자격시험 준비 과정인 'matriculation courses'를 개설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충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과정은 개인적 사정으로 후기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는 12학년을 수료한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한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를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TAFE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경제적 부담없이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교육 대상

호주의 기술전문대학은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호주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알려진 뉴사우스웨일즈(NSW: New South Wales)주의 기술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기술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5세이나 개별 전공이나 한 전공 내에서 모듈에 따라 특정한 연령이나 현장 경험이 요구되기도 한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0 12학년, 혹은 12학년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입학 요건은 개인이 선택하는 전공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표 Ⅲ-7>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기술전문대학의 등록 현황

구분		1997	1998	1999
등록 현황	TAFE 대학 수	129	129	129
	등록생 수	424,450	427,517	455,671
	전일제 등록생 수	121,161	117,244	123,586
등록 비율	여성	46.5%	47.8%	48.0%
	비영어권 학생	20.5%	21.1%	20.9%
연령대별 분포	19세 이하	107,541	110,181	120,622
	20 24세	82,250	78,370	79,751
	25 29세	52,238	51,679	53,548
	30 39세	90,040	88,669	91,004
	40 49세	58,947	61,931	67,806
	50세 이상	29,095	31,640	38,036
전체 졸업생 수		168,827	174,487	190,287

출처: ANTA(1999).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Annual Report 1999.*

1999년에 뉴사우스웨일즈 기술전문대학에 등록된 학생 수는 총 455,671명이며, 이 가운데 전일제 등록생은 123,586명이어서 정시제 등록생이 전체의 70%를 넘고 있다(<표 Ⅲ-7> 참조). 또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전통적인 참여자들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등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연령대별 등록생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29세까지의 연령대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30대 이상도 40% 이상을 차지하여 기술전문대학이 명실공히 직업교육 부문 성인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교육 과정

2000년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기술전문대학은 주 전역에 걸쳐 12개의 교육기관과 120개의 지역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는 현재 산업체에서 인정된 1,20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캠퍼스에서 제

공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분화된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전문대학이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전문대학은 호주자격체제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지만, 실제 10학년의 의무교육과정만 마치면 입학할 수 있고, 대학교 입학을 위한 예비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이 병행되어 실시된다.

호주자격체제의 특징은 하위 등급과정의 훈련 모듈을 누진해서 모두 마쳐야만 상위 등급 과정의 훈련 모듈에 참여가 가능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 등급별로 훈련 모듈을 마칠 경우 해당 등급의 자격이 수여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등급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기술전문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에서 비즈니스 관리, 공학기술, 건강, 보건, 접대 부문 등으로 다양하며, 비교적 연령이 높은 등록생들은 인문, 지역사회봉사 등 복합적인 영역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호주자격체제에 따른 자격취득 과정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몇 시간에 해당하는 단기훈련 과정부터 3년 단위의 고급 자격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 대학원(Graduate Certificate) 과정

대학원 과정은 학위나 상급 디플로마를 이수한 후에 이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학부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나 기술을 확충하기 위한 훈련을 받거나 새로운 직업분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디플로마 및 상급 디플로마(Diploma and Advanced Diploma) 과정

디플로마와 상급 디플로마 과정은 종합적인 기술능력과 심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직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 과정은 직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기획, 평가, 회계, 재정 등이 포함되어 구성

되고 있다.

3) 자격 과정(Certificate I IV)

자격의 수준은 I부터 IV까지 단계별로 있으며, 일부 자격 과정은 한 직업 내에서 다양한 등급의 기술수준과 연계되어 있다.

4) 성취내역증(Statement of Attainment; Training Program)

성취내역증은 자격 과정, 디플로마 혹은 상급 디플로마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취내역증은 특정 직업에 진입하거나 특정 직업에서 추가적으로 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일정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성취내역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뉴사우스웨일즈 기술전문대학의 상급 수준 과정으로 학점인정이 된다.

5) 인정단기(Accredited Short Course) 과정

인정단기 과정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편성되며, 호주자격체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전공 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6) 기술전문대학 수료증(TAFE Statement)

기술전문대학 수료증은 전문가 과정으로 부여되거나 단기간에 1 2회에 걸쳐 제공된다. 이 과정은 인정된 것이 아니지만 학점인정이 될 수도 있고, 호주자격체제 과정의 모듈에 포함될 수도 있다.

라. 학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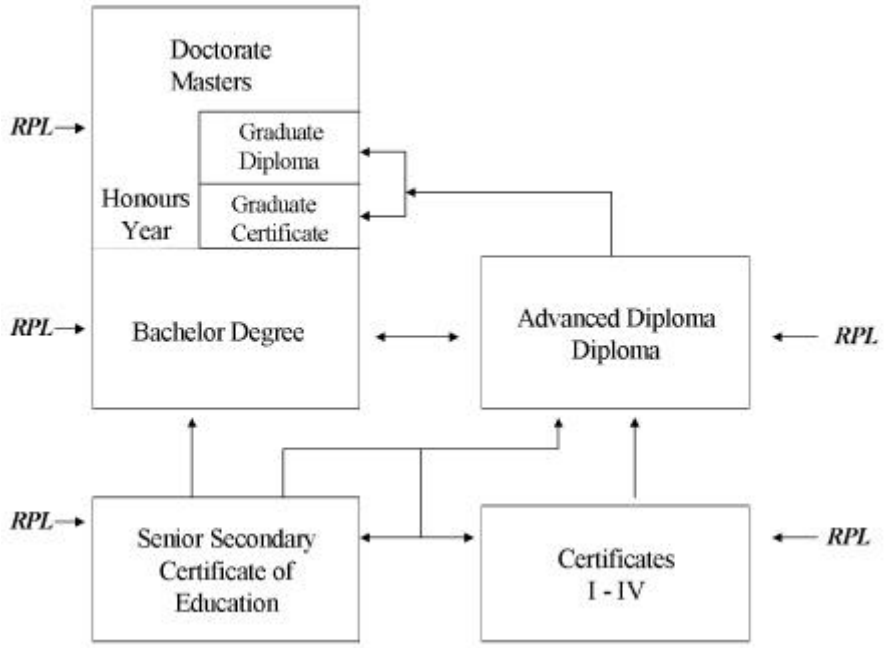
호주 기술전문대학의 학사 운영은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이다. 즉, 교육과정이 모듈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수업 연한이나 이수 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등록생은 자신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학습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전문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하며, 취득자격의 유형이나 전공에 따라 이수시간의 수나 기간이 매우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일제 학생은 주당 12 3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며, 시간제 학생은 주당 11시간 이하로 구성된 짧은 단위의 교육을 받는다.

기술전문대학의 학사 운영 특징은 수행능력중심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호주자격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성과 중심의 평가는 교육훈련기관 간의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 주며, 이는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기초로 하여 교육과정이 설계·운영되는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전문대학의 학사 운영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학점 호환(credit transfer)과 선행학습 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학점 호환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유사 직업교육훈련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점 인정 방식은 기술전문대학의 학점을 다른 훈련기관이나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과 다른 훈련기관이나 학교, 혹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기술전문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 있다. 이와 함께 기술전문대학은 입학 시에 지원자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적 경력 혹은 생활경험이나 학습경험을 선행학습으로 적극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 1998년에 기술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계속교육과정에 진학한 경우,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학생이 기술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을 현재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선행학습으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기술전문대학 졸업생의 33.0%는 다음 단계로의 학습 연계를 위해 선행학습 인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8, NC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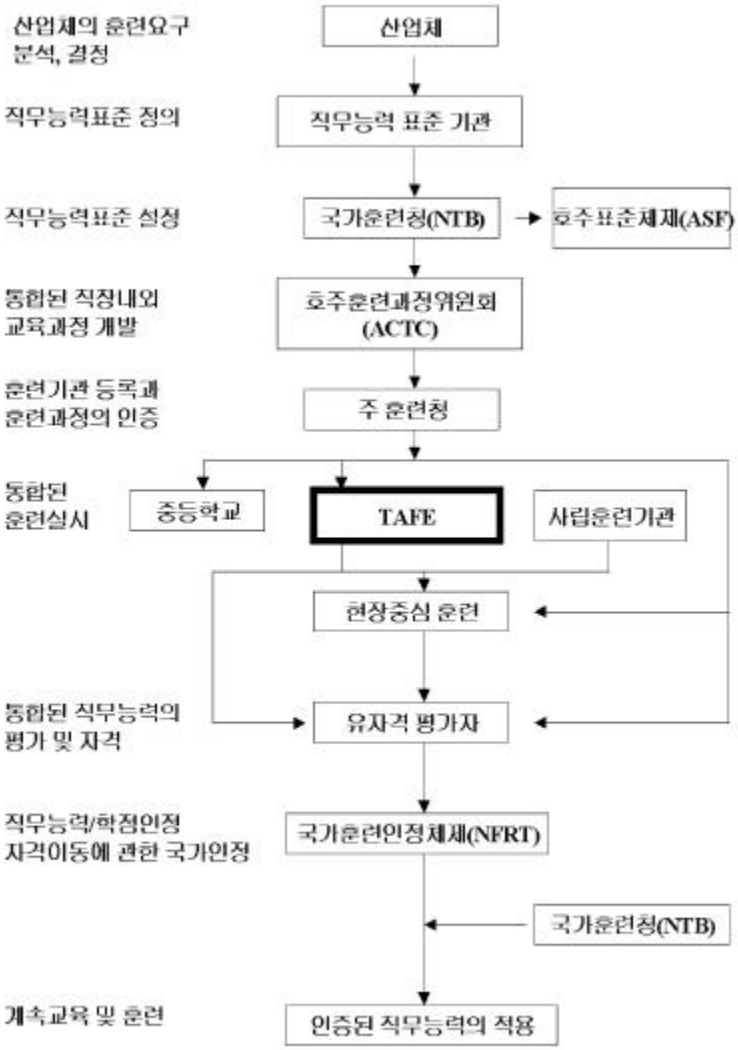
[그림 Ⅲ-1]은 선행학습 인정을 통해 교육훈련기관간에 추진되고 있는 학점인정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I-1] 호주의 선행학습 인정을 통한 학점인정 시스템

출처: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dvisory Board(1996). *Introduction to AQF: Certificate Diploma Degree*. p. 5.

이와 같이 선행학습 인정 및 학점 호환을 통한 교육훈련기관간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직무능력중심의 평가"(competency based assessment) 시스템을 활발히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기준이 되는 훈련과정 안의 개발이 거의 전 영역에 걸쳐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교육훈련의 표준이 설정되어, 학점인정과 사전학습의 인정을 통해 불필요한 학습의 중복을 없애고 교육기관간의 이동이 더욱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I-2] 호주의 기술전문대학(TAFE) 교육과 자격의 연계도

출처: 이관춘(1998). 직업교육의 세계화와 전문대학의 진로. p. 112.

마. 질 관리 체제

기술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I IV과 디플로마 및 상급 디플로마 등의 모든 자격에 대한 평가와 발행은 각 주의 자격인증국(State Recognition Authority)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등록직업교육훈련기관(RTO: Registrated Training Organization)이 관장하고 있다. 이들 훈련기관들은 평가자 및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을 결정하여 해당 자격에서 규정한 능력수준에 도달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평가의 탄력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행학습의 인정 등과 같은 평가방법의 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1998년 1월부터 시행중인 호주인증체제(ARF)는 등록훈련기관들이 자격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과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자격증을 발행할 때에는 자격 소지자가 성취한 해당 자격의 업무능력을 명시하는 기록증을 함께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자격 과정의 일부만 수료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수료한 과목의 업무능력을 명시하는 "성취내역증"이 수여된다. 자격을 발행한 기관은 자격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보관할 책임을 진다.

4. 독일 전문기술대학(Fachhochschule)

가. 전문기술대학의 운영 개요

독일의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대학(Universität)과 전문기술대학(Fachhoch--schule)을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직업아카데미(Berufsakdemie)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과 전문기술대학의 혼합 형태인 종합전문대학(Gesamthochschule)이 있고, 평생교육기관의 형태인 시민학교(Volkshochschule), 그리고 여러 단체와 동맹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등이 있다.

전문기술대학은 1970년대 초 독일의 연방 각 주가 설립한 대학으로서 일반 종합대학처럼 주정부가 운영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 이 대학은 1960년대 말 젊은 기술자들의 절대 부족에 따른 위기 의식에서 연방총리에 의해 설립되었다. 전문기술대학은 종전의 종합대학과는 차별화 되면서 전문 분야 기술대학의 성격을 강조하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전문기술대학의 설립이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대학교육기관이 더 많은 자율성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대학의 문호가 개방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변화되었다. 1960년만 하더라도 해당 연령층의 8%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가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전문기술대학은 이론에만 치중하지 않는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의 방향과 추구하는 바가 다를 뿐 졸업 후 인정되는 자격과 사회적 인지도에서는 대학과 동등하며 근래에 와서는 더욱 내실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나. 교육 대상

전문기술대학의 입학을 위해서는 일반대학교(Universität)와 마찬가지로 김나지움 후에 아비투어를 통과하거나 전문상급학교(Fachoberschule)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상급학교의 교육과정은 2년(도제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1년)인데 1년은 학교의 작업장과 기업체에서 전공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받고, 다음 해에는 이론적 수업을 받는다. 수료하면 전문기술대학의 진학자격이 주어진다.

전문기술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것으로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간의 현장 실습(Praktikum)을 받아야만 입학 허가를 받으며, 어떤 학과로 진학하든 간에 관련된 실습경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대학 지원자의 3분의 1은 전문기술대학을 택하고 있으며, 전문기술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절반 정도는 일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아비투어를 통과한 학생이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대학에 입학할 자격은 부족하나 직업적으로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자들은 입학허가 절차(시험적인 학습기간을 규정함)를 거치거나 시험(평가, 적성테스트, 인터뷰)에 응시해 자신이 대학교육을 위한 필수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에게는 한정된 권한만이 부여되어, 특정 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 디자인 학과 등과 같은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예술적인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학할 수 있다.

많은 전문기술대학은 수용능력의 한계로 인해 특정 학과의 학생 수를 제한하고 있다. 지속적인 대학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입학 지원자들이 쇄도하여 입학을 제한시키는, 즉 인원제한 입학제가 적용되는 전공 분야들이 늘고 있다. 정원 제한이 있는 학과의 입학은 도르트문트에 있는 "대학 배정본부"(Die Zentalstelle für die Vergabe von Studienplatzen)서 주관하며, 아비투어의 평균 성적과 대기기간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다. 그 외에 별도로 정상을 참작해 주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일정한 비율의 몫이 있다(Klaus Schaack, 1996).

다. 교육과정

전문기술대학은 독자적으로 교육 방법과 범위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는 있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학과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내 실습과 학교교육을 통합하여 고급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이원화 과정은 학교와 기업의 상호협의하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습과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전문기술대학의 학과과정 개발은 초안을 구상하는 수준부터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수준까지 매우 다양하다. 양성훈련과정을 보면 기본교육단계에서는 양성훈련 인정직종의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본과에 진학하여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양성훈련의 이수와 졸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전문기술대학의 교육과정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베를린 산업기술대학의

경영학과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운영 실제를 살펴본다. 이 대학은 1971년에 기사양성학교 4개를 통합하여 설립된 베를린에서 가장 큰 기술대학이다. 경영학과의 정원은 38명으로 1995년의 금융경영이 포함되어 인원이 증가하였다. 입학자격은 일반 대입자격 학력 소지자와 전문기술대학 및 특정학과의 제한입학자격 소지자로서 협력기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학과 분야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실습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수업료는 없고 학기당 40DM 이하의 등록비만을 납부하면 되며, 기본과정에는 월 900DM를, 그리고 집중과정에서는 1,100DM의 수당을 기업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매 학기는 12주 단위의 이론블록과 실습블록으로 나뉘는데 실습단계에서는 기업 내 직원들의 지도를 받게 된다.

교과과정은 전통적인 경영학과에 정보처리, 정보통신을 통합한 형태인 물류, 마케팅, 재무 및 인사관리, 통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영어는 필수과목이며 이론단계 기간 중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협력대학에서의 학업도 가능하다. 베를린 산업기술대학의 산학협동 교육과정은 최근 몇 년간 20 : 1의 지원율을 보였고 졸업생들의 취업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laus Schaack, 1996).

라. 학사 운영

종합대학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전문대학(Hochschule)으로는 하노버 의학/수의학 전문단과대학(Die medizinische und tierärztliche Hochschule in Hannover)이나 뤼벡 의과대학(Medizinische Universität in Lübeck), 드레스덴과 에어푸르트, 막그데부르크에 소재한 의과대학(Medizinische Akademie) 등이 있다. 슈파이어에 있는 행정학 전문단과대학(Hochschule fur Verwaltung -wissen -schaften in Speyer)의 경우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 전문기술대학은 우리나라의 대학원과 같이 이미 법학, 경제학, 사회학으로 학업을 마친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는 곳이며 주로 공무원과 외국의 교수들이

공부한다.

일반대학의 교수가 Habilitation으로 알려진 박사 후 과정의 자격증을 추가 취득해야 하는 것에 비해, 전문기술대학의 교수는 직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교수들은 자신들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대학의 학문과 예술, 연구, 수업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험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개혁 활동, 대학자문, 행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교수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며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지닌다.

수업시간은 1학점이 45분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대학의 교수들이 1주일에 8학점을 가르치는 데 비해, 전문기술대학의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18학점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연구개발을 맡고 있을 경우에는 축소된다. 교수들에게는 안식년이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한 학기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작업환경에서 과학적 실험을 수행한다. 현재 ▪대학교육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교수의 강의와 연구 성과에 따라서 국고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기술대학은 3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학기,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겨울학기로 운영된다. 겨울학기는 일반적으로 10월초에서 2월말까지 열리며, 여름학기는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이루어진다. 강의가 없는 약 3개월은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수업 준비, 리포트 완성, 실습현장에 참여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다.

법정수업시간은 일반적으로 1 2학기의 실습학기를 포함해서 8학기이며, 건축학과의 경우는 6학기이고 졸업을 위해서는 많은 경우 1 2년이 더 소요된다. 대학은 표준수학기간을 두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재학기간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평균 6 7년이 걸리고, 졸업 연령은 대체로 28세에 이르고 있다. 2회로 제한되었던 대학 수료 시험은 1994년부터 폐지되었다. 본과를 시작하기 전에 학과에 따라서는 예비실습과정을 거쳐야 하며 학생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르다. 본과의 실습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다(Klaus Schaack. 1996).

예시적으로 만하임 전문기술대학(Mannheim Fachhochschule)의 전기에너

지공학과 교육과정을 제시하면 <표 III-9>와 같다.

<표 III-9> 독일 만하임 전문기술대학의 전기에너지 공학과 교육과정

학기	교과목	주당 이수 시간수	학기	교과목	주당 이수 시간수
1	수학 1	8	2	수학 2	4
	기술물리 1	4		기술 물리 2	4
	전기공학기초 1	8		전기공학 기초 2	6
	정보가공 1	4		재료학	4
	경영 1	4		전기측정	6
				정보가공 2	4
3	첫째 번 실습학기		4	정보가공 3	4
	단기강좌 1	3		전자기초	8
				시스템 이론	4
				디지털 기술	8
				전기기계 1	4
5	저장프로그램화가 가능한 조정	14	6	둘째 번 실습학기	21.5
		4		단기강좌 2	
	정보기술	16			
	조정기술	4			
	전기설비 1	4			
	전기동력 1	4			
	에너지설비 및 동력기				
7	전력전자	8	8	역동적 기계조작	4
	고압력기술	6		전기설비 2	2
	전기기계 2	4		전기동력 2	6
	조정기술 2	4		전산기술	4
	경영 2	4			

출처: http:/ / www.fh-mannheim.de.

마. 질 관리 체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은 운영에 따른 집단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강력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 분담 속에서 전문기술대학을 포함하여 독일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주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위원회와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는 직업교육과 학교시험에 대한 감독은 물론, 교사지도 및 평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원화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훈련에 대한 감독은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회의소 등의 산업별 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5. 국가 간 특징 비교와 시사점

이상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실제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각 국별 사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특징을 비교·제시하고,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발전 방향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 국가 간 특징 비교

1) 교육 대상

전문대학의 교육 대상이 누구인가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영미권 국가의 경우, 학령기 인구는 물론 성인들의 교육 참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25 40세가 56%를 차지하며, 영국은 25세 이상이 50% 이상을, 호주는 30대 이상이 4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명실공히 이들 국가들의 전문대학은 평생 직업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전문대학은 재학생 구성 비율에 있어서 학령기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성인 참여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의 전문기술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업인 양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다양화보다는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 독일의 전문기술대학도 계속 직업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2) 교육과정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목표나 기능은 교육대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계속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영미권 국가의 전문대학은 학령기 학습자, 일반성인, 근로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구분하여 준학사 학위 과정, 디플로마/자격증 과정, 편입학 과정, 교양 과정, 직업 과정, 성인 과정 등 지역사회의 요구나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국가자격 과정과 기타 다양한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자격 과정으로는 고등교육기초 과정, 국가자격 과정, 국가직업자격(NVQ) 과정, 일반국가직업자격(GNVQ) 과정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기타 과정으로는 전문자격 과정, 계속교육 과정, 산학협력 과정 등이 있다. 호주 기술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호주자격체계(AQF)에 근거한 자격과정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개설한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주자격체계의 과정으로는 대학원 과정, 디플로마 과정, 상급 디플로마 과정, 1 4단계까지의 자격취득 과정(Certificate I IV)이 개설되며, 대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의 일종인 성취내역증(Statement of Attainment), 인정단기(Accredited Short Course)과정, 기술전문대학수료증(TAFE Statement) 등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데 기업 내 실습과 대학교육을 병행하는 이원적인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원화제도 하의 교육과정은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설계됨으로써 현장 지향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3) 학사 운영

성인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영미권 국가의 전문대학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선, 수업 연한 및 학기제의 운영을 보면, 미국 지역사회대학은 대학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2년 과정이 중심이 되며, 전공에 따라 1 3년으로 운영되고, 연 2 4학기제로 운영된다. 또한, 학기를 더 짧은 단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모듈학기도 있는데, 이러한 모듈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립하여 다양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신설·폐지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공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전공 인정학점이 각기 다르다.

영국의 계속교육대학은 동일한 전공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전일제·시간제, 원격학습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공에 따라 학습기간이 매우 다양하다. 이 밖에, 야간과정 및 집중수업 등이 운영된다. 영국의 경우, 모듈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학점호환 및 선행학습인정 등 학사 운영체제의 탄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영국의 학사 운영과 유사한 호주의 경우에도, 전공별 이수시간이나 기간이 매우 다양하며, 동일 전공 내에서도 과정 이수의 목적에 따라 학습시간 및 기간 설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밖에, 학점호환체제 및 선행학습 인정체제가 발달되어 있어 학생의 학교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질 관리체제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성과의 최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들은 그 동안 계속직업교육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인식에 공감을 하고, 효율성 제고 및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지역사회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교육 성과에 따라 프로그램 개설 교과목이나 등록학생 수, 담당과목 강사의 수 및 자격, 졸업이수 학점에 영향을 주며, 차등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미국 지역사회대학은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자체 평가와 제3자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계속교육재정위원회가 계속교육기관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감독관을 고용하여 매 4년마다 각 대학을 감시하고 보고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는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속교육기관 간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평가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호주와 독일의 전문대학은 주정부로부터 직업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호주의 기술전문대학은 각 주의 자격인증국(State Recognition Authority)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등록직업교육훈련기관(RTO: Registrated Training Organization)에 의해 자격에 대한 평가 사항과 발행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원화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기술대학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체 훈련은 상공회의소 및 수공업회의소 등의 산업별 자치단체가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나. 시사점

이상 선진 외국 전문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의 다양화 실제를 통해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발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전문대학 계속교육을 포함한 전문대학교육의 질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자격제도의 질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자격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기술자격을 포함한 국가자격의 공신력과 효용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자격제도가 전문대학 직업교육을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함으로써, 자격취득이 개인의 성취 능력은 물론 학교의 교육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 전문대학에서 자격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선도하는 성취 기준이 되며, 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이런 점에서 현행의 자격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을 통해 현장성과 효용성을 강화함으로써 자격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하고, 계속교육의 질 수준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전문대학이 학령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기능을 보다 내실화 하면서 성인 중심의 계속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간다. 영미권 국가의 경우, 전문대학의 재학생 중 학령기 인구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성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입학생 감소에 따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의 하나는 성인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학습 수요자 층을 전문대 졸업생,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여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대상의 다양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발제도나 선행학습 인정 체제의 확립 등 다양한 제도적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이 성인 중심의 계속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국가에서 요구하는 학위나 자격과정은 물론,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대학에서는 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자격 과정, 편입학 과정, 직업기초 과정, 산학협력 과정, 직무향상 및 전환교육 과정, 창업 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나간다.

넷째, 전문대학이 실무 중심의 전문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일차적인 기능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정에서 현장성을 반영하고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 외국의 경우, 성인 중심의 계속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선행적으로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이나 호주, 독일의 경우, 이미 직업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역사회대학은 주문식 교육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기초능력은 물론 전문능력의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 및 유연성을 대폭적으로 보장해 나가야 한다. 현행과 같이 정부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전문대학의 운영 구조 속에서는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유연성이나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계속교육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섯째,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나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의한 직접 통제나 관리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영미권 국가나 독일처럼 전문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교육성과에 기반을 둔 차등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규모가 크지 않고 지속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경쟁력 확보를 통한 생존 노력은 전문대학의 몫이 된다.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위 대학의 노력도 필수적이지만, 각종 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직업교육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공분야별 교육과정 및 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연수사업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며, 각종 교육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실태분석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전체적인 교육의 구조가 평생계속교육이라는 체제하에 개편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은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성인에게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빈약하고 행·재정적 조건이 미비된 과도기적 양상이 계속되면서 전문대학은 상당한 어려움에 노출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을 중간평가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은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과 관련된 논의의 역사가 별로 길지 않아서 축적된 자료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설문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실과 보다 밀착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위영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설문지에는 총 80개의 문항이 수록되었는데, 설문에서는 전문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속직업관련프로그램의 유형과 비중,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제도적인 요청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전문대학의 계속직업교육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설문지는 전국 31개 전문대학에 각각 10부씩 발송하였으며 회수된 184부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적 요인을 행정단위와 보직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1> 행정지역별, 보직별 빈도 (단위: 명, %)

구분 / 항목	행정지역별					보직별				
	서울 및 광역시	중소 도시	군 읍 면	학장 및 부학장	장급행정직	일반행정직	산협행정팀장	학 과 장	보직 교수	기타
빈도(백분율)	81 (44.0)	52 (28.3)	49 (26.6)	1 (0.5)	24 (13.0)	46 (25.0)	9 (4.9)	33 (17.9)	41 (22.3)	24 (13.0)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은 기본적으로 전공심화과정과 학점은행제, 전문대학기졸업자의 정원 외 수용, 그리고 재취업이나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한 훈련 등과 관련된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욕구와 사회적인 기대가 맞물리면서 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조망하고 그에 상응하는 개선의 방향을 고민해 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속교육에 대한 그들의 이해수준을 점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규 외 교육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실무자의 계속교육에 대한 이해수준, 정규 외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비중, 그리고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적 보완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문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관한 기능들에 관하여 수평적, 수직적, 기타 등으로 나누어 그 역할을 세분화하였다.

한편, 심층면접을 대체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하고 분석함으로써 단답형 설문지를 보완하고 내용상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학 분야에서 계속교육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어 사용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또한, 개념적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 등 다른 비슷한 명칭들과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에 대해 질문한다면 그러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대학 계속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면담조사에서도 계속교육에 대한 용어적·개념적 혼동을 볼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는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13개의 하위영역을 설정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인지도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기능을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직업교육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90.6%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여기서 일반성인이라 하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새롭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상당히 많은 수가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들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을 수용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표 Ⅳ-2>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직업교육 기능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73(90.1)	8 (9.9)	81(100.0)
중소도시	49(96.1)	2 (3.9)	51(100.0)
군·읍·면	42(85.7)	7 (14.3)	49(100.0)
계	164(90.6)	17 (9.4)	181(100.0)

(χ^2=0.677, p ■.05)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을 앞에서 정의한 수직적, 수평적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기술하겠다.

가. 수직적 계속교육

전문대학의 수직적 계속교육은 기초교육(입직교육) 이후에 근로자가 그들의 직무향상이나 승진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전공영역 및 기술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 교육에 포함되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에는 성인근로자를 위한 직무중심교육과정,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 등이 포함된다.

1)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 기능

<표 Ⅳ-3>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 기능 (단위: 명, %)

구분 \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72(88.9)	9(11.1)	81(100.0)
중소도시	48(92.3)	4(7.7)	52(100.0)
군·읍·면	42(85.7)	7(14.3)	49(100.0)
계	162(89.0)	20(11.0)	182(100.0)

(χ^2=1.123, p ■.05)

전문대학은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89%가 그래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각각의 지역이 88.9%와 92.3%, 그리고 85.7%를 나타내는 등 대체로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직무향상기능에 대한 기대치를 간접적으로나마 반영한다.

2)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80.7%가 그러한 기능에 찬성하고 있다.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85.2%)나 중소도시(84.6%)에 비해 군·읍·면 지역의 수치(68.8%)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Ⅳ-4> 학점은행제 관련 기능 (단위: 명, %)

구분 \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69(85.2)	12(14.8)	81(100.0)
중소도시	44(84.6)	8(15.4)	52(100.0)
군·읍·면	33(68.8)	15(31.3)	48(100.0)
계	146(80.7)	35(19.3)	181(100.0)

(χ^2=5.950, p ■.05)

3) 전공심화과정

<표 Ⅳ-5> 전공심화과정기능 (단위: 명, %)

구분 \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71(87.7)	10(12.3)	81(100.0)
중소도시	47(90.4)	5(9.6)	52(100.0)
군·읍·면	38(80.9)	9(19.1)	47(100.0)
계	156(86.7)	24(13.3)	180(100.0)

(χ^2=2.066, p ■.05)

전문대학이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 86.7%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하겠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87.7%)와 중소도시(90.4%)에 비해 군·읍·면 지역(80.9%)의 호응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나. 수평적 계속교육

수평적인 계속교육이란 전문대학의 졸업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이가 자신의 직무능력 개발과 전직·이직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이외의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에 관련

하여서는 그 대상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이미 한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과정에 입문하였다면 이것은 수평적인 계속교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고교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과정에 등록하였다면 이 경우는 수직적 계속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입직 청소년의 산업체 적응교육

<표 Ⅳ-6> 입직 청소년의 산업체 적응교육 기능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46(57.5)	34(42.5)	80(100.0)
중소도시	31(62.0)	19(38.0)	50(100.0)
군·읍·면	25(53.2)	22(46.8)	47(100.0)
계	102(57.6)	75(42.4)	177(100.0)

(χ^2=0.771, p ■.05)

전문대학이 입직청소년의 산업체적응을 지원하고 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7.6%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2)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능

전문대학이 산업체와 연계하여 국가기술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1.6%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여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강렬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질적인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표 Ⅳ-8>의 수치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변수는 산업체와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으로 보인다.

<표 Ⅳ-7>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능 (단위: 명, %)

구분 \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74(92.5)	6(7.5)	80(100.0)
중소도시	46(88.5)	6(11.5)	52(100.0)
군·읍·면	44(93.6)	3(6.4)	47(100.0)
계	164(91.6)	15(8.4)	179(100.0)

(χ^2=1.000, p ■.05)

3) 민간자격 취득기능

<표 Ⅳ-8> 민간자격증 취득기능 (단위: 명, %)

구분 \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59(73.8)	21(26.3)	80(100.0)
중소도시	35(67.3)	17(32.7)	52(100.0)
군·읍·면	32(69.6)	14(30.4)	46(100.00
계	126(70.8)	52(29.2)	178(100.0)

(χ^2=0.677, p ■.05)

앞에서 언급한 대로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능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70.8%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만 산업체와 연계된 자격증 취득기능을 옹호하는 수치(91.6%)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 기타

기타로 분류한 기능들은 전문대학에서 수행하는 수직적, 수평적 교육의 기능으로 나누어 분류하기 어려운 교육내용을 다루는 과정을 포함한다.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 취약계층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기능, 성인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기능, 4년제 대학 편입학지원, 산업체와 연계

한 실업자 재취업훈련교육, 실업고교와 연계한 전문직업교육기능 등이 이에 속한다.

1)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

<표 Ⅳ-9>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센타로서의 기능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68(83.9)	13(16.0)	81(100.0)
중소도시	49(96.1)	2(3.9)	51(100.0)
군·읍·면	44(93.6)	3(6.4)	47(100.0)
계	161(90.0)	18(10.0)	179(100.0)

(χ^2=7.395, p>.05)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교육이나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9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소도시와 군·읍·면 지역의 수치는 대략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와는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재지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 지역의 전문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2) 취약계층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기능

<표 Ⅳ-10> 취약계층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기능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63(77.8)	18(22.2)	81(100.0)
중소도시	34(68.0)	16(32.0)	50(100.0)
군·읍·면	38(80.9)	9(19.1)	47(100.0)
계	135(75.8)	43(24.2)	178(100.0)

(χ^2=2.488, p■.05)

전문대학의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의 기능에 대해 전체적으로 75.8%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본 문항은 <표 Ⅳ-3>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치는 <표 Ⅳ-3> 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비교적 고른 양상(각각 77.8%, 68%, 80.9%)을 보이고 있다.

3)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기능

<표 Ⅳ-11>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기능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13(16.0)	68(84.0)	81(100.0)
중소도시	8(16.7)	40(83.3)	48(100.0)
군·읍·면	10(21.7)	36(78.3)	46(100.0)
계	31(17.7)	144(82.3)	175(100.0)

(χ^2=0.701, p ■.05)

전문대학의 문해교육기능에 관해 전체의 31%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는 한편, 상당수(82.3%)의 응답자는 문해교육은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과 무관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부정적인 대답의 분포 또한 84%, 83.3%, 78.3%로 고른 편이어서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

4) 4년제 대학 편입학지원 기능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성인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 반수를 넘는 응답자(63.1%)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으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향상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의 기능에 비해 그 지지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63.1%라는 수치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욕구가 일정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표 Ⅳ-12> 4년제 대학 편입학지원 기능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53(66.3)	27(33.8)	80(100.0)
중소도시	31(63.3)	18(36.7)	49(100.0)
군·읍·면	27(57.4)	20(42.6)	47(100.0)
계	111(63.1)	65(36.9)	175(100.0)

(χ^2=0.986, p ■.05)

5) 산업체와 연계한 실업자 재취업훈련교육 기능

<표 Ⅳ-13> 산업체와 연계한 실업자 재취업훈련교육 기능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73(90.1)	8(9.9)	81(100.0)
중소도시	49(98.0)	1(2.0)	50(100.0)
군·읍·면	38(80.9)	9(19.1)	47(100.0)
계	160(89.9)	18(10.1)	178(100.0)

(χ^2=7.847, p ■.05)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업자에게 재취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9.9%가 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단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행정단위가 수치상에 일정정도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6) 실업고교와 연계한 전문직업교육기능

실업계고교와 연계한 전문직업교육기능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약 85.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행정단위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여타 항목과는 달리 군·읍·면 지역에서 보다 높은 호응도(89.6%)를 보여준다.

<표 Ⅳ-14> 실업계고교와 연계한 전문직업교육기능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67(82.7)	14(17.3)	81(100.0)
중소도시	44(84.6)	8(15.4)	52(100.0)
군·읍·면	43(89.6)	5(10.4)	48(100.0)
계	154(85.1)	27(14.9)	181(100.0)

(χ^2=1.132, p ■.05)

3. 계속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가.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일반현황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실태에 관련된 설문에서 대부분의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졸업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대체로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직별 또는 행정단위별 분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각각 92.1%, 92.2%가 전문대학졸업생의 재교육이나 계속교육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불필요하다는 견해는 0.5%와 0.6%를 보이고 있어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행정단위별 분류나 보직별 분류에서 범주별 분류기준에 따른 측정값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한다(각각 p ■.05)

현재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직업교육이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서 많은 수의 전문대학이 계속교육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전문대학졸업자를 위한 재교육이나 계속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행정 단위 별	서울 · 광역시	36(44.4)	41(50.6)	4(4.9)	0	0	81(100.0)
	중소도시	30(57.7)	19(36.5)	3(5.8)	0	0	52(100.0)
	군 · 읍 · 면	13(26.5)	29(59.2)	6(12.2)	1(2.0)	0	49(100.0)
계		79(43.4)	89(48.9)	13(7.1)	1(0.5)	0	182(100.0)
보직 별	학장 · 부학장	0	0	1(100.0)	0	0	1(100.0)
	장급행정직	12(50.0)	11(45.8)	1(4.2)	0	0	24(100.0)
	일반행정직	22(47.8)	18(39.1)	5(10.9)	1(2.2)	0	46(100.0)
	산협행정팀장	4(44.4)	5(55.6)	0	0	0	9(100.0)
	학과장	15(45.5)	12(36.4)	6(18.2)	0	0	33(100.0)
	보직교수	16(39.0)	25(61.0)	0	0	0	41(100.0)
	기타	9(37.5)	15(62.5)	0	0	0	24(100.0)
계		78(43.8)	86(48.3)	13(7.3)	1(0.6)	0	178(100.0)

(χ^2=13.602, p ■.05 / χ^2=32.532, p ■.05)

<표 Ⅳ-16>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직업교육 (단위: 명, %)

구분 \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59(72.8)	22(27.2)	81(100.0)
중소도시	40(78.4)	11(21.6)	51(100.0)
군 · 읍 · 면	30(65.2)	16(34.8)	46(100.0)
계	129(72.5)	49(27.5)	178(100.0)

(χ^2=2.127, p ■.05)

<표 Ⅳ- 1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현재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현황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90.0%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과는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고 하겠다.

<표 Ⅳ-17> 계속교육을 위한 기구나 부서의 운영 여부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63(77.8)	18(22.2)	81(100.0)
중소도시	52(100.0)	0	52(100.0)
군·읍·면	34(69.4)	15(30.6)	49(100.0)
계	149(81.9)	33(18.1)	182(100.0)

(χ^2=17.571, p■.05)

계속교육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나 기구가 있다는 응답이 81.9%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18.1%)을 압도하고 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중소도시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서는 77.8%, 군▪읍▪면지역에서는 69.4%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위에서 제시한 계속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영역에 대한 범위를 묻는 설문에서 지역별, 보직별 응답은 <표 Ⅳ-18>과 같다.

계속교육을 위한 장소로 가장 선호되는 곳은 부설사회(평생)교육원인 것으로 나타났다(69.5%, 70.7%). 대학의 관련전공에서 실시한다는 응답이 22.7%와 21.3%로 나타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실시한다는 의견은 각각 1.3%, 대학에서 실시하고 나머지는 산업체에서 실시한다는 응답이 3.9%와 2.7%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Ⅳ-18> 계속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 (단위: 명, %)

구분 \ 항목		관련 전공	부설사회 교육원	산업체 현장	유관 임대 기관	대학 및 산업체	기타	계
행정 단위 별	서울 · 광역시	18(26.1)	45(65.2)	0	0	4(5.8)	2(2.9)	69(100.0)
	중소도시	7(14.6)	38(79.2)	1(2.1)	0	2(4.2)	0	48(100.0)
	군읍면	10(27.0)	24(64.9)	1(2.7)	0	0	2(5.4)	37(100.0)
계		35(22.7)	107(69.5)	2(1.3)	0	6(3.9)	4(2.6)	154(100.0)
보직 별	학장 · 부학장	0	1(100.0)	0	0	0	0	1(100.0)
	장급행정직	2(11.1)	15(83.3)	0	0	1(5.6)	0	18(100.0)
	일반행정직	10(25.0)	24(60.0)	1(2.5)	0	4(10.0)	1(2.5)	40(100.0)
	산협행정팀장	1(16.7)	5(83.3)	0	0	0	0	6(100.0)
	학과장	5(17.9)	22(78.6)	0	0	0	1(3.6)	28(100.0)
	보직교수	8(23.5)	24(70.6)	1(2.9)	0	0	1(2.9)	34(100.0)
	기타	6(26.1)	15(65.2)	0	0	1(4.3)	1(4.3)	23(100.0)
계		32(21.3)	106(70.7)	2(1.3)	0	4(2.7)	4(2.7)	150(100.0)

(χ^2=9.156, p■.05 / χ^2=13.109, p■.05)

다음은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에 대한 인지도와 대비하여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규 외 프로그램의 실태와 각 과정의 비중을 조사하였다. 실태와 관련하여 13항의 하위영역을 설정하였으며 비중에서는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1개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 수직적 계속교육

가)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교육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전문대학에서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과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자체적으로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으로 파악

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89.0%)에 비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Ⅳ-19>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교육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63(77.8)	18(22.2)	81(100.0)
중소도시	38(73.1)	14(26.9)	52(100.0)
군·읍·면	32(65.3)	17(34.7)	49(100.0)
계	133(73.1)	49(26.9)	182(100.0)

(χ^2=2.414, p ■.05)

나) 학점은행제

<표 Ⅳ-20> 학점은행제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53(65.4)	28(34.6)	81(100.0)
중소도시	24(48.0)	26(52.0)	50(100.0)
군·읍·면	26(54.2)	22(45.8)	48(100.0)
계	103(57.5)	76(42.5)	179(100.0)

(χ^2=4.151, p ■.05)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7.5%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학점은행제를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8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하겠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실시(65.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미 있는 차이라고는 볼 수 없다(p ■.5).

다)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이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6.7%(<표

Ⅳ-12> 참조)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4.4%를 보이고 있다.

<표 Ⅳ-21> 전공심화과정 (단위: 명, %)

구분 \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56(69.1)	25(30.9)	81(100.0)
중소도시	30(57.7)	22(42.3)	52(100.0)
군·읍·면	30(63.8)	17(36.2)	47(100.0)
계	116(64.4)	64(35.6)	180(100.0)

(χ^2=1.820, p ■.05)

2) 수평적 계속교육

가) 입직 청소년의 산업체 적응훈련

<표 Ⅳ-22> 입직 청소년의 산업체적응훈련 (단위: 명, %)

구분 \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19(23.5)	62(76.5)	81(100.0)
중소도시	7(14.3)	42(85.7)	49(100.0)
군·읍·면	9(19.1)	38(80.9)	47(100.0)
계	35(19.8)	142(80.2)	177(100.0)

(χ^2=1.634, p ■.05)

입직을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9.8%에 머물고 있다. 한편,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7.6%(<표 Ⅳ-10> 참조)로 나타났다.

나)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취득

산업체와 연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에 필수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1.6%(<표 Ⅳ-7> 참조)로 나타났으나, 전문대학에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8.2%에 그치고 있다.

또한, 유의수준이 5% 이하로 나타나서 행정단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23>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취득 (단위: 명, %)

구분 \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59(72.8)	22(27.2)	81(100.0)
중소도시	26(53.1)	23(46.9)	49(100.0)
군·읍·면	35(76.1)	11(23.9)	46(100.0)
계	120(68.2)	56(31.8)	176(100.0)

(χ^2=7.299, p<.05)

3) 기타

가)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생활교육 및 소양교육

<표 Ⅳ-24>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생활교육 및 소양교육 (단위: 명, %)

구분 \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53(65.4)	28(34.6)	81(100.0)
중소도시	40(46.9)	12(23.1)	52(100.0)
군·읍·면	32(66.7)	16(33.3)	48(100.0)
계	125(69.1)	56(30.9)	181(100.0)

(χ^2=2.132, p<.05)

전문대학이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생활교육이나 소양교육을 제공하는 평

생교육센터로서 기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9.1%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물론, 과반수를 넘는 수치이지만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긍정하는 90.0%(<표 Ⅳ-1> 참조)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고 하겠다.

나) 해외유학을 위한 기초기술 및 어학교육

<표 Ⅳ-25> 해외유학을 위한 기초기술 및 어학교육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39(48.1)	42(51.9)	81(100.0)
중소도시	20(40.0)	30(60.0)	50(100.0)
군·읍·면	27(57.4)	20(42.6)	47(100.0)
계	86(48.3)	92(51.7)	178(100.0)

(χ^2=2.955, p ■.05)

전문대학이 외국의 선진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기초교육이나 해외유학을 위한 어학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48.%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역할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행정단위별로 긍정적인 응답의 수위가 각각 다르게(48.1%, 40.0%, 57.4%) 나타나고 있다.

다) 취약계층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표 Ⅳ-26> 취약계층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47(58.0)	34(42.0)	81(100.0)
중소도시	25(50.0)	25(50.0)	50(100.0)
군·읍·면	21(44.7)	26(55.3)	47(100.0)
계	93(52.2)	85(47.8)	178(100.0)

(χ^2=2.263, p ■.05)

취약계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행정단위별로 약간의 편차(58.0%, 50.0%, 44.7%)를 보이고 있다.

라)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표 Ⅳ-27> 성인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4(4.9)	77(95.1)	81(100.0)
중소도시	2(4.0)	48(96.0)	50(100.0)
군·읍·면	1(2.1)	46(97.9)	47(100.0)
계	7(3.9)	171(96.1)	178(100.0)

(χ^2=2.623, p ■.05)

성인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9%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문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중(17.7%) 또한 낮아서 문해교육이 전문대학의 주력분야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마) 4년제 대학과의 연계를 위한 기술교육

<표 Ⅳ-28> 4년제 대학과의 연계를 위한 기술교육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35(43.2)	46(56.8)	81(100.0)
중소도시	9(18.4)	40(81.6)	49(100.0)
군·읍·면	19(40.4)	28(59.6)	47(100.0)
계	63(35.6)	114(64.4)	177(100.0)

(χ^2=8.871, p■.05)

4년제 대학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35.6%를 나타내고 있다. 이야기가 다르긴 하지만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성인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설문에 63.1%의 응답자가 찬성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의수준이 5%이하에서 유지되고 있어 행정단위별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바) 실업계고교와 연계한 전문직업교육

<표 Ⅳ-29> 실업계고교와 연계한 전문직업교육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63(77.8)	18(22.2)	51(100.0)
중소도시	36(69.2)	16(30.8)	52(100.0)
군·읍·면	42(91.3)	4(8.7)	48(100.0)
계	141(78.8)	38(21.2)	179(100.0)

(χ^2=7.199, p■.05)

현재 실업계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8.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실업계고등학교와 연계한 전문직업교육을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85.1%)에 상당히 가깝다고 하겠다. 한편, 행정단위별 편차 또한 유의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서 행정단위가 응답의 수준에 어느정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 산업체와 연계한 실업자 재취업훈련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4.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82.7%)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할 수준은 아니다.

<표 Ⅳ-30> 산업체와 연계한 실업자 재취업훈련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67(82.7)	14(17.3)	81(100.0)
중소도시	34(68.0)	16(32.0)	50(100.0)
군·읍·면	32(66.7)	16(33.3)	48(100.0)
계	133(74.3)	46(25.7)	179(100.0)

(χ^2=5.509, p ■.05)

나. 전문대학에서 계속교육의 비중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비중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직적 계속교육

가)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교육

<표 Ⅳ-31>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교육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비중있다	비중있다	보통	별로 비중없다	전혀 비중없다	계
서울·광역시	8(10.0)	28(35.0)	27(33.8)	12(15.0)	5(6.3)	80(100.0)
중소도시	7(14.9)	20(42.6)	10(21.3)	8(17.0)	2(4.3)	47(100.0)
군·읍·면	6(12.5)	17(35.4)	14(29.2)	8(16.7)	3(6.3)	48(100.0)
계	21(12.0)	65(37.1)	51(29.1)	28(16.0)	10(5.7)	175(100.0)

(χ^2=3.026, p ■.05)

성인근로자를 위한 직무향상교육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응답자는 49.1%이며, 매우 비중있게 평가하는 응답자도 12.0%에 이르고 있다. 비중이 낮다는 응답자가 21.7%이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응답자는 29.1% 이다.

나) 학점은행제

<표 Ⅳ-32> 학점은행제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비중있다	비중있다	보통	별로 비중없다	전혀 비중없다	계
서울·광역시	6(7.6)	19(24.1)	26(32.9)	20(25.3)	8(10.1)	79(100.0)
중소도시	2(4.8)	16(38.1)	8(19.0)	12(28.6)	4(9.5)	42(100.0)
군·읍·면	7(14.6)	9(18.8)	15(31.3)	11(22.9)	6(12.5)	48(100.0)
계	15(8.9)	44(26.0)	49(29.0)	43(25.4)	18(10.7)	169(100.0)

(χ^2=8.5950, p ■.05)

학점은행제가 비중 있다는 응답은 35.9%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 또한 36.1%를 차지하고 있어 약간의 조정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학점은행제를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으로 인식한다는 응답(80.7%)에 비해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다) 전공심화과정

<표 Ⅳ-33> 전공심화과정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비중있다	비중있다	보통	별로 비중없다	전혀 비중없다	계
서울·광역시	5(6.3)	34(42.5)	22(27.5	14(17.5)	5(6.3)	80(100.0)
중소도시	3(6.7)	22(48.9)	8(17.8)	8(17.8)	4(8.9)	45(100.0)
군·읍·면	12(25.5)	15(31.9)	9(19.1)	8(17.0)	3(6.4)	47(100.0)
계	20(11.6)	71(41.3)	39(22.7)	30(17.4)	12(7.0)	172(100.0)

(χ^2=14.298, p ■.05)

전공심화과정에 비중이 있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52.9%와 24.4%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중이 있다는 응답 중에는 매우 비중 있다는 응답이 11.6%를 차지한다.

2) 수평적 계속교육

가) 입직 청소년의 산업체 적응훈련

<표 Ⅳ-34> 입직 청소년의 산업체 적응훈련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비중있다	비중있다	보통	별로 비중없다	전혀 비중없다	계
서울·광역시	3(3.8)	8(10.1)	28(35.4)	25(31.6)	15(19.0)	79(100.0)
중소도시	2(4.4)	4(8.9)	13(28.9)	19(42.2)	7(15.6)	45(100.0)
군·읍·면	2(4.3)	10(21.3)	15(31.9)	10(21.3)	10(21.3)	47(100.0)
계	7(4.1)	22(12.9)	56(32.7)	54(31.6)	32(18.7)	171(100.0)

(χ^2=7.624, p ■.05)

입직훈련을 지원하는 기능에 비중이 있다는 응답(17%)에 비해 별로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보다 지배적(50.3%)이다. 입직훈련을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기능으로 인식한다는 응답(57.6%)과 일맥상통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나)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취득

<표 Ⅳ-35>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취득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비중있다	비중있다	보통	별로 비중없다	전혀 비중없다	계
서울·광역시	7(8.8)	38(47.5)	20(25.0)	12(15.0)	3(3.8)	80(100.0)
중소도시	5(10.6)	22(46.8)	12(25.5)	6(12.8)	2(4.3)	47(100.0)
군·읍·면	9(19.6)	20(43.5)	14(30.4)	2(4.3)	1(2.2)	46(100.0)
계	21(12.1)	80(46.2)	46(26.6)	20(11.6)	6(3.5)	173(100.0)

(χ^2=6.664, p ■.05)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취득기능에 상당한 비중이 있다는 응답자가 58.3%로 나타나 이전의 응답을 뒷받침한다. 즉 산업체와 연계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한다는 대답이 68.2%, 그리고 그것을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으로 이해한다는 대답은 91.6%를 나타낸 바 있다.

다) 일반성인을 위한 자격증 취득

<표 Ⅳ-36> 일반성인을 위한 자격증 취득 (단위: 명, %)

구분 \ 항목	매우 비중있다	비중있다	보통	별로 비중없다	전혀 비중없다	계
서울·광역시	2(2.5)	26(32.5)	25(31.3)	21(26.3)	6(7.5)	80(100.0)
중소도시	5(10.9)	14(30.4)	11(23.9)	11(23.9)	5(10.9)	46(100.0)
군·읍·면	2(4.3)	17(37.0)	9(19.6)	13(28.3)	5(10.9)	46(100.0)
계	9(5.2)	57(33.1)	45(26.2)	45(26.2)	16(9.3)	172(100.0)

(χ^2=6.652, p ■.05)

그저 그렇다는 응답(26.2%)을 중심으로 비중이 있다는 응답(38.3%)과 별로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35.5%)를 각각 보이면서 약간의 조정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할 수준은 아니지만 중소도시에서 보다 높은 수준(41.3%)을 보인다.

3) 기타

가) 평생교육센터

<표 Ⅳ-37> 평생교육센타 (단위: 명, %)

구분 \ 항목	매우 비중있다	비중있다	보통	별로 비중없다	전혀 비중없다	계
서울·광역시	**91(1.3)**	**26(32.5)**	**25(31.3)**	**10(12.5)**	**10(12.5)**	**80(100.0)**
중소도시	**10(20.4)**	**20(40.8)**	**12(24.5)**	**7(14.3)**	**0**	**49(100.0)**
군·읍·면	**7(14.9)**	**18(38.3)**	**10(21.3)**	**8(17.0)**	**4(8.5)**	**47(100.0)**
계	**26(14.8)**	**64(36.4)**	**47(26.7)**	**25(14.2)**	**14(8.0)**	**176(100.0)**

(χ^2=10.018, p ■.05)

생활교육이나 기초소양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에 대해 51.2%의 응답자가 비중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비중있다는 응답이 1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비중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2%로 나타났다.

나) 취약계층 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표 Ⅳ-38> 취약계층 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비중있다	비중있다	보통	별로 비중없다	전혀 비중없다	계
서울·광역시	6(7.5)	20(25.0)	20(25.0)	23(28.8)	111(3.8)	80(100.0)
중소도시	6(13.3)	14(31.1)	12(26.7)	10(22.2)	3(6.7)	45(100.0)
군·읍·면	4(8.7)	14(30.4)	18(39.1)	5(10.9)	5(10.9)	46(100.0)
계	16(9.4)	48(28.1)	50(29.2)	38(22.2)	19(11.1)	171(100.0)

(χ^2=9.224, p ■.05)

취약계층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2.2%(<표Ⅳ-18> 참조)를 나타냈으나 그러한 교육훈련의 비중이 높다는 응답자는 37.5%에 머물고 있다. 비록 유의할 수준은 아니지만 중소도시에서 그 수치가 보다 높게 나타난다.

다)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표 Ⅳ-39>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비중있다	비중있다	보통	별로 비중없다	전혀 비중없다	계
서울·광역시	1(1.3)	4(5.1)	8(10.1)	27(34.2)	39(49.4)	79(100.0)
중소도시	0	1(2.2)	5(10.9)	21(45.7)	19(41.3)	46(100.0)
군·읍·면	0	2(4.3)	3(6.4)	20(42.6)	22(46.8)	47(100.0)
계	1(0.6)	7(4.1)	16(9.3)	68(39.5)	80(46.5)	172(100.0)

(χ^2=3.914, p ■.05)

문해교육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86%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전혀 없다는 응답자 또한 46.5%에 이르고 있다. 문해교육은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기능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82.3%)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라) 4년제 대학 편입학 지원

<표 Ⅳ-40> 4년제 대학 편입학 지원 (단위: 명, %)

구분 \ 항목	매우 비중있다	비중있다	보통	별로 비중없다	전혀 비중없다	계
서울·광역시	1(1.3)	24(30.0)	25(31.3)	22(27.5)	8(10.0)	80(100.0)
중소도시	1(2.2)	15(32.6)	13(28.3)	12(26.1)	5(10.9)	46(100.0)
군·읍·면	4(8.7)	15(32.6)	16(34.8)	7(15.2)	4(8.7)	46(100.0)
계	6(3.5)	54(31.4)	54(31.4)	41(23.8)	17(9.9)	172(100.0)

(χ^2=7.452, p ■.05)

4년제 대학에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54.9%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또한 33.7%에 이르고 있다. 대답을 유보하는 입장도 31.4%에 달한다.

다.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문제점

1) 산업체와의 협력 부족

위에서 제시한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실태에 대한 표들을 참조해 보면 실제로 많은 전문대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다양하게 계속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기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와 현재 전문대학에서 계속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과정들이 실질적으로는 약 70%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각 전문대학의 행정담당 보직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기능과 문제점에 대해 더욱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운영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역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기능의 수행에서 산업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

로 운영되고 있었다.

<표 Ⅳ-41>은 전문대학이 계속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표 Ⅳ-41> 계속교육운영상의 문제점 (단위 : %)

구분 \ 항목	협조 부족	산업체 부족	행·재정 지원 부족	기자재 부족	법적근거 미비	운영능력부족	중복 프로그램	계
서울·광역시	5(10.9)	17(37.0)	7(15.2)	5(10.9)	9(19.6)	1(2.2)	2(4.3)	46(100.0)
중소도시	1(3.2)	16(51.6)	3(9.7)	5(16.1)	4(12.9)	2(6.5)	0	31(100.0)
군·읍·면	0	9(40.9)	3(13.6)	0	4(18.2)	4(18.2)	2(9.1)	22(100.0)
계	6(6.1)	42(42.4)	13(13.1)	10(10.1)	17(17.2)	7(7.1)	4(4.0)	99(100.0)

(χ^2=16.821, p ■.05)

이 설문 결과는 계속교육의 실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계속교육에 참여하는 산업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42.4%). 또한, <표 Ⅳ-42>에서 보여 주듯이 전문대학이 운영하는 계속교육과정에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의견은 15.6%에 불과하며 그렇지 못하다는 견해가 지배적(84.4%)이다. 그러므로 산업체의 저조한 참여가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학교당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13.3%)하고, 국가적 차원의 자금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17.2%)하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 밖에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관련전공교원의 협조 및 이해부족(6.1%), 기자재와 시설의 부족(10.1%), 그리고 계속교육에 대한 이해 및 운영능력의 부재(7.1%) 등을 들 수 있다.

<표 Ⅳ-42> 산업체의 계속교육 참여여부 (단위: 명, %)

항목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서울 및 광역시	11(15.1)	62(84.9)	73(100.0)
중소도시	7(14.0)	43(86.0)	50(100.0)
군·읍·면	8(18.2)	36(81.8)	44(100.0)
계	26(15.6)	141(84.4)	167(100.0)

(χ^2=0.336, p ■.05)

<표 Ⅳ-43> 계속교육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의 재정지원 여부 (단위: 명, %)

항목 / 구분	전 업체에서 받고 있음	일부업체에서 받고 있음	전혀 받지 않음	계
서울·광역시	3(4.3)	23(33.3)	43(62.3)	(100.0)
중소도시	2(4.5)	10(22.7)	32(72.7)	(100.0)
군·읍·면	3(7.5)	17(42.5)	20(50.0)	(100.0)
계	8(5.2)	50(32.7)	95(62.1)	(100.0)

(χ^2=4.803, p ■.05)

계속교육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37.9%에 해당하며 모든 업체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대답은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산업체의 계속교육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상당부분 계속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각각 42.7%, 43.5%)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고 해도 계속교육에 참여하는 산업체가 영세할 경우에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28.2%, 26.9%).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17.3%, 17.6%) 또한 산업체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Ⅳ-44> 산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 항목		신뢰감 부족	산업체의 규모	이해 부족	교원참여 부족	비용 부담	기타	계
행정 구역 별	서울 · 광역시	11(22.4)	8(16.3)	25(51.0)	1(2.0)	3(6.1)	1(2.0)	49(100.0)
	중소도시	2(6.5)	14(45.2)	11(35.5)	0	0	0	31(100.0)
	군 · 읍면	6(20.0)	9(30.0)	11(36.7)	2(6.7)	2(6.7)	1(3.3)	30(100.0)
계		19(17.3)	31(28.2)	47(42.7)	3(2.7)	3(2.7)	2(1.8)	110(100.0)
보직 별				1(100.00)				1(100.0)
	학장 · 부학장	1(8.3)	3(25.0)	7(58.3)	0	1(8.3)	0	12(100.0)
	일반행정직	3(9.7)	6(19.4)	17(54.8)	1(3.2)	4(12.9)	0	31(100.0)
	산협행정팀장	1(16.7)	1(16.7)	3(50.0)	1(16.7)	0	0	6(100.0)
	학과장	7(35.0)	5(25.0)	6(30.0)	0	0	2(10.0)	20(100.0)
	보직교수	4(18.2)	9(40.9)	6(27.3)	1(4.5)	2(1.9)	0	22(100.0)
	기타	3(18.8)	5(31.3)	7(43.8)	0	1(6.3)	0	16(100.0)
계		19(17.6)	29(26.9)	47(43.5)	3(2.8)	8(7.4)	2(1.9)	108(100.0)

(χ^2=15.742, p■.05 / χ^2=30.725, p■.05)

2)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부족

<표 Ⅳ-45> 공공기관의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 항목	참여가 활발하다	참여가 저조하다	계
서울 및 광역시	5(6.8)	68(93.2)	73(100.0)
중소도시	12(25.0)	36(75.0)	48(100.0)
군 · 읍 · 면	7(15.9)	37(84.1)	44(100.0)
계	24(14.5)	141(85.5)	165(100.0)

(χ^2=7.765, p■.05)

산업체와 더불어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사업에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축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활발하다

는 응답은 전체의 14.5%에 불과하다. 행정구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시가 6.8%, 중소도시가 25.0%, 군·읍·면이 15.9%를 보이면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5).

<표 Ⅳ-46> 공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 항목		신뢰감 부족	이해 부족	교원 참여부족	비용 부담	기타	계
행정구역별	서울▪광역시	10(16.9)	35(59.3)	0	12(20.3)	2(3.4)	59(100.0)
	중소도시	7(21.2)	14(42.4)	1(3.0)	7(21.2)	4(12.1)	33(100.0)
	군▪읍▪면	5(15.2)	16(48.5)	1(3.0)	8(24.2)	3(9.1)	33(100.0)
계		22(17.6)	65(52.0)	2(1.6)	27(21.6)	9(7.2)	125(100.0)
보직별	학장▪부학장	0	0	0	1(100.0)	0	1(100.0)
	장급행정직	0	12(70.6)	0	4(23.5)	1(5.9)	17(100.0)
	일반행정직	5(17.2)	14(48.3)	1(3.4)	7(24.1)	2(6.9)	29(100.0)
	산협행정팀장	3(50.0)	0	1(16.7)	8(33.3)	0	6(100.0)
	학과장	3(12.5)	12(50.0)	0	2(33.3)	1(4.2)	24(100.0)
	보직교수	5(18.5)	17(63.0)	0	2(7.4)	3(11.1)	27(100.0)
	기타	6(35.3)	7(41.2)	0	3(17.6)	1(5.9)	17(100.0)
계		22(18.2)	62(51.2)	2(1.7)	27(22.3)	8(6.6)	121(100.0)

(χ^2=6.044, p■.05 / χ^2=34.693, p■.05)

공공기관의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공기관이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각각 52.0%, 51.2%). 비용적인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21.6%, 22.3%),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17.6%, 18.2%) 또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라. 계속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전공심화과정은 현재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표 Ⅳ-38>에서 알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자격에서 산업체 근

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학생모집이 어렵고, 본과정만으로는 학점이수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현재 학습생의 관심 유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문식 교육체제 역시 계속교육의 기능의 하나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었다. 실제로 정보통신 분야 등 특화된 분야에서는 주문형 교육체제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체제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보수교육(AS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직업관련 교육이기보다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교육, 소양교육 등의 평생교육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취미, 교양 및 예·체능 위주의 프로그램들은 과거에는 특별과정으로 개설되어 개설 당시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현재는 지원자들의 감소로 그 운영이 어렵다.

최근에는 전문대학의 지원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위기감으로 산업체 위탁반, 시간제학생 등으로 계속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각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춘 특별한 직무분야의 계속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4. 계속교육강화방향과 전략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교육이 앞으로 전문대학의 교육 경쟁력에 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교육대상의 확대, 직업교육의 내실화, 산학협동의 강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유로 전문대학들은 앞으로 계속교육을 확대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음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표 Ⅳ-47> 계속교육과정의 운영이 교육경쟁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행정단위별	서울·광역시	37(45.7)	40(49.4)	4(4.9)	0	0	81(100.0)
	중소도시	31(60.8)	16(31.4)	4(7.8)	0	0	51(100.0)
	군읍면	12(24.5)	30(61.2)	71(4.3)	0	0	49(100.0)
계		80(44.2)	86(47.5)	15(8.3)	0	0	181(100.0)
보직별	학장·부학장	0	1(100.00)	0	0	0	1(100.00)
	장급행정직	11(45.8)	12(50.0)	1(4.2)	0	0	24(100.0)
	일반행정직	23(50.0)	21(45.7)	2(4.3)	0	0	46(100.0)
	산협행정팀장	3(33.3)	3(33.3)	3(33.3)	0	0	9(100.0)
	학과장	15(45.5)	11(33.3)	7(21.2)	0	0	33(100.0)
	보직교수	17(41.5)	24(58.5)	0	0	0	41(100.0)
	기타	9(39.1)	12(52.2)	2(8.7)	0	0	24(100.0)
	계	78(44.1)	84(47.5)	15(8.5)	0	0	178(100.0)

(χ^2=15.551, p■.05 / χ^2=22.736, p■.05)

전문대학이 계속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91.7%, 97.5%가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대답은 전체의 44.2%와 4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교육과 교육경쟁력의 상관관계를 일정정도 인정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대체로 또는 전혀 대학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없으리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어서 주목된다.

한편, 행정단위별 분류나 보직별 분류에서 범주별 분류기준에 따른 측정값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한다(각각 p■.05)

<표 Ⅳ-48> 계속교육이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항목 / 구분	교육대상의 확대	직업교육의 내실화	산학 협동 강화	입학자원의 확보	기타	계
서울·광역시	48	61	54	25	0	188
중소도시	32	33	28	13	0	106
군·읍·면	26	26	25	13	1	91
계	106	120	107	51	1	385

계속교육과 교육력 향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묻는 설문에서(복수응답 가능) 가장 많은 응답자(120명)가 직업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산학협동을 보다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대답과 교육대상을 고교졸업자에서 산업체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대답이 각각 107명과 106명으로 나타났으며 51명의 응답자는 입학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Ⅳ-49> 계속교육의 확대실시여부 (단위: 명, %)

구분	항목	확대	현상유지	축소	계
행정 단위 별	서울·광역시	67(84.8)	12(15.2)	0	1(100.0)
	중소도시	49(96.1)	2(3.9)	0	51(100.0)
	군·읍·면	37(78.7)	10(21.3)	0	47(100.0)
	계	153(86.4)	24(13.6)	0	177(100.0)
보직 별	학장·부학장	0	1(100.0)	0	1(100.00)
	장급행정직	22(91.7)	2(8.3)	0	24(100.0)
	일반행정직	36(80.0)	9(20.0)	0	45(100.0)
	산협행정팀장	9(100.0)	0	0	9(100.0)
	학과장	24(77.4)	7(22.6)	0	31(100.0)
	보직교수	36(90.0)	4(10.0)	0	40(100.0)
	기타	22(95.7)	1(4.3)	0	23(100.0)
계		149(86.1)	24(13.9)	0	173(100.0)

(χ^2=6.609, p■.05 / χ^2=13.904, p■.05)

계속교육의 확대와 관련하여 행정단위나 보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86.4%, 86.1%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은 각각 13.6%와 13.9%이며 축소하겠다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단위와 보직별로 유의미한 차이($p<.5$)를 나타내고 있어 각각의 분류기준이 측정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다음은 전문대학에서 계속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설문으로 11항의 하위영역을 설정하여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이다.

가. 수직적 계속교육

1) 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운영

<표 Ⅳ-50> 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서울·광역시	18(25.5)	40(50.0)	16(20.0)	6(7.5)	0	80(100.0)
중소도시	13(26.0)	26(52.0)	7(14.0)	4(8.0)	0	50(100.0)
군·읍·면	12(25.0)	18(37.5)	13(27.1)	4(8.3)	1(2.1)	48(100.0)
계	43(24.2)	84(47.2)	36(20.2)	14(7.9)	1(0.6)	178(100.0)

($\chi^2=6.322$, p ■ .05)

전공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응답자 중 71.4%가 중요하다고 대답하였고 그 중에서 24.2%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8.5%에 그치고 있다.

2) 산업기사 이상의 직무중심 교육과정 개발

산업기사 이상의 수준에 준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 79.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에서 23.9%는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지역적 분포는 매우 고른 편이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Ⅳ-51> 산업기사 이상의 직무중심 교육과정 개발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서울·광역시	21(26.3)	43(53.8)	13(16.3)	2(2.5)	1(1.3)	80(100.0)
중소도시	11(22.4)	27(55.1)	8(16.3)	3(6.1)	0	49(100.0)
군·읍·면	10(21.3)	28(59.6)	8(17.0)	1(2.1)	0	47(100.0)
계	42(23.9)	98(55.7)	29(16.5)	6(3.4)	1(0.6)	176(100.0)

(χ^2=3.238, p ■.05)

3)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

71.7%의 응답자가 전공심화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5.1%에 그치고 있다.

<표 Ⅳ-52>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서울·광역시	19(23.8)	38(47.5)	19(23.8)	4(5.0)	0	80(100.0)
중소도시	12(24.0)	27(54.0)	8(16.0)	3(6.0)	0	50(100.0)
군·읍·면	11(23.4)	20(42.6)	14(29.8)	2(4.3)	0	47(100.0)
계	42(23.7)	85(48.0)	41(23.2)	9(5.1)	0	177(100.0)

(χ^2=2.83., p ■.05)

4) 시간제 등록생의 확대

시간제 등록생의 확대와 관련하여 31.5%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 또한 높게(58.9%)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4.0%에 달하고 있다.

<표 Ⅳ-53> 시간제 등록생의 확대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서울·광역시	12(15.0)	40(50.0)	20(25.0)	8(10.0)	0	80(00.0)
중소도시	4(8.0)	25(50.0)	19(38.0)	1(2.0)	1(2.0)	50(00.0)
군·읍·면	9(18.8)	15(31.3)	17(35.4)	61(2.5)	1(2.1)	48(00.0)
계	25(14.0)	80(44.9)	56(31.5)	15(8.4)	2(1.1)	178(00.0)

(χ^2=12.096, p ■.05)

5) 기사자격취득과정 운영

기사자격의 취득과정은 교육수혜자의 대상에 따라서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문대졸 또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과정은 수평적이나, 고교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이 자격증취득을 위하여 전문대학에서 계속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수직적 계속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Ⅳ-54> 기사자격취득과정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서울·광역시	12(15.0)	47(58.8)	18(22.5)	2(2.5)	1(1.3)	80(100.0)
중소도시	10(20.0)	27(54.0)	10(20.0)	3(6.0)	0	50(100.0)
군·읍·면	11(29.9)	21(43.8)	13(27.1)	3(6.3)	0	48(100.0)
계	33(18.5)	95(53.4)	41(23.0)	8(4.5)	1(0.6)	178(100.0)

(χ^2=5.430, p ■.05)

기사자격취득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71.9%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5.1%로 나타났다. 중요하다는 응답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73.8%)나 군·읍·면(73.7%)에 비해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64.0%)를 보이고 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6) 학점은행제

<표 Ⅳ-55> 학점은행제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서울·광역시	22(27.5)	34(42.5)	16(20.0)	7(8.8)	1(1.3)	80(100.0)
중소도시	8(16.0)	24(48.0)	16(32.0)	2(4.0)	0	50(100.0)
군·읍·면	11(22.9)	13(27.1)	16(33.3)	81(6.7)	0	48(100.0)
계	41(23.0)	71(39.9)	48(27.0)	17(9.6)	1(0.6)	178(100.0)

(χ^2=12.770 p■.05)

학점은행제를 개설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59.9%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러리라는 응답과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27.%와 10.2%로 나타났다.

7) 독학사제도 운영

<표 Ⅳ-56> 독학사제도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서울·광역시	7(8.8)	25(31.3)	29(36.3)	18(22.5)	1(1.3)	80(100.0)
중소도시	5(10.0)	15(30.0)	18(36.0)	12(24.0)	0	50(100.0)
군·읍·면	2(4.2)	9(18.8)	19(39.6)	16(33.3)	2(4.2)	48(100.0)
계	14(7.9)	49(27.5)	66(37.1)	46(25.8)	3(1.7)	178(100.0)

(χ^2=7.313, p■.05)

독학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계속교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35.4%이며 37.1%는 유보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7.5%로 나타났다.

나. 수평적 계속교육

1) 자격갱신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의 개발

<표 Ⅳ-57> 자격갱신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의 개발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서울·광역시	10(12.5)	41(51.3)	20(25.0)	8(10.0)	1(1.3)	80(100.0)
중소도시	9(18.0)	20(40.0)	16(32.0)	5(10.0)	0	50(100.0)
군·읍·면	5(10.6)	22(46.8)	15(31.9)	5(10.6)	0	47(100.0)
계	24(13.6)	83(46.9)	51(28.8)	18(10.2)	1(0.6)	177(100.0)

(χ^2=3.883, p ■.05)

보수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응답자는 60.5%이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10.8%에 그치고 있다. 지역 간 편차가 약간 드러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다. 기타

기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그 내용에서 계속교육과 차별화 되는 여타의 평생교육과 또한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련된 교육과정, 예컨대, 원격교육, 주문식교육, 시간제등록과정, 시간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 원격교육과정의 운영

58.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13.5%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단위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포착되지 않는다.

<표 Ⅳ-58> 원격교육과정의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서울·광역시	7(8.8)	36(45.0)	24(30.0)	12(15.0)	1(1.3)	80(100.0)
중소도시	14(28.0)	24(48.0)	9(18.0)	3(6.0)	0	50(100.0)
군·읍·면	8(17.0)	15(31.9)	16(34.0)	7(14.9)	1(2.1)	47(100.0)
계	29(16.4)	75(42.4)	49(27.7)	22(12.4)	2(1.1)	177(100.0)

(χ^2=14.534, p ■.05)

2) 주문식 교육과정의 확대

<표 Ⅳ-59> 주문식 교육과정의 확대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서울·광역시	17(21.3)	35(43.8)	22(27.5)	6(7.5)	0	80(100.0)
중소도시	11(22.0)	23(46.0)	10(20.0)	6(12.0)	0	50(100.0)
군·읍·면	12(25.0)	18(37.5)	11(22.9)	7(14.6)	0	48(100.0)
계	40(22.5)	76(42.7)	43(24.2)	19(10.7)	0	178(100.0)

(χ^2=2.930, p ■.05)

63.2%의 응답자가 주문식교육의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22.5%는 매우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0.7%로 드러나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3) 시간대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12.4%)을 압도하고 있다.

<표 Ⅳ-60> 시간대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서울·광역시	11(13.8)	39(48.8)	24(30.0)	5(6.3)	1(1.3)	80(100.0)
중소도시	5(10.0)	24(48.0)	15(30.0)	6(12.0)	0	50(100.0)
군·읍·면	4(8.3)	19(39.6)	10(20.8)	10(20.8)	0	48(100.0)
계	20(11.2)	82(46.1)	21(11.8)	21(11.8)	1(0.6)	178(100.0)

(χ^2=8.135 p■.05)

4) 산업체 및 정부의 재정 지원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체제 속에서 계속교육이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체 및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이다.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85.9%와 90.8%를 차지하고 있다. 매우 절실하다는 지적 또한 45.5%와 45.4%를 나타내고 있어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Ⅳ-61>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 항목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행정 구역별	서울·광역시	1(1.3)	2(2.6)	10(12.8)	32(41.0)	33(42.3)	78(100.0)
	중소도시	1(1.9)	1(1.9)	2(3.8)	20(38.5)	28(53.8)	52(100.0)
	군·읍·면	3(6.3)	1(2.1)	4(8.3)	20(41.7)	20(41.7)	48(100.0)
계		5(2.8)	4(2.2)	16(9.0)	72(40.4)	81(45.5)	178(100.0)
보직별	학장·부학장	0	0	0	1(100.0)		1(100.0)
	장급행정직	0	1(4.3)	0	11(47.8)	11(47.8)	23(100.0)
	일반행정직	1(2.2)	1(2.2)	5(11.1)	18(40.0)	20(44.4)	45(100.0)
	산협행정팀장	0	0	1(11.1)	6(66.7)	2(22.2)	9(100.0)
	학과장	2(6.3)	1(3.1)	4(12.5)	9(28.1)	16(50.0)	32(100.0)
	보직교수	2(5.0)	1(2.5)	3(7.5)	17(42.5)	17(42.5)	40(100.0)
	기타	0	0	3(12.5)	8(33.3)	13(54.2)	24(100.0)
계		5(2.9)	4(2.3)	16(9.2)	70(45.4)	79(45.4)	174(100.0)

(χ^2=6.908, p ■.05 / χ^2=14.590, p ■.05)

<표 Ⅳ-62> 계속교육을 위한 교육비의 부담자 (단위: 명, %)

구분 \ 항목	학생	학교	산업체	학교와 산업체	정부	계
서울·광역시	3(4.4)	0	28(41.2)	19(27.9)	18(26.5)	68(100.0)
중소도시	2(4.8)	1(2.4)	12(28.6)	13(31.0)	14(33.3)	42(100.0)
군·읍·면	5(12.5)	0	13(32.5)	7(17.5)	15(37.5)	40(100.0)
계	10(6.7)	1(0.7)	53(35.3)	39(26.0)	47(31.3)	150(100.0)

(χ^2=9.310, p ■.05)

"계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산업체가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대답이 35.3%,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31.3%,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26.0%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Ⅳ-63> 계속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구분 \ 항목	교육 시설 확충	교수 확보	정부의 행·재정 지원	실질적 산학 협동	대학의 자율적 운영권	계
서울·광역시	33	8	44	45	21	151
중소도시	26	4	29	23	14	96
군·읍·면	20	10	23	30	10	93
계	79	22	96	98	45	340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복수응답 가능),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6명, 실질적 산학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자는 98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시점에서의 전문대학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하겠다.

5. 계속교육 강화 전략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위에서 제시한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64> 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운영 (단위: 명, %)

구분 \ 항목	전혀 불가능	약간 불가능	보통	약간 가능	매우 가능	계
서울·광역시	0	5(6.2)	21(25.9)	33(40.7)	22(27.2)	81(100.0)
중소도시	0	4(8.0)	13(26.0)	23(46.0)	10(20.0)	50(100.0)
군·읍·면	2(4.1)	9(18.4)	13(26.5)	14(28.6)	11(22.4)	49(100.0)
계	2(1.1)	18(10.0)	47(26.1)	70(38.9)	43(23.9)	180(100.0)

(χ^2=12.953, p ■.05)

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약간이나마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38.8%, 매우 실현가능하다는 의견이 23.9%로 나타났으며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1.1%에 그치고 있다.

비록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군·읍·면의 경우, 실현 가능하다는 수치가 다소 떨어지는 양상(51.0%)을 볼 수 있다.

<표 Ⅳ-65> 산업기사 이상의 직무중심 교육과정개발 (단위: 명, %)

항목 / 구분	전혀 불가능	약간 불가능	보통	약간 가능	매우 가능	계
서울·광역시	1(1.2)	4(4.9)	20(24.7)	34(42.0)	22(27.2)	81(100.0)
중소도시	0	4(8.0)	20(40.0)	21(42.0)	5(10.0)	50(100.0)
군·읍·면	0	2(4.2)	18(37.5)	18(37.5)	10(20.8)	48(100.0)
계	1(0.6)	10(5.6)	58(32.4)	73(40.8)	37(20.7)	179(100.0)

(χ^2=9.306, p ■.05)

산업기사 이상의 수준에 준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은 61.7%이다. 특히, 전체의 20.7%는 매우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의견 또한 32.4%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Ⅳ-66> 자격갱신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개발 (단위: 명, %)

항목 / 구분	전혀 불가능	약간 불가능	보통	약간 가능	매우 가능	계
서울·광역시	0	4(4.9)	26(32.1)	32(39.5)	19(23.5)	81(100.0)
중소도시	0	3(6.0)	19(38.0)	17(34.0)	11(22.0)	50(100.0)
군·읍·면	0	4(8.3)	22(45.8)	15(31.3)	7(14.6)	48(100.0)
계	0	11(6.1)	67(37.4)	64(35.8)	37(20.7)	179(100.0)

(χ^2=3.934, p ■.05)

그저 그렇다는 의견(37.4%)을 중심으로 각각 35.8%와 20.7%가 약간 가능하

거나 매우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6.1%에 불과하다.

<표 Ⅳ-67> 전공심화과정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전혀 불가능	약간 불가능	보통	약간 가능	매우 가능	계
서울·광역시	0	7(8.6)	16(19.8)	32(39.5)	26(32.1)	81(100.0)
중소도시	0	3(6.0)	10(20.0)	24(48.0)	13(26.0)	50(100.0)
군·읍·면	1(2.1)	2(4.2)	15(31.3)	19(39.6)	11(22.9)	48(100.0)
계	1(0.6)	12(6.7)	41(22.9)	75(41.9)	50(27.9)	179(100.0)

(χ^2=7.295, p■.05)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69.8%이며 응답자의 27.9%는 매우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반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7.3%에 그치고 있어 대조적이다.

<표 Ⅳ-68> 원격교육과정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전혀 불가능	약간 불가능	보통	약간 가능	매우 가능	계
서울·광역시	1(1.2)	11(13.6)	37(45.7)	24(29.6)	8(9.9)	81(100.0)
중소도시	0	5(10.0)	15(30.0)	16(32.0)	14(28.0)	50(100.0)
군·읍·면	3(6.3)	6(12.5)	12(25.0)	19(39.6)	8(16.7)	48(100.0)
계	4(2.2)	22(12.3)	64(35.8)	59(33.0)	30(16.8)	179(100.0)

(χ^2=16.500, p■.05)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은 49.8%이며 상당히 가능하리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35.8%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간 또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14.5%이다.

한편, 행정단위별로 각각 39.5%, 60%, 56.3%가 가능하다고 대답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5).

<표 Ⅳ-69> 기사자격취득과정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전혀 불가능	약간 불가능	보통	약간 가능	매우 가능	계
서울·광역시	0	5(6.2)	26(32.1)	26(32.1)	24(29.6)	81(100.0)
중소도시	0	5(10.0)	11(22.0)	25(50.0)	9(18.0)	50(100.0)
군·읍·면	0	1(2.1)	15(31.3)	21(43.8)	11(22.9)	48(100.0)
계	0	11(6.1)	52(29.1)	72(40.2)	44(24.6)	179(100.0)

(χ^2=80.133, p ■.05)

기사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은 64.8%이며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6.1%를 나타내고 있다. 약간이나마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6.1%에 불과하여 대조를 이룬다.

<표 Ⅳ-70> 주문식 교육과정확대 (단위: 명, %)

항목 / 구분	전혀 불가능	약간 불가능	보통	약간 가능	매우 가능	계
서울·광역시	0	8(9.9)	18(22.2)	36(44.4)	19(23.5)	81(100.0)
중소도시	2(4.0)	6(12.0)	16(32.0)	13(26.0)	13(26.0)	50(100.0)
군·읍·면	1(2.1)	3(6.3)	14(29.2)	17(35.4)	13(27.1)	48(100.0)
계	3(1.7)	17(9.5)	48(26.8)	66(36.9)	45(25.1)	179(100.0)

(χ^2=8.197, p ■.05)

주문식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72.0%이며 상당히 가능하리라는 반응이 25.1%에 달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26.8%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간 또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각각 9.5%와 1.7%를 보인다.

<표 Ⅳ-71> 시간제등록생의 확대 (단위: 명, %)

항목 / 구분	전혀 불가능	약간 불가능	보통	약간 가능	매우 가능	계
서울·광역시	1(1.2)	9(11.1)	24(29.6)	31(38.3)	16(19.8)	81(100.0)
중소도시	1(2.0)	9(18.0)	15(30.0)	15(30.0)	10(20.0)	50(100.0)
군·읍·면	2(4.2)	6(12.5)	13(27.1)	18(37.5)	9(18.8)	48(100.0)
계	4(2.2)	24(13.4)	52(29.1)	64(35.8)	35(19.6)	179(100.0)

(χ^2=3.070, p ■.05)

시간제등록생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45.4%의 응답자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답을 유보하는 입장은 29.1%이며 약간이나마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5.6%이다.

<표 Ⅳ-72> 학점은행제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전혀 불가능	약간 불가능	보통	약간 가능	매우 가능	계
서울·광역시	1(1.3)	9(11.3)	12(15.0)	30(37.5)	28(35.0)	80(100.0)
중소도시	0	3(6.0)	11(22.0)	26(52.0)	10(20.0)	50(100.0)
군·읍·면	2(4.2)	7(14.6)	11(22.9)	18(37.5)	10(20.8)	48(100.0)
계	3(1.7)	19(10.7)	34(19.1)	74(41.6)	48(27.0)	178(100.0)

(χ^2=11.014, p ■.05)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67.7%이며 전체응답자의 27%는 상당히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약간 또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2.4%에 불과하다.

<표 Ⅳ-73> 독학사제도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전혀 불가능	약간 불가능	보통	약간 가능	매우 가능	계
서울·광역시	6(7.4)	16(19.8)	29(35.8)	20(24.7)	10(12.3)	81(100.0)
중소도시	0	13(26.0)	21(42.0)	13(26.0)	3(6.0)	50(100.0)
군·읍·면	5(10.4)	16(33.3)	19(39.6)	5(10.4)	3(6.3)	48(100.0)
계	1(16.1)	45(25.1)	69(35.8)	38(21.2)	16(8.9)	179(100.0)

(χ^2=12.825, p■.05)

독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은 30.1%에 불과한 반면 약간이나마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41.2%를 차지하고 있어 여타의 항목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보적인 응답자의 비중 또한 주목할 만한 수준(35.8%)이다.

<표 Ⅳ-74> 시간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 (단위: 명, %)

항목 / 구분	전혀 불가능	약간 불가능	보통	약간 가능	매우 가능	계
서울·광역시	3(3.7)	11(13.6)	26(32.1)	28(34.6)	13(16.0)	81(100.0)
중소도시	1(2.0)	10(20.0)	14(28.0)	21(42.0)	4(8.0)	50(100.0)
군·읍·면	1(2.1)	8(16.7)	24(50.0)	13(27.1)	2(4.2)	48(100.0)
계	5(2.8)	29(16.2)	64(35.8)	62(34.6)	19(10.6)	179(100.0)

(χ^2=11.132, p■.05)

시간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약간 또는 상당히 가능하다는 의견은 각각 34.6%, 10.6%를 나타내고 있다. 유보적인 입장은 35.8%이며 약간이나마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7.0%에 그치는 모습이다.

6. 시사점

가.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전문대학에서 수행해야 하는 계속교육의 기능에 관하여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 성인 근로자의 직무향상 기능, 취약 계층 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능,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자격증 취득 기능, 재취업 훈련 교육 기능, 학점 은행제 관련 기능, 전공심화과정 기능, 실업계 고교와 연계한 전문 직업 교육 기능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계속교육 관련 기능들에 대한 질문에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그 교육수혜자들을 전문대학 졸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직무향상교육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육 계층에게 제공하는 직무향상교육에서부터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기능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이 전문대학들로 하여금 전문적이고 특화된 직업인 양성에 관련된 계속교육의 운영이 아닌 시중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취미, 교양 및 예·체능 교육까지 운영하게 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현실은 전문대학의 기능을 특성화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전문대학의 교육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한편, 전문대학의 관계자들은 산업체와 관련된 연계항목에 대해 매우 강하게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전문대학이 정규과정뿐 아니라 계속교육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특성화를 살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취업과 직결되는 교육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산업체와의 협력 활성화

전문대학은 계속교육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계속교육의 실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계속교육에 참여하는 산업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산업체의 계속교육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상당부분 계속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고 해도 계속교육에 참여하는 산업체가 영세할 경우에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대답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이 계속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산업체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당국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며 국가적 차원의 자금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공공기관의 협력 및 지원 방안 마련

산업체와 더불어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사업에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축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4.5%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공기관이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비용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 또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속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전공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연계

설문 조사와 면담조사 결과 전문대학의 관계자들은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방안 가운데 "전공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관계자들과의 면담조사에 의하면 전공심화과정, 시간제등록, 학점은행제를 연계 운영하여 학습자들이 목표로 하는 계속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공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연결하여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로 개설된 과정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고 목표한 학위에 부족한 학점은 전일제 정규과정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62.8%가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전공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전문대학이 2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 삼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 시간제 등록생의 확대

면담 조사결과에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강화 방안으로 중요하게 요구되었던 시간제 등록생의 확대에 대한 설문 응답에는 58.9%가 그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도시 및 군·읍·면에 위치한 전문대학의 경우 시간제 등록생의 확대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전체의 40% 가까이 시간제 등록생 확대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체로 시간제등록의 확대가 필요한 사항임에는 공감하였지만, 학습생이 필요로 하는 교과목에 등록하는 인원만으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인원이 모집될지는 상당히 불확실하고, 학기별로 필요한 교과목만을 등록하는 인원에 대한 학사관리의 문제나, 시간제등록생의 경우 전일제 학생과의 수강료 및 학점인정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시간제등록생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바. 학점은행제 및 재교육의 활성화

면담 조사 및 설문 조사 결과는 전문대학이 계속교육 강화 방안으로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었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평가 인정과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기관 선택 폭이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전문대학 관련자들은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재교육 또는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별, 보직별로 그 필요성의 경중에 관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과정이 교육경쟁력 향상에 90% 이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했다.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의 수행은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역사회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되고, 비정규 계속교육과정 학습자들을 전문대학의 고객으로 유치하면서 전문대학의 재정적 자립도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재투자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전문대학 본래의 설립 목적을 왜곡시키며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산업기사 이상의 직무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다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이 전략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다수가 긍정적인 답을 했지만, 면담 조사 결과 많은 전문대학이 교육수혜자들의 직무중심 교육 요구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사. 계속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참여 교수에게 인센티브 지급

면담 조사결과 전문대학 계속교육과정들의 상당 부분이 정규 교수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정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전공심화과정 및 학점은행제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우수하고 전문화된 교원에 의해서 계속교육이 운영되는 방안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 산업체 및 정부의 재정 지원 활성화 방안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계속교육운영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체의 협력부족이며 산업체와의 협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계속교육에 관한 산업체의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계속교육에 지원하는 산업체의 협력부족 이외에도 계속교육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산업체 근무자들의 자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계속교육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너무 영세하여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임을 나타냈다. 대기업의 경우, 사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업체와의 위탁과정을 정규과정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많아졌고, 이런 경우 재정지원은 기업이 하고 있으나 산업체와의 협력의 대부분은 여전히 영세한 기업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영세한 중소업체들과의 산학협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애로점은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계속교육에 지원되는 시설, 인원, 기구 등의 규모가 상당히 미비하고 이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계속교육을 원하는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별

홍보만으로는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습생에게 계속교육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설문 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관련전공교원의 협조 및 이해부족, 기자재와 시설의 부족, 계속교육에 대한 이해 및 운영능력의 부재 등에 어려움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계속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을 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산업체 외의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강화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계속교육에 대한 이해의 확산, 교육의 질을 보존할 수 있는 교원의 확보,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 방안

1. 전문대학 계속교육에 대한 종합적 논의

현재 전문대학은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전문대학 진학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대학 학생자원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문대학 학생의 질은 떨어지는 반면, 산업체에서는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보다 심화된 전문능력과 응용력을 갖춘 졸업생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자원의 질과 기대하는 교육산출과의 간격이 크다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전문대학 졸업생 및 성인의 입장에서는 재학시절 실제 직업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보다는 원론적인 내용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직업생활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직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제에서 졸업생에 대한 관심이나 계속교육의 장치는 미비하고 그 질적 수준도 떨어진다. 따라서 전문대 졸업생 및 성인학습자는 계속교육의 책임 및 의무를 순전히 혼자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은 우선 성인의 재교육과 계속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인중심의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열린 학사운영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산업체를 비롯한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문·면담조사와 외국의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정규과정에 입학하기 어려운 계속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제도상의 문제점

전문대학에서 일반 성인이나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계속교육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속교육제도들은 학습대상의 시간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간제 등록제와 전공심화과정의 수강생의 대부분이 직장을 가진 학생인데 직장에서 시간제 등록의 기회를 주지 않고, 등록 자격에 제한이 있으며, 실제로도 시간이 부족하여 수학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계속교육과정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이들 과정의 등록생의 자격을 완화하고, 그들이 시간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기제의 다양화와 수업시간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위취득의 목적을 위해 수강하는 성인들을 위한 시간제 등록제, 정원외 입학, 전공심화과정 등의 수강생을 위한 교과목은 많이 개설하고 있는 반면에 학위취득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직업교육만을 수강하기를 원하는 성인들을 위해서는 가능한 교과목의 개설을 외면하고, 교과운영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가 거의 없다.

그리고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보았듯이, 계속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지역의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 부족

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교육의 질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산업체와 공공기관의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전문대학의 과오라기보다는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4년제 대학 중심의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입학생의 감소와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의 폭발적 증대로 인해,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지원처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고, "전문직업인의 양성기관"으로서의 학생들의 질적 수준의 확실한 책임과 보장체제가 미흡한 관계로 그나마 졸업생의 실

력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다.

<표 Ⅴ-1>과 같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선택기준"에 대한 결과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문대학 소신지원이 11.2%에 불과하다.

<표 Ⅴ-1> 고등학생들의 대학 선택기준 (단위 : %)

구분	선호도
일류대학	15.4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35.7
거주지 근처의 4년제 대학	15.6
4년제 대학 어디든 가겠다	4.7
전문대학이라도 가겠다	13.4
처음부터 전문대학에 가겠다	11.2
무응답	4.0
계	100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고등직업교육체제 개혁. p. 86.

이러한 전문대학에 대한 불신은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대우에서도 볼 수 있다. <표 Ⅴ-2>와 같이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는 현저히 감소 추세이지만, 전문대학 졸업자와 대졸자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도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대우가 차별적이며, 이는 주로 사회적 편견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Ⅴ-2> 학력별 임금 격차 (단위: %)

연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1980	72.7	100	145.7	217.3
1998	87.5	100	106.6	149.0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고등직업교육체제 개혁. p. 87.

전문대만의 계속직업교육에 대한 노하우나 특성을 살리지 못함

전문대학은 계속교육기관이 별도로 없이 대학 편입, 학점은행제, 기술대학 학사과정, 독학사과정 등을 통하여 상위단계 학위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 외에 전문대학이 계속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4년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정" 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은 대부분 일반 성인대상의 교양교육이거나, 기초 기술교육에 머물고, 시설이나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4년제 대학과 비슷하거나 수준이 낮아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 교원의 유인 체제 미흡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재 전문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산업현장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대학 교수의 현장 경험 및 현장 직무 수행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수로 임용하기 위한 유인 체제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현재 전문대학의 교수 평가 기준이 연구 결과 중심으로 설정됨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주된 업무보다 연구 논문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되는 연구도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 연구보다는 교수의 전공 관련 연구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들의 직업기술교육 기회의 미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미약하다. 이로인해 급증하고 있는 재활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요의 충족이 곤란하다.

또한 특수교육기관간 연계교육체제 미흡으로 장애인들의 계속교육 곤란하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노력이나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다.

<표 Ⅴ-3> 특수교육 관련 고등교육기관 현황

구분	설치현황	비고
정규 교육기관	▪"국립특수전문대학" 설립 추진	▪2002. 3월 개교 예정
	▪고등교육과정 설치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 59학급	▪1 3년의 전문대학 수준의 특별교육과정
직업 전문학교	▪일산, 대전, 부산 등 3개 기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위해 전문대학 수준의 특별교육과정 운영
특수 교사 양성 기관	▪대학 15교, 특수교육대학원 3교, 교육대학원 20교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1). 전문대학 발전방안. p. 20.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을 둘러싼 내적·외적 요인들의 변화로 인해 전문대학이 성인대상 계속교육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학생선발과 등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의 학사운영방안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졸업생이 계속하여 상위단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속교육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된 외국사례와 설문·면담조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대학교육의 질 관리체제 구축

외국 전문대학에서 자격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선도하는 성취 기준

이 되며, 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제도가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하고, 자격취득이 교육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의 자격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을 통해 현장성과 효용성을 강화함으로써 자격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계속교육의 질 수준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교육 운영체제를 확립

최근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안·밖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의 하나로 성인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개방된 교육운영체제 내에서 학생 선발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이 필요에 따라 전공과 학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외국의 경우, 국가에서 요구하는 학위나 자격과정은 물론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대학에서는 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자격과정, 편입학 과정, 직업기초과정, 산학협력과정, 직무향상 및 전환교육과정, 창업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나간다.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 및 다양성을 대폭적으로 보장

현행과 같이 정부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전문대학의 운영 구조 속에서는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다양성이나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계속교육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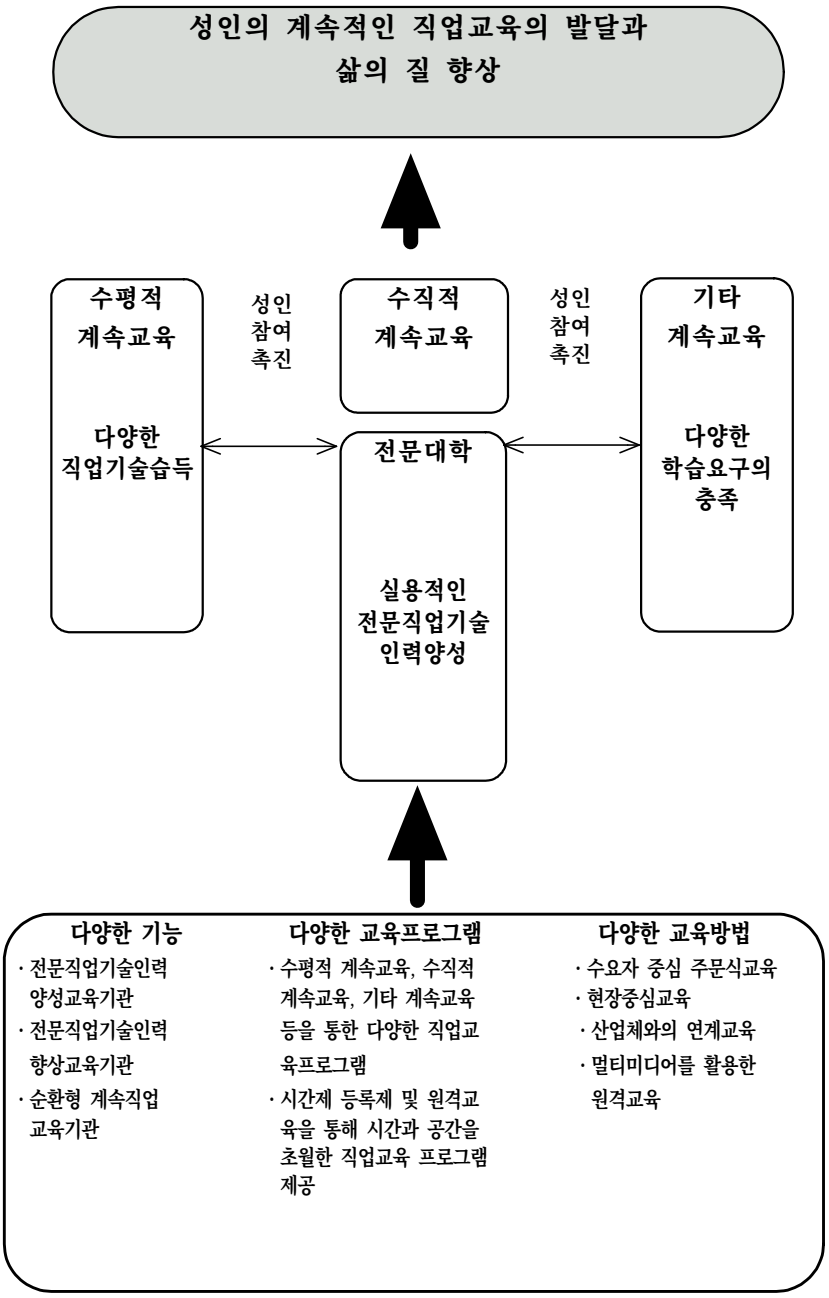
전문대학이 실무 중심의 전문직업교육을 강화

외국의 경우, 성인 중심의 계속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선행적으로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이나 호주, 독일의 경우, 이미 직업교육 개발과정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역사회대학은 주문식 교육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계열·학과의 세부 전공 운영 지침의 마련 및 시간제 등록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전공, 전공관련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 등 직업 또는 전공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문대학 계속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을 때,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적 강화", "다양하고 개방적인 학사운영체제의 확립" 그리고 "전문대학 본래의 기능인 "전문직업인의 양성"에 주력"과 같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이자 종합적 토론의 장으로서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 방안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전문대학 계속교육에 대한 실태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얻어진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은 〔그림 Ⅴ-1〕과 같다.



〔그림 Ⅴ-1〕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강화방안의 구상

가.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 방향

1)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질 제고

단기고등직업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질을 향상

평생교육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전문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 동안의 평생교육이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의 하나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비전문적, 비직업적인 교육을 전문대학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평생교육은 전문적, 직업적 계속교육으로 한정된다.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비전문적, 비직업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평생교육은 전문적, 직업적 계속교육으로 한정된다. 현재, 전문대학에서는 평생교육의 이름으로 비전문적 또는 비직업적 평생교육과 전문적 또는 직업적 평생교육인 계속교육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종 비전문적 또는 비직업적 평생교육에 역점을 두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단기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위상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위상의 변화는 전문대학 무용론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비전문적 또는 비직업적 교육활동이 팽배하면서 단기고등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격을 고용의 조건으로서 기업이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더구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외국 기업이 국내로 진출하고 우리 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때에는 우리 나라 전문대학 졸업자의 자격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있게 마련이다.

2) 엄격한 평가방법 도입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엄격한 평가방법을 도입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교육과정·평가의 일반이 그렇듯이, 전문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의 평가도 그다지 엄격하지 못하다. 그 결과,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졸업생이 배출되고 기업은 전문대학 졸업생의 학업성취도를 불신하게 된다. 더구나 비정규교육과정에서 평가란 거의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비정규교육과정의 결과를 사후에 자격 또는 학위 취득을 위한 사전학습 경험으로 인정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 엄격한 평가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평범한 개방 영역과 고귀한 폐쇄 영역을 공존시키고 각 교육단계마다 자격 있는 자만을 선발하는 엄격하고 신뢰받는 평가제도를 구축한 프랑스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바깔로레아(baccalauréat)라는 고등교육기관 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고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자 모두 원하는 대학(université)에 다닐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 중 대학은 이처럼 개방되어 있지만 그랑제꼴(grandes écoles), 고등교육단기과정(IUT,STS)과 특수 학교(의대, 치대, 수의대, 건축학교)는 바깔로레아와 함께 선발시험을 요구하는 폐쇄 영역에 속한다. 폐쇄영역에 속한 기관 중 특히 그랑제꼴은 세속화, 민주화, 평등화의 특성을 내포하는 프랑스 교육사 속에서 매우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 전체 학생의 약 6% 정도가 입학하며 최고급 엔지니어, 경영, 행정이라는 주로 직업과 밀착된 학교와 최고의 사상가나 학자를 배출하는 파리고등사범학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명한 고등학교(루이 르그랑 고등학교, 앙리 IV 고등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그랑제꼴 준비반에 선발시험을 거쳐 들어가 약 2년 정도 교육을 받은 후 또 다시 선발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들 선발시험은 매우 어려워 소수의 수재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랑제꼴에 일단 입학하면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장학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학 중에도 매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졸업 후의 삶이 완전히 보장된다. 이 학교 출신들이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는 반면, 60 70%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 출신들은 사회의 일반직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중적 시스템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대중에게 무한대로 열려 있고 둘째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기능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립행정학교 (ENA : 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는 한해 20명의 학생을 모집하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그랑제꼴(예를 들면, 시앙스포: 정치학교)을 졸업하고 상당한 정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20명은 졸업할 때 성적에 따라 1부터 20까지의 순위를 받게 되는데 이 순위에 따라 고위직 가운데에서도 요직을 받게 된다.

그랑제꼴은 선발시험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키기 때문에 개인적 사정이 없으면 모든 입학자가 졸업을 하게 되지만 대학의 경우 제1학년 과정 수료 시험에 50% 정도가 낙방하며 그 이후의 학위인 DEUG(대학 2학년째 학위), Licence(DEUG + 1년), Maitrise(Licence + 1년), DEA(Maitrise + 1년), Doctorat(DEA + 3 5년) 등에서도 각각 50% 정도 낙방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다.

이 과정은 인문교육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전통에 따른 가장 고전적인 절차인데 이 절차를 구성하는 각 단계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직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있다.

어떤 교육을 막론하고 선발은 20점 만점에서 1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평가제도에 근거하는데 구두시험과 필기시험을 하는 평가방식을 채택한다. 이때 시험관의 자격과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프랑스 평가제도의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은 모두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평가의 결과에 대한 불신은 전혀 없다.

3) 우리 나라 직업교육체제의 근간 유지

우리 나라 직업교육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대학 계속교육을 강화

전문대학은 중견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역할은 하나의 직업교육체제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기술과 지식의 변화로 교육내용과 수업연한 그리고 학습방법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위계화 된 직업교육체제 내에서 최고의 자격과 비교하였을 때 한 단계 낮은 교육을 전문대학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위배하는 조치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전문직업교육활동으로서의 계속교육에 집중

애매모호한 평생교육보다는 전문직업교육활동인 계속교육에 집중

전문대학의 심화과정을 학위 수여의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과 동등하게 만들려는 비정상적인 의도도 문제이지만 수준 이하의 계속교육과정을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나라 직업교육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의도도 문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에서는 손쉽고 장사가 잘 되는 지역 주민 대상의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위상을 침해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교육 기능을 평생교육체제 내에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취미활동 수준의 평생교육보다는 전문대학의 설립 목적을 적절히 고려한 평생교육, 즉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우수 교원 확보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유인 체제 강화 및 교수관련 노동 시장 유연화

산업체 현장 경력 소유자의 교수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이들의 현장 경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교수관련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 입직 교수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생의 교육 지도에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산업체 현장 경력이 높은 교수는 전문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산학협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수 평가시 우수 산학협동 실적과 기술개발 실적을 주요 평가지표로 제시함으로써, 전문대학에서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나. 수평적 계속교육 강화 방안

1) 정원 외 등록 시 중복 과목 면제

정원 외 등록의 경우 정규교육보다는 계속교육의 틀 안에서 교양과목과 기본공통과목을 면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총 학생 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전 단계의 교육을 통해 이수한 교양과목이나 기본공통교과목을 재 이수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전 단계의 정규 교육과정에서나 경험학습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요즈음의 기술이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교육을 수직적으로 생각

하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주는 이점을 제공한다.

다. 수직적 계속교육 강화 방안

1) 경험학습과 직업경험 인정 제도 구축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결과를 경험학습으로 인정하고 직업경험을 학습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구축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자본은 직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받고 그 교육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지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개인의 지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경력은 개인의 업무 수행의 역사이므로 경험학습의 인정은 경력의 인정 또는 자격화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경력을 통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학력을 포함하면서도 그 허세를 제거한 실제 직무에 유용한 지식의 학습만을 고려할 수 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지적 자본 중 가시화된 지적 자본뿐만 아니라 비가시화된 지적 자본도 포착할 수 있으며 임금을 받고 제공한 노동력 속에서 지불된 지적 자본과 지불되지 않은 지적 자본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

지적 소유 자산, 문화 자산, 인프라 자산, 시장 자산, 인간중심 자산 등 지적 자본을 구성하는 다섯 개 범주는 경력을 인정하여 학점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평가의 다섯 개 주요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에 열거된 지적 자본을 구성하는 다섯 개 범주의 항목들 가운데 추상성이 높은 항목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형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은 관리여하에 따라서 조직체의 성과와 개인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경제·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의 확보와 개발 등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력과 태도는 학력과 시험에 의해 취득된 각종 자격증을 통해서 사회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능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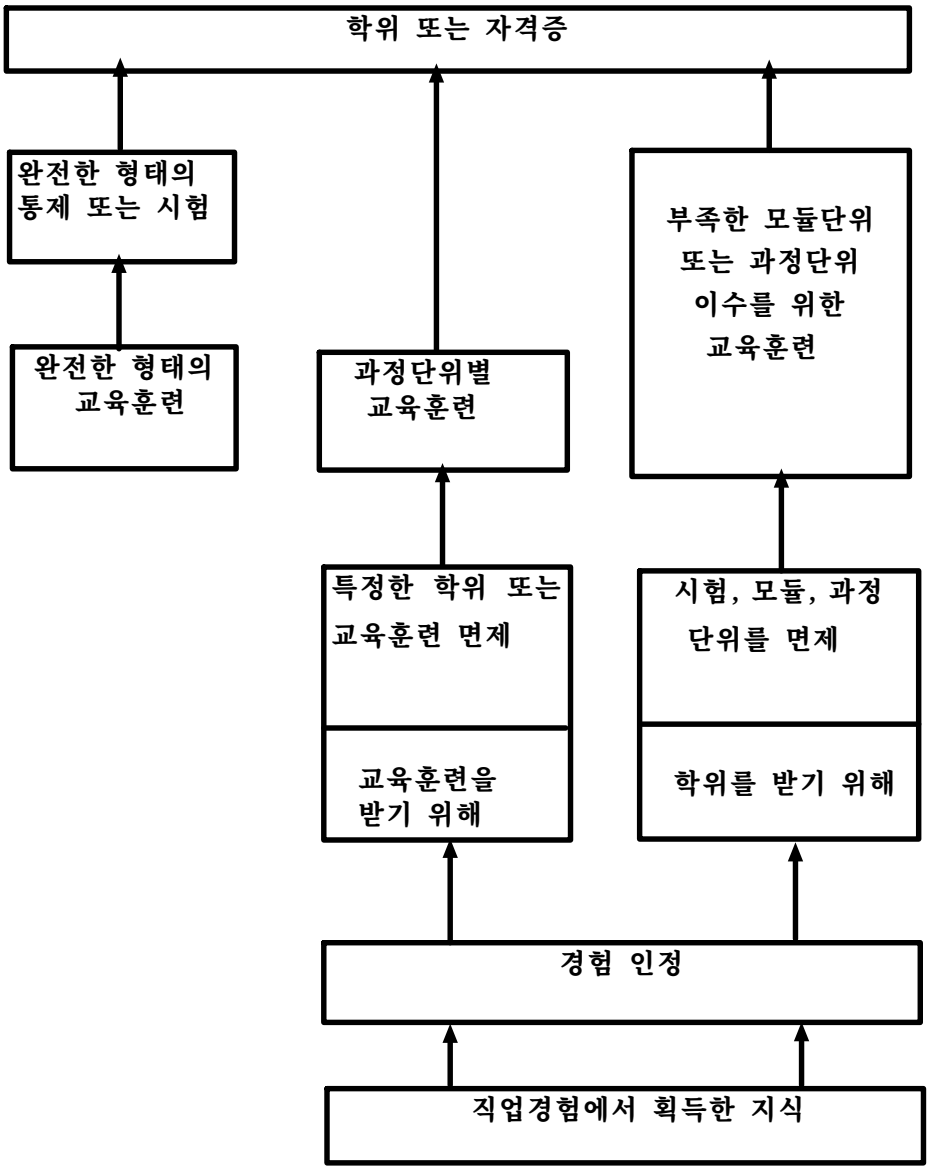
태도는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사람들은 학력과 자격증이 낮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경험을 통하여 기술 및 지식을 많이 보유하게 되어 사회에서 인정과 명성을 얻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개인의 교육·훈련사항, 자격취득사항, 그리고 직장경력을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기술축적 사항을 통계처리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만 18세가 되면 교육훈련기관 졸업 및 수료사항, 국가 및 민간자격취득사항, 그리고 직장경력을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기술을 측정한 사항을 네트워크에 등록하여 보관한다. 보관방법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세분화된 직업별로 분류하여 보관하며 이를 교육부, 노동부 및 각 부처의 정보전산망과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교육훈련, 고용 등에 활용한다. 개인의 능력을 다양하게 인정하려는 취지는 기업체나 산업체에서의 인적 자원 관리라는 현실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개인이 지닌 경력이 직업 능력으로 변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이 지닌 능력을 다양하게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전문직이나 기술직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산·관·학의 교류가 촉진되도록 업적과 직업경력, 학습경력을 적절히 평가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에 만연한 학력 편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기업, 관공서의 채용 인사 등의 개선에 노력하며, 공적 직업자격 제도의 개혁에 의해 일생에 걸쳐 개인의 경력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사회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다.

개인의 경험을 수록하는 방법으로는 "포트폴리오"(Portfolio) 방법이 있다. 직업경험 평가위원회(가칭)는 그 안에 기록된 교육경력, 직업교육훈련 경험, 전직경험, 직무경험, 자격 및 면허 등을 평가한다. 평가의 결과는 경력구좌제를 통하여 관리될 수 있는데 개인의 다양한 직업 경험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누적된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평생 학습 사회, 열린 학습 체제의 관점에서는 학위 또는 자격은 전통적인 학교 체제에서의 교육적 성취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학습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림 Ⅴ-2〕는 직업경험이 학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림V-2] 직업경험을 통한 학위취득의 방법 비교

위 그림은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세가지 통로를 제시하고 있다. 좌측 통로는 직업경험과 관계 없는 전통적인 형태의 교육훈련을 통한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방법이다. 중앙통로는 직업경험을 인정받고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과정단위별로 산발적으로 이수하는 방법인반면, 우측통로는 직업경험을 인정받고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면제된 과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방법이다.

2) 학위등록기관과 학습기관의 분리

우리 나라 직업교육체제 내에서 전문대학의 본래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학위등록기관과 학습기관을 분리

전문대학 계속교육의 결과를 경험학습으로 인정하고 직업경험을 학습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구축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전문대학에서 원래 수여하는 전문학사학위 보다 높은 수준의 학위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전문대학의 역할을 포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을 강화하되 우리 나라 직업교육체제 내에서 전문대학의 본래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위등록기관으로는 학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대학 또는 관련 고등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전문대학은 전문학사와 학사 또는 산업기사와 기사 사이의 심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습전담기관이 되도록 한다.

3) 학습조직 연계 계속교육과정 구축

기업의 학습조직과 연계한 계속교육과정을 구축

최근 학습조직은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학습조직은 일정한 조직의 유형이 아니라, 조직의 중요한 생존전략 또는 이념으로 간주된

다.

학습조직의 학습유형은 조직 내 학습의 수준에 따라 조직학습, 집단학습, 개인학습 등으로 구별된다. 조직학습은 조직 전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하고, 집단학습은 조직의 일부 구성원들의 집단에 의한 학습을 의미하며, 개인학습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조직학습은 전통적으로 기업이 수행해 온 근로자 향상훈련과 전체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자기주도적 특성의 차원에서 보면 대립적이다. 즉, 조직학습에서는 학습의 목적이나 목표를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와 합의 결과에 따라 선정한다는 것이다. 집단학습에서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집단의 일부 구성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 목적과 목표를 선정하고 조직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간다. 자기주도학습의 가장 첨예한 형태인 개인학습에서는 개개인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한다.

학습조직을 위한 기반으로서 갖가지 제도가 조성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에서도 학습조직운동은 지식기반사회의 기업경영전략과 맞아 떨어져 활발히 수행될 것이다.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바로 학습조직 운동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학습조직이 조직, 집단, 개인 등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수준에 적절한 형태의 계속교육과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간의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단기간 즉, 단 몇 시간 또는 2 3일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의 차원에서 볼 때, 자발적 학습활동이 진행되는 중간이거나 종료시점에서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많은 지식은 기본적으로 이미 학습된 상태이므로, 이때 제공되는 계속교육과정은 매우 핵심적이거나 전문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모듈식 구성방식을 채택함이 좋을 것이다. 대학의 교수는 학교에서 학생을 기다리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시한 홍보자료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에 출장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계속교육 기능 활성화 전제조건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을 활성화하는 전제조건으로 학습에 관한 노사 합의체제 또는 사회동반자체제를 구축

우리나라의 학습조직운동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소수의 대기업조차도 주로 집단학습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습이 비공식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로 간주할 수 없어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에서 그러하듯이 고용주가 관장하는 기업주도의 훈련 이외의 여러 가지 종류의 자기주도적 훈련계약제도를 제도화시킨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자신을 위한 학습을 조직할 것이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이며, 기업의 학습문화는 자연히 조성될 것이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학습의 권리를 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환경조성의 출발점은 당연히 근로자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이며, 학습에 관한 노사 합의체제 또는 사회동반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성원 외(1999).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성원(1999). "21세기 전문대학의 발전방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 제23호. pp. 4-18.

강순희 외(1998). **호주·뉴질랜드의 직업교육 훈련체제 개혁과 시사점**.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강인구(1998). "전문대학교육의 미래 방향". 『전문대학의 현재와 미래』 제1회 전문대학교육정책포험, pp. 3-14.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I)**.

교육부(1999a). **교육통계연보.**

_____(2000b). **평생교육백서.**

_____(2000a).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현황**.

_____(2000b). **평생교육국 내부 자료**.

_____(2001). 전문대학 발전방안.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 **통계로 본 미국교육.**

교육부 외(2000).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과 과제**.

구자균 외(1998). 사립전문대학의 구조조정 방안 연구, 교육부. 교육정책개발연구과제.

권대봉(2000). 평생교육의 다섯 마당. 학지사

권두승(2000). "개방형 전문대학체제의 정착과 학점은행제". 『전문대학소식』 제3호, 2-6.

기영화(1998). "전문대학의 위기관리적 위탁교육 체제". 『전문대학교육』 제31호, 27-33.

김경식(1996). "산학협동 활성화 방안". 『전문대학교육』 제21호.

김규성(1998). "전문대학 취업활성화 방안". 『전문대학교육』 제31호,

40-44.

김길자 외(2000). 전문대학 평생교육 체제화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상호(1995). "직업교육의 산학협동 개혁 방향". 『직업교육연구』 제14권 1호.

_____(1998).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특성화". 『교육월보』 199호.

김상호 외(1995). "전문대학교육 체제혁신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제22집.

김신일 외(2000).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김양혁(1996). "전문대학의 위기와 발전 방안". 『전문대학교육』 제20호, 57-65.

김영환(1995). "직업교육체제개혁과 전문대학 발전". 『전문대학교육』 제16호, 26-31.

김유배(1998). 21세기 직업전망, 21세기 직업전망과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호동(1997). "직업교육 내실화와 전공심화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식 교육 및 스터디 그룹운영 사례". 21세기 전문대학의 비전과 개혁-교육개혁추진 심포지움.

_____(2000a). "고등교육의 전망과 전문대학의 대응". 제2회 전문대학 교육정책포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_____(2000b). "전문대학수업 연한 탄력적 운영방안". 전문대학수업 연한에 관한 확대간담회 자료.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나영선 외(1998). 『고용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조사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외(1999). 『산업체 재취업교육의 종합평가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수(1997).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도입과 전개방향-전문대학을 중

심으로". 『부산경상전문대 대학발전연구』 제17호, 201-236.

박재규(1997). "21세기 대학교육의 변화와 전망". 『전문대학교육』 24(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p 4 9.

박효식(1998). "전문대학 구조조정 이렇게 하자". 『전문대학교육』 제29호, 13-15.

백은순 외(1998). 『학점은행제 운영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변호걸(2000). "직업교육에 대한 재개념화". 『전문대학교육연구』 2(1).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pp. 15 20.

성하원 외(1998). **21세기 전문대학 정원의 합리적 수급조정 방안**.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신영철(1998). "전문대학의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방안 모색". **21세기 전문대학의 진로와 경영쇄신, '98년도 전국전문대학장 세미나**.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신익현(2000).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의 탄력적 운영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규철(1999). **대학의 시간제학생 등록제**. 서울: 집문당.

안성로 외(1997). "미국 Tech Prep 사례분석을 통한 2+2 연계교육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16권 1호, 51-70.

어수해(1993). "산학협동 체제의 연계방안". 『전문대학교육』. 제9호.

오상봉 외(1998). **지식기반산업의 발전방안**. 서울: 산업연구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78). **성인교육발전에 관한 유네스코의 건의와 한국의 성인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진삼 외(1996). "전문대학 교육개혁 당위성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신흥전문대학논문집』 제19호, 17-69.

윤석천 · 신광호(1996). **중장기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대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관춘(1998).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호주의 국가전략 2000." **직업교**

육의 세계화와 전문대학의 진로.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95-124.

이길순(1997). **산업체의 전문대학 인력채용 및 요구 분석**. 신구대학.

_____(1999).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업이동경로 분석**. 신구대학.

이대근(1996). **산업인력양성제도의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이무근(1998). "한국직업교육의 방향과 전문대학의 진로". **21세기 전문대학의 진로와 경영 쇄신**. 1998년도 전국전문대학장 세미나.

_____(1995). "세계 직업교육의 동향과 한국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직업교육연구』 제14권 1호, 1-15.

이상오(2000).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체제화 전략".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15-35.

이상일(1998). **미국직업교육 훈련제도의 새로운 변화**.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이원화(1998). **미국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의 성인고등교육기관적 특성에 대한 연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표 외(1998). **주요국의 직업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분석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종서(1996). "신 직업 교육체제에서의 전문대학 교육환경과 발전방안". 『원광보전논문집』 제19호, 31-39.

이창구(1997). "전문대학의 바람직한 개혁방안", 『전문대학교육』. 제27호.

임연기 외(1999).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99-40.

장석민(1995). "직업기술의 세계화 전략과 전문대학 교육". 『전문대학교육』 제16호. p.36-39.

장창원 외(1998).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_____ (1999). **지식·정보산업화에 따른 직종변화**.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우현 외(1998).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지선 외(1998). **산업체 위탁교육의 개선방안 연구-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2000).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위상**". 『전문대학소식』 제3호. p.7-10.

정태화(1998). "**민간자격제도의 도입과 전문대학의 역할**". "**전문대학교육**". 제31호.

_____(1999a). "**평생학습사회의 고등학교 직업교육발전 대책 탐색에 관한 연구**".『직업능력개발연구』 제2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1999b).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대학(원) 학사 운영 방안 연구.** 서울: 교육부.

_____(2000). **전문대학 직업교육 다양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용기 외(1998). **사립전문대학 경영개혁방안 연구-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주삼환 외(1995). "**전문대학의 교육환경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지응업(1992). "**전문대학 교육의 이념·체제·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혁방안의 모색**". "**공업기술교육**" 제62호, 48-58

최승욱(1997). "**산업체 위탁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논문집 『경남정보대학』 제25집.

한국교육개발원(1998). **선진국 교육개혁의 최근 동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1993). "**국내산업 현황과 산학협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문대학교육**" 제9호.

_____(1998). **직업교육의 세계화와 전문대학의 진로**.

_____(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고등직업교육체제 개혁**. 제4회 전문대학교육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지표**.

홍기훈(1995). **산업발전과 전문대학-전문대학 교육실태 보고서**. 삼민사

홍선이(1999). **독일의 직업훈련**.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황종건(1994). "**구미 대학사회교육의 모형 : 미국, 영국, 카나다**". 『**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서울 : **정민사**.

_____(1994). **한국사회교육총람**. 정민사.

Apps, J. W.(1981). *The adult learner on campus*. Chicago : Follett.

Arthur, Eleonore(1992). England and Wales. In Jarvis, Peter(Ed.). *Perspectives o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Malabar: Krieger.

Ausubel, J.H and Grubler, A.(1994). "Working less and living longer : Long-term trends in working time and time budgets". *mimeo.* OECD : Paris.

Axford, R. W.(1969). *The adult education: The open door*. Scranton: International Textbook Company.

Bengtsson, J.(1985). "recurrent educ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 7.* Oxford : Pergamon Press.

Bourner, T. et. al.(1991). *Part-time students and their experience of higher education*.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Brockett, R. G. & Heimstra, R.(1991). *Self-direction in adult*

learning: Perspective 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Bundesanstalt fuer Arbeit(1999). *Informationen fuer die Beratunges- und Vermittlungsdienste der Bundesanstalt fuer Arbeit. Nuernberg,* Bundesanstalt fuer Arbeit. 1999/ 3.

Candy, P. C.(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1973). *Towards a learning society*. N.Y.: McGraw-Hill.

Carstensen, V. W.(1990). Educational service: the Wisconsin idea. In Rohfeld, R. W.(ed.). *Expanding access to knowledge: Continuing higher education NUCEA · 1915-1990*. Washington DC: National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Association.

Cell, E.(1998). *Organizational life: Learning to be self-directed*.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CERI(1978). *Alternation Between Work and Education : A Study of Educational Leave of Absence at Enterprise Level*. Paris : OECD.

Cho, SJ.(1994). "Five-year plan for new economy and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system". *OECD seminar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Workforce*. Seoul. 30 May-1 June.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1995). *Report on Quality Reviews*. Vol. 1 and 2. Canberra :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oombs, P. H.(1982). *World crisis in edu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Corner, T. E.(ed.).(1990). *Learning opportunities for adults*. London: Routledge.

Drucker, P. F.(1994).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Drucker, P. F.(1999).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Duke, C.(1992). Adult and continuing higher education. In Burton R. Clark & Guy Neave(Eds.). *The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Vol. 2)*. Oxford: Pergamon Press.

Ellwood, C.(1976). *Adult learning today: A new role for the universities?* London: SAGE Publications.

Employment Department, United Kingdom(1994). *Modern Apprenticeships*. Sheffield : Young People and Work Branch.

Etzkowitz, H. & Leydesdorff, L.(eds.).(1997). *Universities and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 government relations*. London: Pinter.

Fantini, M. D.(1983). Changing concepts of education: From school system to educational system. D. H. Schoeny & L. E. Decker(eds.). *Community, educational, and social impact*

perspectives. Mid-Atlantic Center for Community Education, University of Virginia.

Faure et. al.(1972),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Paris: UNESCO.

Foray, D. and Lundvall, Bengt-Ake.(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From the economics of knowledge to the learning economy. OECD. *Employment and growth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Author.

Fordham. P.(1989). Universities and adult educ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P. Fordham, G. Poulton, & L. Randle.(1979). *Learning networks in adult education : Non-formal education on a housing estate*. London: RKP.

Gelpi E.(1979). *A Future for lifelong education (2 vols)*. Manchster Monographs No. 13.

Gessner, Q. H.(1987). *Handbook on continuing higher education*. N.Y.: Macmillan.

Halsey, H. A.(1961), The changing functions in universities. J. F. Halsey & C. A. Anderson(ed.).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N.Y.: The Free Press.

Harrington, F. H.(1977). *The future of adult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Hatfield, Thomas M.(1989). Four-year colleges and universities. S. B. Merriam & P. M. Cunningham(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Hesburgh, T. M., Miller, P. A. & Wharton, C. R.(1974). *Patterns for lifelong learning: A report of explorations* Supported by the W. K. Kellogg Found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Howieson(1996). "Modularization i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Tuijnman, A. C.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Adult Education and Training(2nd ed)*. Oxford : Pergamon. pp. 513-519.

Jarvis, P.(1992). *Perspectives o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Malabar: Krieger.

Jarvis, P.(1998). Paradoxes of the learning society. Holford, J. et al(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ifelong learning*. London: Kogan Page.

Keating, P. J.(1994). *Working Nation: Policies and Programs*. Canberra :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Kelly, Thomas(1962). *A history of adult education in Great Britain*. Liverpoll Univ. Press.

Knapper, C. K. & Cropley, A.(1885). *Lifelong learning and higher education*. London: Croom Helm.

Knowles, M. S.(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Follett Publishing Co.

Knowles, M. S.(1990). Creating lifelong learning communities. *The adult learner: A neglected species*(4th ed.). Houston: Gulf Publishing Company.

Kulich, J.(1987). The university and adult education: The newest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university." W. Leirman &

J. Kulich(eds). *Adult education and the challenges of the 1990s*. London: Croom Helm.

Leicester, M.(1993), *Race for a Changing in Continuing & Higher Education*, Oper University Press.

Lenk, H.(1994). "Value changes and the achieving society: A social philosophical perspective". *OECD Societies in Transition: The Future of Work and Leasure*. Paris : OECD.

Longworth, N. & Davis, K.(1996). *Lifelong learning: New vision, new implications, new roles for people, organizations, nations and communities in the 21st century*. London: Kogan Page.

Mace, J. & M. Yarnit(eds)(1987). *Time Off to Learn: Paid Educational Leave and Low-Paid Workers*. London : Methuen.

McIlroy, J. & Spencer, B.(1988). *University adult education in crisis*. Leeds: The University of Leeds Printing Service.

Mee, G.(1980). *Organisation for adult education*. London: Longman.

Myers, L. W.(1989). "Community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 forty-nine systems". Fountain B. F. and Tollefson T. A.(ed.), Washington D.C. : AACJC.

Neef, D.(ed.).(1998). *The knowledge economy*. Boston, MA.: Butterworth- Heinemann.

OECD and Statistics Canada(1995). *Literacy, Economy and Society: Results of the First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and Ottawa : OECD Press.

OECD(1970). *Educational opportunity I*. Paris: Author.

OECD(1973). *Recurrent Education : A Strategy for Lifelong learning*. Paris : OECD Press.

OECD(1987). *Adults in higher education*. Paris: OECD Press.

OECD(1988). *New Technologies in the 1990s: Socioeconomic Strategy*, Paris: OECD Press.

OECD(1990). *Employment Outlook*. July. Paris: OECD Press.

OECD(1992). *Technology and Economy* : The Key Relationships. Paris: OECD Press.

OECD(1994a). *Employment Outlook*. July. Paris: OECD Press.

OECD(1994b). *Industrial Policy in OECD Countries, Annual Review*. Paris: OECD Press.

OECD(1994c).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Paris: OECD Press.

OECD(1994d). *The OECD Jobs Study : Evidence and Explanations*. Paris I and II, Paris: OECD Press.

OECD(1995). *Learning beyond Schooling : New Forms of Supply and New Demands*. Paris: OECD Press.

OECD(1996a). *Evaluating and Reforming Education Systems*. Paris: OECD Press.

OECD(1996b). *Lifelong learning for all. Meeting of the Education Committee at Ministerial Level*, 16-17 January 1996.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ublishing.

Shannon T. J. & Schoenfeld C. A.(1965). *University Extension*.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Shoemaker, C.(1998), *Leadership in Continuing & Distance Eduction in Higher Education*, Allyn & Bacon, Inc.

Smith, D. M. and M. R. Saunders(1991). *Other Routes : Part-time Higher Education Policy*. London : Open University Press.

UNESCO(1979). *Terminology of adult education*. Paris: UNESCO.

UNESCO(1994). *Higher education staff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UNESCO.

UNESCO(1995). *Policy paper for change and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Paris: UNESCO.

UNESCO(1997).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Final Report. Paris: UNESCO.

Vaughan, G. B.(1995). The Community College Story : A tale of American innovation.

AACC(http://www.aacc.nche.edu/commun/pubrel/history/sigevents.htm).

Williams, G.(1977). *Towards lifelong education : A new role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aris: UNESCO.

Witt. A. A. et al.(1994). *America's community colleges : the first century*. AACC.

World Bank(1995). *Global Economic Prospect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World Bank(1999). *Knowledg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Author.

Yarrington, R.(1989). Community colleges in adult education.

In Titmus, C. J. (Ed.).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An international handbook*, Oxford: Pergamon Press.

<커뮤니티칼리지 통계 인터넷 자료>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all about community college(1998)

- http://www.aacc.nche.edu/allaboutcc/number.htm
- http://www.aacc.nche.edu/allaboutcc/snapshot.htm
- http://www.aacc.nche.edu/allaboutcc/top10.htm
- http://www.aacc.nche.edu/allaboutcc/15fast.htm

ABSTRACT

Plan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ae-Joune Park
Eun-Jin Oh

1. Overview

The development of continuing education for junior college graduates is required to cope with the rapid evolutions in social structures such as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changes in vocational structures. At this time, this study aims at seeking ways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The following themes were examined so a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First, the definition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was clarified. Second,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in Korea was investigated. Third, success stories of adults utilizing continuing education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U.K., Australia, Germany, etc. were examined and analyzed to derive the lessons to be learned. Lastly, suggestions for role strengthening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in Korea were presented to strengthen continuing education for adults in more abundance and efficiency in the

face of 21st century knowledge-based social standard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previous researches and documents related to junior colleges in Korea and overseas were reviewed and a survey of a total of 300 people - relevant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personnel - in 31 junior colleges nationwide was conducted. 181 people responded to survey. It's results were analyzed. Also, numerous specialist attended experts meeting were held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and to discuss study results.

2. Definition of Continuing Education and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 refers to education that aids young and adult school graduate workers in adjusting to, improving on or converting to job environments. When applying this definition to junior colleges, it is an education for junior college graduates with a certain amount of work experience or those with certificates acquired through short-term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t supports them in adjusting to and improving in their occupations, or to convert to job environments.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may be divided into three types. One is horizontal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learning skills other than their specialties. Another is vertical continuing education for upgrading their specialty. Third is education that covers both purposes. An example of a course in horizontal continuing education is 'admission outside of the quota'. In vertical continuing education 'advanced specialty course' and job-oriented course' are included. 'Hourly student registration system', 'special course', 'lifelong education course', 'customized education', 'industry-commissioned course' are included in the third category.

3. The analysis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Status and suggestion

The survey conducted to identify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status consists of 4 parts: ① Continuing Education Status and Problems, ② Perceptions of the Continuing Education, ③ Direction and Strategy of Strengthening Continuing Education, ④ Potential Areas in Realizing Strategy for Strengthening Continuing Education.

The results indicated perceptions of continuing education biased more toward broader lifelong education functions rather than that limited to junior college graduates solely. It is also perceived, in continuing education status and problems, that junior colleges focus more on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rather than on that related to jobs. On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and possibilities for realizing continuing education,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linking the major reinforcement courses to degree courses' was most important and with the highest possibility of being realized.

4. Ways to Strengthen Functions of the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Plans to strengthen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functions were classified in four categories such as 'strengthening functions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strengthening functions of horizontal continuing education', and 'strengthening functions of vertical continuing education'.

First of all, plans to strengthen functions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are as follows:

① Improve the quality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to establish expertise of short-term higher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② Develope a strict evaluation method to enhance the quality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③ Solidify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to the extent of maintaining the current Korean vocational education system

④ Concentrate on continuing education as a professional vocational education activity.

⑤ In cases of enrollment outside of the quota, the optional subjects and basic common courses should be exempted within the framework of continuing education rather than regular education.

Second is 'Plans for strengthening of the horizontal continuing education function'. In enrollment outside of the quota, the optional subjects and basic common courses should be exempted within the framework of continuing education rather than regular education.

Finally, Plans for strengthening of the vertical continuing education function' are as follows:

① Recognize the results of junior college continuing education as job experience and build a system to recognize job experience as learning.

② Separate academic institutions and learning organizations in order to maintain the original status of junior colleges within the Korean vocational educational system.

③ Establish a continuing education curriculum linked with corporate learning organizations.

④ Establish a labor union/ company agreement system or social partnership.

부 록

[부록 1]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설문지

[부록 2]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면담지

[부록 1]

전문대학 계속교육 강화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문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원자 수의 감소와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전문대학이 21세기 평생학습사회의 중추적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좋은 개선 방안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동봉해드린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10월 6일까지 우송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2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중에 의문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135-102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교육연구실
전화 : 02-3485-5076 / 팩스 ; 02-3485-5090 / E-Mail : tjpark@krivet.re.kr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기능 강화 방안연구를 위한 설문

◆ 해당란에 ☑표 하거나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 소재지의 행정단위
   ⑴ 서울 및 광역시 ⑵ 중소도시 ⑶ 군·읍·면

2. 시도별 대학 소재 지역
   ⑴ 서울 및 경기도 ⑵ 충청도 ⑶ 경상도
   ⑷ 전라도 ⑸ 강원도 ⑹ 제주도

3. 귀하의 보직은 무엇입니까?
   ⑴ 학장 혹은 부학장 ⑵ 교무·학생처(부)장 등 행정직 (3) 일반 행정직원
   ⑷ 학과장 5) 보직교수 (6) 기타 ( )

◆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그 중요도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란에 ☑표하거나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대학의 계속교육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문항에 대해 O, X 로 답해주십시오.

1)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교육, 소양교육 등의 평생교육 센타로서의 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2)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교육 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3) 취약 계층 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4) 성인 문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5) 4년제 대학 편입학 지원 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6)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7) 민간자격증 취득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8)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직업교육 ① 예 ( ) ② 아니오 ( )
9) 입직 청소년의 산업체 적응 훈련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10) 학점은행제 관련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11) 전공심화과정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12) 산업체와 연계한 실업자 재취업훈련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13) 실업계 고교와 연계한 전문직업교육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2. 현재 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규 외 교육에 대해서 O, X로 대답해주십시오.

1) 지역주민(노인, 주부 등)을 위한 기초생활교육, 소양교육 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2) 외국의 선진기술, 직업교육, 해외유학을 위한 기초 기술 및 어학교육 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3)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교육 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4) 취약 계층 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5) 성인 문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6) 4년제 대학과의 연계를 위한 기술교육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7) 산업체와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취득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8) 실업계 고교와 연계한 전문 직업교육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9)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직업교육 ① 예 ( ) ② 아니오 ( )
10) 입직 청소년의 산업체 적응 훈련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11) 학점은행제 관련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12) 전공심화과정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13) 산업체와 연계한 실업자 재취업훈련기능 ① 예 ( ) ② 아니오 ( )

3. 현재 진행되는 정규 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계신지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1)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교육, 소양교육 등의 평생교육 센타로서의 기능

① 매우비중있음 ② 비중있음 ③ 보통 ④ 별로 비중없음 ⑤ 전혀 비중없음

2) 성인근로자의 직무향상교육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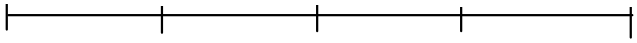
① 매우비중있음 ② 비중있음 ③ 보통 ④ 별로 비중없음 ⑤ 전혀 비중없음

3) 취약 계층 성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기능

① 매우비중있음 ② 비중있음 ③ 보통 ④ 별로 비중없음 ⑤ 전혀 비중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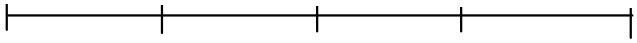
4) 성인 문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기능

① 매우비중있음 ② 비중있음 ③ 보통 ④ 별로 비중없음 ⑤ 전혀 비중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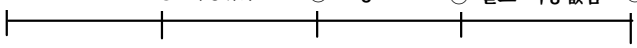
5) 4년제 대학 편입학 지원 기능]

① 매우비중있음 ② 비중있음 ③ 보통 ④ 별로 비중없음 ⑤ 전혀 비중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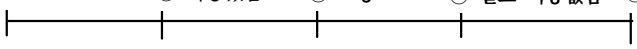
6) 산업체와 연계한 자격제도 취득기능

① 매우비중있음 ② 비중있음 ③ 보통 ④ 별로 비중없음 ⑤ 전혀 비중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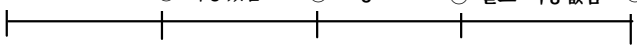
7) (전직, 이직, 자기만족을 추구하는)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위 혹은 학점취득

① 매우비중있음 ② 비중있음 ③ 보통 ④ 별로 비중없음 ⑤ 전혀 비중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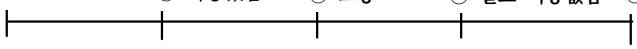
8) (전직, 이직, 자기만족을 추구하는)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기능

① 매우비중있음 ② 비중있음 ③ 보통 ④ 별로 비중없음 ⑤ 전혀 비중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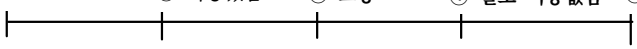
9) 입직 청소년의 산업체 적응 훈련기능

① 매우비중있음 ② 비중있음 ③ 보통 ④ 별로 비중없음 ⑤ 전혀 비중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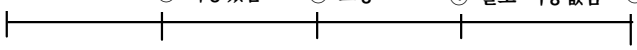
10) 학점은행제 관련기능

① 매우비중있음 ② 비중있음 ③ 보통 ④ 별로 비중없음 ⑤ 전혀 비중없음



11) 전공심화과정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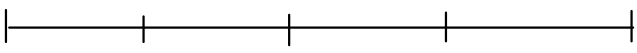
① 매우비중있음 ② 비중있음 ③ 보통 ④ 별로 비중없음 ⑤ 전혀 비중없음



4. 전문대학에서 계속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들의 중요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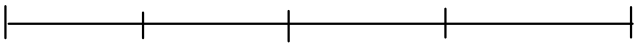
1) 전문대학의 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운영

① 매우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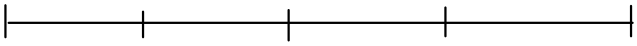
2) 산업기사 이상의 직무중심 교육과정 개발

① 매우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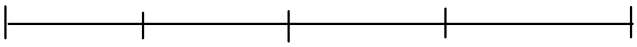
3) 자격 갱신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개발

① 매우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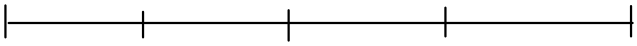
4) 전공심화과정 운영 활성화

① 매우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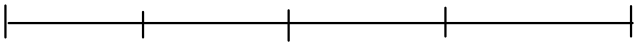
5) 원격교육과정 운영

① 매우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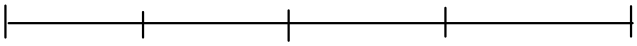
6) 기사 자격취득과정 운영

① 매우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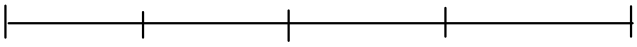
7) 주문식 교육과정 확대

① 매우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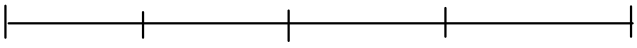
8) 시간제 등록생의 확대

① 매우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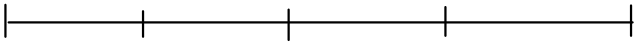
9) 학점은행제 운영

① 매우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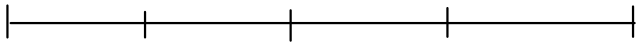
10) 독학사제도 운영

① 매우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11) 시간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① 매우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12) 기타 _____

◆ 다음 문항은 현재 귀 대학에서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계속교육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표 하거나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교는 계속교육(평생교육원, 재직자교육, 외국어교육원 등)을 위한 별도의 기구나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평소 전문대학 졸업자의 재교육 또는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3. 계속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전문대학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3-1. 3번에서 1), 2), 3)항에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항목에 모두 ☑표 하십시오)

1) 전문대학 교육 대상 확대(고등학교 졸업생 이외의 산업체 근로자까지 확대)
2)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내실화
3)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강화(인적 · 물적 차원에서의 산학협동)
4) 입학자원의 안정적 확보
5) 기 타

3-2. 3번에서 4), 5)항에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문대학 교육적 기능의 축소
2)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낮음
3) 현실적으로 산업체의 참여가 없음

4) 계속교육의 도입을 위한 행·재정이 부족
5) 기 타

4. 귀교는 앞으로 계속교육을 확대할 생각입니까?

1) 확대하겠다
2)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3) 축소하겠다

5. 현재 계속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 계속교육 운영에 대해 관련 전공 교원들의 이해 및 협조 부족
2) 계속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체 부족
3) 계속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 당국의 행·재정적인 지원 부족
4) 계속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부족
5) 계속교육운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6) 계속교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운영 능력 부족
7) 기관별 협력의 부족으로 인한 중복 프로그램문제

6. 현재 귀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속교육은 어디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대학의 관련 전공에서 실시
2) 대학부설 사회(평생)교육원에서 실시
3) 산업체 현장에서 실시
4)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시설을 임대해서 실시
5) 일부는 대학에서 일부는 산업체 현장에서 실시
6) 기타_____

7. (전직, 이직, 자기만족을 추구하는)일반 성인대상을 위한 학위(혹은 학점)과정이나 자격증취득과정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1) 운영하고 있다　　2) 운영하고 있지 않다

8. (전직, 이직, 자기만족을 추구하는)일반 성인대상을 위한 계속교육은 어떠한 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보기나 보기 외의 것을 적어주십시오)

<보기>
학점은행제, 자격증반, 시간제반(야간, 오후, 주말반), 독학사 학위과정

---

9. 현재 계속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에 대한 산업체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참여가 활발하다
2) 참여가 저조하다 (9-1번에 응답)

9-1. 산업체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문대학 직업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신뢰감 부족
2) 계속교육에 참여하는 산업체의 규모가 소규모
3) 계속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필요성 및 이해 부족
4) 계속교육 추진에 대한 교원의 적극적 참여 부족
5) 계속 교육 참여를 위한 산업체의 비용에 대한 부담
6) 기타 _____

10. 계속교육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1) 협약 체결 한 전 산업체에게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2) 협약 체결 한 일부 산업체에게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3) 전혀 받고 있지 않음.

11. 현재 계속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에 대한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등) 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참여가 활발하다
2) 참여가 저조하다 (11-1번에 응답)

11-1. 공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문대학 직업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감 부족
2) 계속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필요성 및 이해 부족
3) 계속교육 추진에 대한 교원의 적극적 참여 부족
4) 계속 교육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용에 대한 부담
5) 기타 _____

12. 전문대학의 계속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요소라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13. 계속교육을 위한 교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학생　2) 학교　3) 산업체
4)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　5)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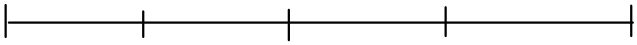
14. 계속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당항목에 모두 ☑표 하십시오)

1)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　2) 교수확보율　3) 정부의 행·재정 지원
4) 실질적 산학협동체제 구축　5) 대학의 자율운영권 확보

◆ 전문대학의 계속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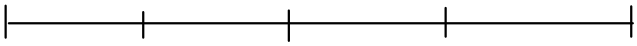
1) 전문대학의 심화과정을 학위취득과정으로 운영

① 전혀 불가능　② 약간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아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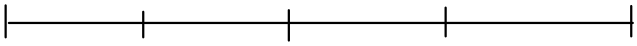
2) 산업기사 이상의 직무중심 교육과정 개발

① 전혀 불가능　② 약간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아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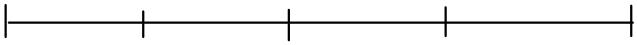
3) 자격 갱신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개발

① 전혀 불가능　② 약간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아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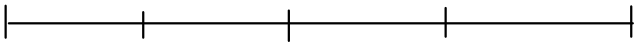
4) 전공심화과정 운영 활성화

① 전혀 불가능　② 약간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아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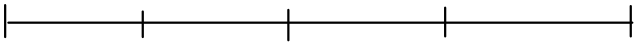
5) 원격교육과정 운영

① 전혀 불가능　② 약간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아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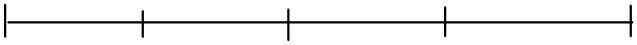
6) **기사 자격취득과정 운영**

① 전혀 불가능 ② 약간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아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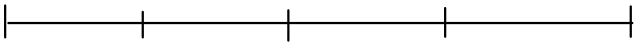
7) **주문식 교육과정 확대**

① 전혀 불가능 ② 약간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아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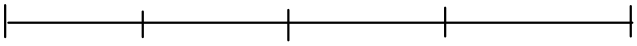
8) **시간제 등록생의 확대**

① 전혀 불가능 ② 약간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아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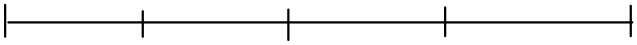
9) **학점은행제 운영**

① 전혀 불가능 ② 약간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아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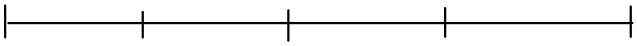
10) **독학사제도 운영**

① 전혀 불가능 ② 약간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아주 가능



11) **시간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① 전혀 불가능 ② 약간 불가능 ③ 보통 ④ 약간 가능 ⑤ 아주 가능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강화방안을 위한 면담 설문지

1) 전문대학에서 운영되는 계속교육 과정들의 운영 실태 및 전략

계속교육을 초기교육과정 다음 단계로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들은 현재 전문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속교육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정들: **성인 근로자의 직무 향상 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 산업기사 이상의 직무중심교육과정, 자격갱신에 따른 보수 교육과정개발**들을 중심으로 현재 전문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속교육과정들의 종류 및 운영 방법(off-line, 기사자격취득과정, 주문식 교육, 시간제등록, 학점은행제, 독학사, 시간별 차별화된 프로그램등), 향후 발전계획 그리고 이에 관련된 문제점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오

I)실태

II) 앞으로의 발전 계획

III) 문제점 및 애로점

IV) 제안 사항

1. 전문대학에 계속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전문대학의 질적 · 양적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Yes/ No

<긍정적인 관점: 예) 전문대학의 교육대상확대(고교 졸업생 이외에 산업체 근로자까지 확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의 내실화, 산업체와 산업협동 강화, 입학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 >

<부정적인 관점: 예) 전문대학 교육적 기능의 축소,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현장 요구(needs)와의 불일치, 현실적 산업체의 참여 정도가 낮음, 계속교육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 · 재정적인 정도>

2. 현재 계속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예) 계속교육 운영에 대해 관련 전공 교원들의 이해 및 협조 부족, 계속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체 부족, 계속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 당국의 행·재정적인 지원 부족, 계속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부족, 계속교육 운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계속교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운영 능력 부족, 기관별 협력의 부족으로 인한 중복 프로그램문제 등>

3. 현재 계속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체와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에 대한 산업체의 참여 여부?

<(예) 전문대학 직업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신뢰감 부족, 계속교육에 참여하는 산업체의 규모가 소규모, 계속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필요성 및 이해 부족, 계속교육 추진에 대한 교원의 적극적 참여 부족, 계속 교육 참여를 위한 산업체의 비용에 대한 부담 등>

4. 계속교육을 협약한 산업체와 전문대학간의 재정지원관계는?

5. 현재 계속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 및 공공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예) 전문대학직업교육에 관련된 정부의 이해부족, 계속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필요성 및 이해부족, 계속교육 추진에 대한 교원의 적극적 참여 부족, 계속교육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용에 대한 부담, 정부의 재정지원>

6. 교육비의 부담 여부(교육비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해야 하나?)

7.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강화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연구 01-41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 강화 방안 연구

2001년 12월 일 인쇄
2001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강 무 섭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15-1 (135-949)
홈페이지 : http:/ / www.krivet.re.kr
전 화 : (02) 3485-5000, 5100
팩 스 : (02) 3485-5200

등 록 제16-1681호(1998. 6. 11)
ISBN 89-8436-332-4 93330

인쇄처

 값

보고서 내용 문의
전화 : 02-3485-5111, 5119 E-mail : jslee@krivet.re.kr